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 비교연구

- 대재앙 서사를 중심으로 -

2021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서묘연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 비교연구

- 대재앙 서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정 훈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서 묘 연

서묘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 월

위 원 장 _____ 서영채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류준필 _____ (인)

위 원 _____ 이정훈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재앙 서사를 중심으로 중국 작가 류츠신의 『삼체』와 한국 작가 배명훈의 『신의 궤도』에 대해 비교연구를 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SF문학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한중 양국의 SF 문학에는 모두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취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SF가 오랜 기간 동안 문학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고 SF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재앙 이야기를 다룬 SF 소설 두 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SF의 하위 장르인 대재앙 소설은 사회의 불안감을 예민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재앙 소설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맥락과 각국의 사회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재앙의 위기, 진행, 결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삼체』와 『신의 궤도』를 분석하고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삼체』에서는 대재앙이 외계인의 침입으로 시작됐지만 근본적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지구문명과 삼체문명 사이에는 단순한 정의의 주인공과 사악한 악역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지리적인 고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우주 시민'이라는 존재적 공통점이 있다. 대재앙의 진행 단계에서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도덕 및 인간성이 충돌할 때 인간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일종의 사고실험 통해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 전체가 미지의 고등문명의 공격을 받아 이차원 평면으로 되었고 지구 문명이 종말을 고했다.

『신의 궤도』의 경우 대재앙의 원인은 인류의 내전과 인공지능의 각성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삼체』와 마찬가지로 인류 내부의 원인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재앙의 진행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나니예 행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며 미지의 심

판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죄를 받은 나니예의 사람들은 모든 존재로부터 소외된 채 허전함과 소극적인 도피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해간다. 마지막으로 구세주인 김은경과 인공지능체 프리마 덕분에 나니예 행성은 구원을 받았다. 강인한 김은경은 주어진 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진짜 고향을 찾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프리마는 따뜻한 빛을 발해 대립과 원한의 매듭을 풀고 세상을 구원했다.

서양의 SF 소설과 비교할 때『삼체』와 『신의 궤도』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그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국민의 시선이 자국에서 세계로 향하면서 동아시아는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삼체』에서는 지구인과 삼체인을 모두 고향이 없는 우주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신의 궤도』의 김은경 역시 항상 탈출하고 진정한 고향을 찾으려는 욕구와 행동을 대변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이 고향을 찾는 모습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정신의 귀속처를 잃고 방황하던 동아시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작품은 다른 해법을 제시하였다. 『삼체』에는 안정감을 주는 고향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엄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소설에서는 존엄함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약하더라도 끝까지 저항해야 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고 태연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삼체』는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중국식 영웅'의 형상을 많이 부각시켰고 이점은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되었다. 반면 『신의 궤도』에서는 김은경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고향을 찾는 행동의 기저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또한 주요 인물인

프리마와 김은경 및 나물은 모두 영혼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였다. 그들의 깨달음은 지식이나 논리와 같은 지성과 이성(理性)이 아니라, 감정이나 직감과 같은 직관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얻어졌다. 작가는 감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생겨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 SF, 대재앙, 류츠신, 배명훈, 불안, 정체성
학 번 : 2018-2483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과 문제의식 ····· 1
제 2 절 연구대상 ····· 5
제 3 절 선행연구 ····· 10
제 4 절 연구방법 ····· 19

제 2 장 류츠신과 배명훈의 이력과 작품세계 ··· 32
제 1 절 류츠신의 이력과 작품세계 ····· 32
제 2 절 배명훈의 이력과 작품세계 ····· 40

제 3 장 『삼체』와 『신의 궤도』에 대한 비교연구
제 1 절 『삼체』의 대재앙 상상 ····· 46
1. 외계인 침공과 인간성에 대한 절망 ····· 46
2. 생존 제일의 원칙으로 인한 도덕적 곤경 ····· 58
3. 인류 공동체와 삶의 형식 ····· 72
제 2 절 『신의 궤도』의 대재앙 상상 ····· 75
1. 인공지능의 각성과 인류 내전 ····· 76
2. 죄를 받은 인간 ····· 83
3. 구세주에 의한 세계의 구원 ····· 91
제 3 절 『삼체』와 『신의 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98
1. 공통된 문제: 세계화 물결 속에서 위치 찾기 ····· 98
2. 다른 해법: 의미 있는 삶과 감성의 위안 ····· 103

4. 결론 ····· 111

참고문헌 ····· 116
中文摘要 ····· 123

표 목 차

[표 1] 대재앙 소설의 유형 정리표 ····· 29
[표 2] 『삼체』 1부 주요 사건 연표 ····· 52
[표 3] 『삼체』 2-3부 주요 사건 연표 ····· 60
[표 4] 『신의 궤도』1-2부 주요 사건 연표 ····· 8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문제의식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이성 시대와 근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인류 세계는 기술의 폭발적 발전을 맞이했다. PC통신, 인공지능, 생물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 새로운 기술들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전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불안과 질문은 과거의 순수문학에서는 답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SF는 그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에서 인간만의 특질이 무엇인지 토론하면서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인류의 불안을 완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SF는 미래로부터 현실을 성찰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뉴로맨서(Neuromancer)』, 『어둠의 왼손(The Left Hand of Darkness)』, 『여성 남자(The Female Man)』 등 SF작품은 미래세계나 평행세계를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젠더 등 문제를 사고하였다. 인류와 과학기술이 불가분의 이 시대에는 과학소설의 존재가 필요하다. 김봉석의 말과 같이 신의 세계를 인간이 물려받은 새로운 시대에는 SF가 과학의 신화로서 필요하다.[1)]

SF는 서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장르이지만 한국이나 중국에 도입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문학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다소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한중 SF 문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태동-정체(停滯)-재부상'이라는 비슷한 발전의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1) 김봉석,「미래만이 아니라 현실의 상상력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SF」,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서울: 케포이북스, 2016, 165-175쪽.

다. 중국에서 SF 장르는 20세기 초에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중국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던 중국 근대 지식인에 의해 움을 틔웠다. 루쉰(魯迅) 등 지식인들은 쥘 베른(J. Verne)의 소설들을 번역하고 중국인들에게 '과학'의 가치를 일깨움으로써 중국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창작 SF 소설도 싹트기 시작했다. 1904년 荒江釣叟가 『수상 소설(繡像小說)』에 연재한 『달의 식민지 소설(月球殖民地小說)』은 중국 최초의 창작 SF 소설로 여겨진다. 徐念慈의 『신법라선생담(新法螺先生譚)』(1905), 吳趼人의 『신석두기(新石頭記)』(1905), 許指嚴의 『전세계(電世界)』(1909) 등도 시대적 특색을 지닌 SF 작품이다.

그러나 신문화운동 이후 오랫동안 리얼리즘 문예가 문단의 주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SF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50~60년대 소련 SF 이론의 영향으로 『태양계 몽유록(夢遊太陽系)』(1950)와 『지구에서 달까지(從地球到月球)』(1954)』 등이 나왔지만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보급도서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예융례(葉永烈)의 『샤오링통의 미래 유람(小靈通漫遊未來)』와 통언정(童恩正)의 『산호섬의 죽음의 빛(珊瑚島上的死光)』처럼 우수하고 영향력이 큰 작품이 나왔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바로 문학계의 정치적 비판에 받았다. 과학소설은 저속한 '사이비 과학'과 '정신오염'으로 비판받았고 한때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문단에 상업적 기운이 팽배해지면서 본격문학이 대중독자들로부터 서서히 외면되었고, 2000년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터넷문학의 유행에 따라 SF 문학이 대중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고 있었다.[2] 물론 이때의 SF 문학은 여전히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중국의 SF 문학이 새로운 활력을 보였다. 2015년 류츠신의 『삼체』와 2016년 하오징팡(郝景芳)의 『베이징 접기 北京折疊』가 휴고상을 수상하여야 비로소 SF문학이 급부상하였다.

---

2) 중국 SF 문학의 발전 역사 부분은 鄭軍(2011)과 徐王胤(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 과학소설의 역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구 과학소설의 번역 및 번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 『태극학보』에 쥘 베른의 『해저2만리』가 『해저여행기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의 과학소설 번역이 진행되었고 1929년에 이르러서야 한국 최초의 창작 SF 작품『K박사의 연구』가 비로소 탄생했다. 그러나 리얼리즘이 우세했던 한국 문단에서 SF는 오랜 기간 동안 창작 및 연구 측면 모두 성과가 부족했다. 해방 후부터 90년대까지는 한국의 SF는 서구 명작의 번역과 청소년 과학소설을 위주로 하였다. 한낙원은 꾸준히 청소년 대상 창작과학소설과 과학교양서를 집필해온 이 장르문학의 명실상부한 선구자다. 문윤성이 1965년 발표한 장편 『완전사회』는 한국 최초의 성인용 장편 SF 소설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작품부터 복거일의 『비명의 찾아서』(1987)가 나오기까지 21년 동안 어른용 과학소설라고 할 수 있는 창작 SF 소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3] 1990년대 PC 통신의 활성화와 웹기반 플랫폼의 대중적 보급 등을 기반으로 2000년대 SF 문학에는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취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듀나, 배명훈, 김보영, 김초엽 등 뉴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친숙한 젊은 작가들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4] 이 소설들은 장르문학과 주류문학이라는 경계, 혹은 문화적 편견과 오해를 넘어, 과학기술 문화와 미래의 인간·사회에 관한 성찰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서사적인 담론의 장(場)이라 할 수 있다.[5]

SF가 오랜 기간 동안 문학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대적인 변화기를 맞아 SF는 이제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래 한국과 중국에서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 작가들은 본국의 현실을 입각하여

3) 고장원,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서울: 부크크, 2017, 138쪽.

4) 한국 SF 문학의 발전 역사 부분은 박상준(2005)과 이지용(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5)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2), 2015, 338쪽.

일련의 우수한 SF 소설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학술계에 그 만큼 많은 진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본문에서 SF 문학의 하위 장르인 대재앙 이야기를 주목하여 중국 작가 류츠신의 『삼체』와 한국 작가 배명훈의 『신의 궤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해보겠다.

대재앙 소설(Apocalyptic fiction)은 문명과 인류가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는 장르[6]이고 묵시록 소설이라고도 한다. 대재앙 이야기는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Grainville과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은 최초의 대재앙 형식의 이야기로서 종교적인 죽음과 개체 운명의 종말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20세기에 들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세계전쟁과 핵위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정신적 외상이 형성되고 하인라인의 『에이리언 마스터(The Puppet Masters)』(1951)와 같이 냉전공포를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지구를 침공한 비인간적인 외계인이 현대 도시에서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생존상태와 그것에 대한 무의식의 불안을 알레고리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7] 또한 1950년대의 대재앙 영화에서 독신 여성을 공격하는 외계인이나 괴물은 다가올 젠더혁명을 우려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핵 오염으로 나타난 괴물 고질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일본사회의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있었다.[8]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금 이 시대에 SF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그 중 대재앙 소설은 SF의 하위 장르로서 사회의 불안감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재앙 소설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맥락과 각국의 사회 불안의 원인을

---

6) 종말물-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2%85%EB%A7%90%EB%AC%BC
대재앙 소설은 과학소설, 판타지, 공포물, 사변물의 하위 장르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 과학소설의 하위 장르의 경우만 다룬다.

7) 수전 손택, 이민아 역, 「재앙의 상상력」, 『해석에 반대한다』, 서울: 이후, 2002.

8) Paul Harris, "Hollywood searches for escapism after the apocalypse", The Guardian, 2009.
https://www.theguardian.com/film/2009/aug/09/hollywood-apocalypse-movies-anxiety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대에 비하여 새로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서양에 비해 동아시아의 SF문학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서양의 기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SF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해보았다.

제 2 절 연구대상

본문에서는 류츠신의 『삼체』 3부작과 배명훈의 『신의 궤도』 2부작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에 먼저 작가와 소설의 줄거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할 것이다.

류츠신[9](劉慈欣,1963-)은 중국 당대 과학소설을 논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1988년 화베이수리수력학원을 졸업하고, 2009년까지 발전소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 기숙사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창작을 시작하여 일찌감치 중국 본토에서 수여하는 여러 문학상을 휩쓸어 한쑹(韓松, 1965년생), 왕진캉(王晋康, 1948년생)과 더불어 과학소설 3대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2015년에는 SF 소설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휴고상을 수상하여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2019년 그의 작품 『유랑지구(流浪地球)』는 영화화되어 중국 역대 흥행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중국의 SF 열풍을 일으켰다.

『삼체』는 류츠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1부는 2006년 5월부터 『과환세계(科幻世界)』지에 연재되어 2부는 2008년 5월, 3부는 2010년 11월 출간되었고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여 중국 SF문학 시장을 휩쓸었다. 『삼체』는 지구문명과 삼체 문명이 교류하고 전쟁하면서 두 문명이 우주에서의 흥망성쇠 과정을 묘사하였다. 문화대혁명의 광기 속에

9) 류츠신과 배명훈에 대한 소개는 YES24 작가파일과 나무위키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예원제(葉文潔)는 인류에 대한 절망으로 외계인 삼체문명에 지구문명을 개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구 문명은 삼체 문명의 침입 위협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했다. 결국 지구문명과 삼체문명을 포함한 태양계 전체가 더 높은 문명으로 멸망되었고, 우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배명훈(裵明勳,1978-)은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에서 『Smart D』로 수상하며 정식으로 등단하였다. 『안녕, 인공존재!』로 2011년 제1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주류 문단 쪽에서도 작품성을 공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주류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가로 평가받으며 한국문학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작가가 보여주는 기발한 상상력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품 사이사이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이 던져지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준다.

『신의 궤도』 2부작은 2011년에 출간되었고 배명훈의 첫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십오만 년 후의 휴양행성 나니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겨우 사형만 면한 채 냉동된 인공위성 재벌의 서녀인 은경은 아주 먼 미래에 나니예 행성에서 다시 깨어났다. 나니예에 대재앙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걸 막으려면 인공위성처럼 우주의 궤도를 돌고 있는 신을 깨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왕복선 조종사인 은경과 예언자 나물은 행성의 운명을 쥔 신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동시에 행성의 세력들 간의 권력 쟁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류츠신과 배명훈을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혁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국 SF문학의 변화하는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류츠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등단은 중국 SF문학사에서 터닝포인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중국 주류문단에서 선봉문학(先鋒文學)과 신사실(新寫實)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거대서사와 전통문체를 전복적으로 해체했다. 동시에 중국 SF 작가들은

80년대부터 서양의 '뉴 웨이브' 사조를 배우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이르러 한쑹(韓松), 양펑(楊鵬), 싱허(星河), 왕진캉(王晉康) 등 '신세대' 작가들이 주제나 서사, 내용 등 측면에서 전통 SF문학에 대한 파괴성과 파격적인 실험을 나타냈다. 주류 문단과 장르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파괴성과 전통에 대한 해체는 초기에는 문단과 독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이후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리감과 불쾌감을 갖게 했다. 그렇지만 류츠신의 등장은 문단에 고전주의의 숨결을 가져왔다. 그는 황금시대의 고전적인 SF문학의 자양분을 이어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특색 있는 '신고전주의[10]'라는 미학적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삼체』에 나타난 숭고함이란 미각과 『유랑지구』에 나타난 비장한 이상주의 정신 및 『인류를 부양하다(贍養人類)』에서 사회 빈부격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당대 문단에서 개인화와 파편화된 스타일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평론가 우옌(吳巖)은 '류츠신은 파괴적인 것이 주조인 중국 SF 문학의 흐름을 전환시켜 긍정적인 재구축으로 이끌었다'[11]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류츠신은 주류 문단에서도 관심과 인정을 받았다. 2012년 순수문학 분야 최상급지 『인민문학(人民文學)』이 류츠신의 단편소설 4편을 특집으로 발간했고 이는 34년 만에 SF 문학이 다시 주류문학지에 등재된 것이다. 당시 편집장을 맡고 있었던 리징저(李敬澤)은 '우리나라 과학소설의 최고작은 세계 최고의 과학소설과 맞설 만하다고 생각하다'[12]고 칭찬했다. 또 2012년 인민문학유석상(柔石獎) 단편소설 부문 금상, 2013년 제9회 전국우수아동문학상 등 순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주류문단에서 인정을 받았다. 동시에 그의 작품은 대중독자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그는 SF 소설이 대중문학으로서 시장과 독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창작이념

---

10) 吳巖,方曉慶, 「劉慈欣與新古典主義科幻小說」, 『湖南科技學院學報』 2, 2006.에서 류츠신에 대한 평가인데 현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위와 같다, 37쪽.

12) 姜妍, "科幻小說返《人民文學》", 中國作家網, 2012.3.14
http://www.chinawriter.com.cn/2012/2012-03-14/120900.html

을 가지고 작품에서 대중독자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 류츠신은 글에서 '나는 오랫동안 밑바닥에서 살아왔고, 과학소설 독자들이 처한 풀뿌리 계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상상세계도 그들과 쉽게 공감할 수 있다.'[13]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배명훈의 경우 그는 등장할 때부터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SF작가는 장르 팬덤을 기반으로 작가가 성장하는데 배명훈은 그렇지 않다. 그는 SF독자가 아닌 상태에서 SF작가로서 그 장르에 들어간 것이다. 처음에 국제정치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주최 대학문학상을 수상하였는제, 수상작인 『테러리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인공위성 무기 등 설정을 활용한 것 때문에 'SF적인 기법이 돋보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 본인에게는 "쓰고 싶은 걸 쓰는데 그게 SF가 되는 경우"[14], "주류문학보다 SF문학 쪽에서 제 글이 먼저 발견됐고, SF작가가 됐"[15]다는 언급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틀에 있지 않은 포지션은 배명훈에게 특별한 시야를 가져다 주었다. 장르 마니아 출신의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과 비슷한 이야기를 쓴다는 충동이 있다. 예를 들어 류츠신은 인터뷰에서 '내 모든 작품은 아서·클라크를 패러디한 것'이라며 클라크의 깊은 영향을 역설한 바 있다. 『삼체』에서 인류의 운명을 걸고 외계인과 싸움을 벌이는 스토리는 역시 전통적인 미국 백인 히어로물 식의 이야기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러한 스토리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워 보였고 또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와 맞물려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한국으로 배경을 옮긴다면 현재로서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포지션이라서 그런지 배명훈은 장르 안팎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

---

13) 劉慈欣, 『最糟的宇宙, 最好的地球』,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5, 221쪽.
14) 김은성, "너, 어느 별에서 왔니? - 배명훈 『신의 궤도』", 채널예스, 2011. http://ch.yes24.com/Article/View/18145
15) 신연선, "배명훈: 소재가 오컬트스러워도 충분히 SF다", 채널예스, 2017. http://ch.yes24.com/Article/View/34356

다. 단편소설에서 영어권 SF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클리셰나 소도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사전 지식이 없는 대중독자에게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F소설인데 과학소설 독자라야만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안에 사색과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란 말이다. 고장원은 배명훈 작품의 이러한 특징을 '생활 SF'[16]라고 요약하고 배명훈의 대중성과 출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배명훈은 주류문단 쪽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사이를 오가는 작가'[17]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연작소설집 『타워』를 발표했을 때 그는 현국 사회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인해 주류 문단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문단 바깥에서 발견된 이단아'라는 이미지로 알려졌다. 이후 『안녕, 인공존재』로 2011년 제1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주류 문단쪽에서 공인받았다 할 수 있다. 배명훈은 등단 이후 SF 장르문학 작가로 웹진과 『판타스틱』같은 장르문예지에 글을 연재했고 주류 문단 쪽의 신춘문예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모전의 도움 없이 본격문학의 기준에서 문학적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특수한 작가였다. 물론 한국의 SF팬들이 영어권 SF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명훈에게는 '이거 SF냐?'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렇지만 많은 SF팬이 아닌 독자들이 배명훈의 작품들을 통해 SF문학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SF 전체의 생태계에 도움이 된 것이다.

류츠신과 배명훈은 방향이 다르지만 모두 자국의 SF문학사에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완화되고 있는 흐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류츠신이 SF 마니아 출신의 작가로서 그의 영향력이 장르 내부에서 외부로

---

16) 고장원,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서울: 부크크, 2017, 550쪽.

17) 이윤주, "소설가 배명훈: <안녕, 인공존재!> 출간 장르와 본격문학 경계에 선 작품 주로 선보여", 주간한국, 2010.6.24.
http://weekly.hankooki.com/lpage/people/201006/wk20100624111606105590.htm

확산되었고 배명훈이 장르 밖으로부터 진입하여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에 넘나들었던 것이다. 길은 달라도 향하는 목적지는 같다는 말처럼 모두 SF장르의 영향력을 주류 문단과 대중독자에게 확대시키고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류츠신의 『삼체』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우주공간에서 벌이는 인류 종말을 다루는 작품이다. 이를 접점으로 두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대재앙이 인류의 일종 불안감을 반영한다면 『삼체』와 『신의 궤도』는 각각 작가이나 한중 양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특정한 구세주가 존재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남기는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재앙은 서구 고전 SF에서 흔히 등장하는 클리셰인데 작가들이 이 익숙한 장르를 통해 각각 어떠한 독창성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서양의 그것과 비교할 때 한중 SF 작품에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1. 류츠신에 대한 연구

개혁개방 이후 서양의 과학소설이 중국으로 대거 도입되면서 중국 과학소설 창작도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훌륭한 작품이 많아지고 스타일도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 류츠신의 장편소설 『삼체 3부작』이 완간되던 당시 중국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진행된 SNS 홍보를 통해 삼체 3부작에 대한 독서 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문학계 평론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술지나 신문에 관련 평론과 보도가 다수 등장하였다. 2014년 『삼체 1부: 삼체문제』가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2015년 휴고상을 수상해서 류츠신과 그의 작품들이 세계적으

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해외 문학평론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본절에서는 류츠신 장편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중국국내의 연구와 해외 연구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하고자 한다.

(1) 중국국내

류츠신은 1999년 6월 SF문예지인 『과환세계(科幻世界)』에서 처음으로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등단하자마자 뛰어난 작품과 참신한 스타일로 중국 SF 문학의 맑은 미래를 열어갈 중견 작가가 되었다. 2006년부터 베이징사범대의 우옌 교수와 같은 학자들이 류츠신을 주목하고 비평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2010년 『삼체 3부: 사신의 영생』의 열풍과 같이 류츠신에게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준 높은 학위논문도 나오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류츠신의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수가 많고 수준도 좋은 편이지만 연구 분야가 다음과 같은 몇 부분에 한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관련된 비교연구도 부족하다. 앞으로 연구 분야와 시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류츠신의 작품 전반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吳巖,方曉慶(2006)에서는 중국 과학소설의 발전을 돌이켜보면서 류츠신의 작풍을 '신고전주의'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宋明煒(2011)에서는 중국 문학사를 돌아보면서 류츠신 작품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문정신을 가진 이상주의와 현실에 대응하는 이성적 태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류츠신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삼체』에서 류츠신의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이상주의 정신과 냉혹한 게임 이론을 활용한 이성주의 정신을 동시에 드러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묘사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남겼다.

李廣益(2017)와 楊宸, 羅崗(2018)에서는 단순히 SF소설로 류츠신의 작품을 인식하지 않고, 중국 당대 문학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李廣益(2017)에 따르면 류츠신의 작품들은 근대 이후 중국인

들의 구국을 도모한다는 민족적 정서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인류의 딜레마와 미래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고를 보여주었다. 楊宸, 羅崗(2018)에서는 루카치의 '총체성(totality)' 이론을 참고하여 『삼체』를 비롯한 작품들이 파편화된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 속에서 사상적 차원의 '총체성'을 구축한다고 제기하였다.

류츠신의 작품의 주제를 검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劉珍珍(2009)은 중국국내 류츠신과 관련된 최초 학위논문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차용하여 『삼체』를 비롯한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류츠신 작품에 나타난 인류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센터, 권위 등에 대한 해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陳頎(2016)에서는 새뮤얼 P. 헌팅턴의 '문명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s)' 관점을 인용해서 인류와 삼체문명 간의 갈등이 문명의 충돌이고 작품에 나타난 '암흑의 숲'이란 이론을 국제정치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屈菲(2015)에서는 푸코의 담론 이론과 피에르 지마의 문학 텍스트의 사회학이란 관점에서 출발하여 『삼체』에 나타난 이성理性과 인간성이란 두 가지 담론 체계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체계는 연결되면서 서로 텐션을 보여주었다.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전체주의와 세계대전, 기술문명의 발전 속에서 인류문명에 대한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로 바뀌어가면서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반대되는 개념이 생겨났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SF문학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자 연구자들이 SF작품들을 분석하는 한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류츠신 소설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竇芳芳(2015)에서는 『삼체』에 나타난 '도덕이 없는 우주'를 디스토피아로 생각하고 류츠신이 억압된 생존공간을 창조하고 인류와 자연, 인류와 인류, 인류와

비·인간 사이의 충돌을 묘사하면서 기존 문학에서의 디스토피아보다 시대 변화와 맞물리는 특징을 보였다. 楊宸(2016)은 류츠신이 『삼체』에서 두 가지 궁극적인 유토피아 세계를 상상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이미 사라진 우주의 전원(田園) 시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가올 새로운 우주의 전원 시대이다. 또한 생존경쟁이 심한 우주는 글로벌화세계와 후기자본주의 사회를 은유한다면 새로운 우주는 현실 세계 문제에 대한 대안對案적인 유토피아라고 했다.

劉釗(2013)은 유일한 페미니즘 시역에서 류츠신 작품을 성찰하는 논문이다. 이 글에서 사이버 페미니즘 관점으로 『삼체』를 성찰하고 우주적 차원의 사회학에서의 페미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전통사회의 젠더 관념에 미친 영향을 토론하였다. 『삼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남녀 정치권력의 평등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보여주고 페미니즘에 대해 강조하지도, 피하지도 않는 자세를 취한다고 했다.

류츠신 작품들의 인물형상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류츠신 장편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다. 賈立元(2011)에서는 류츠신 소설에서 중국인 인물들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류츠신이 근대 역사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국민의 정체성이 미래의 공간에 투사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韓環(2014)에서는 비전형적인 주인공인 장베이하이(章北海)와 '불확정(不確定性)성'을 가진 인물인 청신(程心)을 분석함으로써 류츠신 소설의 주요 일물이 '확정성과 불확정성 사이'에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許潔人(2018)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광인' 형상 및 인류의 가치를 굳게 지키는 '소수자' 형상을 검토하였다. 또한 方曉楓(2016)과 張詩悅(2016)에서 각각 『삼체』에서의 여성 형상과 아버지 대(代)의 인물형성을 분석하였다.

류츠신 작품들의 서사나 미학을 분석하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楊宸(2017)에서는 『삼체』 시리즈 중 '역사 서사'와 '종말 서사' 두 가

지 서사 패턴이 존재한다고 논술하였다. ‘역사 서사’에서는 ‘서사 개입’이라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현실감을 주었다. ‘종말 서사’에서는 인류와 우주가 종말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공동체와 총체성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또한 王靜靜(2016)과 李源湲(2019)에서는 각각 『삼체』 중의 문혁서사와 공간서사를 중심으로 연구했는데 연구 분야와 시각을 풍부하게 했다.

嚴鋒(2011)은 류츠신이 숭고함이란 미학을 재구축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가 보기에는 냉철한 과학적 이성과 열렬한 인문정신이 부딪쳐 생긴 장력은 류츠신 작품의 미학의 핵심이다.

王瑤(2016)에서는 류츠신 작품 속의 ‘경이감(sense of wonder)’이라는 미학적 개념을 검토하였다. 류츠신 작품 속의 영웅 인물들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규칙을 용감하게 깨뜨리는 순간은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다.

또한 비교문학의 시각으로 검토하는 연구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비교문학의 시각으로 류츠신의 작품을 토론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데 영향분석법으로 황금시대 작가에 대한 류츠신의 수용과 발전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劉舸,李云(2016)와 任祥輝(2020)에서는 각각 류츠신과 아서·클라크와 아시모프의 작품을 비교하였고 류츠신의 수용과 발전을 분석하였다. 陳海琳(2016)에서는 『삼체』와 중국 동시대 작가 왕진캉(王晉康)의 『모우주에서 탈출하다(逃出母宇宙)』를 중심으로 류츠신과 왕진캉 작품속의 ‘종말 서사’를 비교하였다. 대재앙의 원인과 주요 일물들이 항쟁하는 장면 및 구원하는 길 그리고 도덕 곤경에 빠진 구세주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2) 해외연구

『삼체』가 휴고상을 수상한 이후 해외에서 출간되었으며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이미 2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18] 해외 SF 연구자

18) 盧揚, “影視出版齊開花 進擊的‘三體’宇宙“, 人民網, 2019.7.5. http://capital.people.com.cn/n1/2019/0705/c405954-31215009.html.

와 문학평론가 사이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데 주로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류츠신에 대한 학술적 성과는 많지 않은데 미국에 있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논란이 있는 정치 소재로 중국에서 발표되지 않고 중국 학계에서 별로 토론되지도 않는 작품 『중국2185(中國2185)』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본다.

쏭밍웨이(Mingwei Song)는 중국 당대 SF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중국어와 영어로 많은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Mingwei Song(2013)와 Mingwei Song(2015)에서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시각으로 류츠신의 작품들을 성찰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류츠신의 미발표 장편소설 『중국2185(中國2185)』는 중국 최초의 정치적 사이버펑크(political cyberpunk)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인터넷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유토피아/디스토피아의 변주를 창조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민주와 정부 및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문제를 되새겼고 중국 당대의 정치적인 상상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는 디스토파아로 『삼체』의 세계를 이해하고 『삼체』에 나타난 '생존'과 '도덕' 간의 갈등과 포스트휴먼에 대한 류츠신의 상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Mingwei Song(2018)에서는 『삼체』가 숭고함과 언캐니(uncanny)란 미감을 가지고 세계주의와 민족주의를 잘 혼합한다고 평가했고 『미세기원』이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사고를 드러나고 애매성(ambiguity)과 불확실성의 특징을 내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SF 작가이자 SF 평론가인 한쏭(韓松)은 Han Song(2013)에서 류츠신과 왕진캉 등 작가를 비롯한 중국 신세대 SF작가들을 소개하고 그들 작품들이 중국의 근대화 현실에 대한 반영을 분석하였다. Hua Li(2015)에서는 비판적 유토피아(Critical Utopia)의 시각으로 『중국2185(中國2185)』 속의 정치적인 상상과 비판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류츠신에 대한 연구는 장편소설 『삼체』를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정치적인 성찰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한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심도 있거나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고 본다.

고장원(2017b)에서는 『삼체』1부에 대해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비극적인 근대사를 심도 있게 성찰함으로써 중국다운 특색을 선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삼체』2부에 대해 '암흑의 숲'이란 개념이 춘추전국 시대의 합종연횡 전략을 연상시킨다고 소감만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박민호(2018)에서는 『삼체』에서의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삼체』에 등장하는 지구와 삼체 세계의 대립, 그리고 '암흑의 숲' 원리는 대항해시대와 식민주의 시대,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냉전과 포스트냉전 시대의 유비(類比)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윤리 감정'과 같은 낭만적인 심리 기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냉철하고도 과감한 결단과 모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작가의 윤리에 대한 사색을 보여주었다.

2. 배명훈에 대한 연구

이지용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SF의 학술적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박상준이나 고장원과 같은 선구자들이 해외의 담론들을 꾸준하게 소개해왔고 한국 SF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주었지만 교양 정보의 수준에서 벗어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한국만의 이론적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수준 높은 연구는 말할 나위가 없겠다.[19] 배명훈과 관련된 연구는 그를 2000년대 이후 한국 신세대의 대표적인 SF작가로 삼고 다른 작가와 함께 토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명훈의 장편소설을 다루는 연구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편소설과

19) 이지용, 「한국SF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서울: 케포이북스, 2016.

관련된 연구도 함께 살펴보겠다.

(1) 장편소설

장편소설과 관련된 학술적 성과가 많지 않은데 참고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지희(2011)에서는 『청혼』에 묘사된 우주세계의 의미를 논하였다. 우주는 무한성과 무방향성으로 지구의 뚜렷한 방향성과 경직된 이분법적 대립이라는 특성을 해체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청혼』에서 지구와 외계 사이의 관계는 '적 혹은 친구'란 이분법적 설정을 지워주고 치열한 우주전쟁도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내면에서 자신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는 독특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고장원(2017a)에서는 배명훈 작품의 패러다임을 '음모와 계략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국제정치의 변화무쌍한 다이나믹스(dynamics)와 그것에 희생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개괄하였다. 『신의 궤도』를 비롯한 주요작품들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배명훈의 작품들이 1) 장르 안팎에 구애받지 않는 대중성을 가지고 2)인간과 사회에 따스한 시선을 유지하며 3) 이념편향적 사고의 경직성을 경고하고 인간 본연의 문제와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4)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고 보고 5) 한국적인 아이덴티티가 내재적으로 포함된다고 총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명훈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이 논저는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박인성(2020)에서는 배명훈·김초엽·김보영 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공간 활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배명훈의 부분에서 장편소설 『첫숨』의 알레고리적 세계를 분석하고 배명훈이 "지구와 외계를 우주적 차원에서 균질화하는 방식으로 우주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알레고리적인 세계가 비유적으로 비판적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지구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약점을 지적하였다.

(2) 단편소설

단편소설과 관련된 연구는 장편소설과 비슷하게 작품의 우주세계를 해석하거나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비판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우미영(2014)에서는 『안녕, 인공존재!』와 『누군가를 만났어』 및 『크레인 크레인』을 중심으로 배명훈의 우주세계를 토론하였다. 우선 그는 배명훈의 작품세계에서 경험적 일상이 펼쳐지는 도시 공간과 중국의 외딴 오지 마을, 심령을 만난 곳과 같은 SF적 특수성을 가진 공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발견하였다. 또한 그는 배명훈 작품 속의 우주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배명훈이 인간의 정체성을 우주적 차원에서 찾고 그의 작품에서 지구와 외계, 인간과 외계인이 우주의 차원에서 균질화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우주주의에 입각한 우주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지용(2015)에서는 『안녕, 인공존재!』에서 우주라는 공간이 가진 새로운 의미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환상성이나 미지의 영역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 공간일 뿐이다. 또한 우주는 현실 공간의 확장이자 주변으로부터 단절된 주인공 개인의 공간이다. 이 논문에서는 배명훈이 한국 SF에서 견지해온 우주관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한국 SF에 대한 배명훈의 공헌을 평가하였다.

김남혁(2013)에서는 작품『총통각하』가 기계도 인간도 아닌 새로운 존재를 창안하는 것을 겁내고 편견에 사로잡혀 이를 저지하려는 지배 권력을 풍자한다고 비평했다. 그리고 작품 세계에 나타난 배명훈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장성규(2018)는 임태운, 김덕성, 리락, 김주영, 정희자, 정도경, 배명훈 등 작가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2000년대 한국 SF문학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글이다. 배명훈과 관련된 부분에서 작가가 『스마트 D』를 통해 '문자'에 대한 독점이 가져올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기술의 발

전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훼손을 경고한다고 논술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원흉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성과 자본주의의 탐욕이다. 또한 그는 배명훈의 『외합절 휴가』를 대상으로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배명훈의 알레고리적 성찰과 탈중심주의 사상을 규명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류츠신의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삼체』에 집중되었고 내용적으로 문학사적 의의, 인물형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유토피아. 서사학, 미학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연구 시각을 가지거나 수준이 높은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비교연구와 해외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으며 가능성과 발전 공간이 열려 있다.

배명훈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는 일단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장편소설보다 단편소설을 연구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본다. 본문의 연구대상인 『신의 궤도』에 대한 학술적 성과는 거의 없다고 파악된다. 연구 시각으로 보면 우주세계를 해석하는 논문들이 신선한 시야를 가져다주었지만 단순히 순수문학의 방법론으로 작품의 알레고리적 성찰과 비판의식을 분석했다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 시각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틈새 공간을 찾아 비교문학의 시야와 대재앙이라는 전통 SF 제재를 접점으로 류츠신의 『삼체』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새로운 연구 시각으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고 한중 SF를 토론하는 장을 위해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4 절 연구방법

대재앙 소설(Apocalyptic fiction)은 SF에서 흔히 등장하는 하위 장르

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대재앙 소설은 문명과 인류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장르이고 묵시록 소설이라고도 한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접점으로 『삼체』와 『신의 궤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하위 장르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대재앙 소설의 역사, 유형,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논문 구성을 설계하고자 한다.

1. 대재앙 소설의 역사

사양에서 '종말'에 대한 원초적인 환상은 기독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신약성경의 복음서, 테살로니카 전후서와 베드로 전후서 등의 서간문,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에 매우 많이 적혀있다.[20] 특히 요한 계시록에는 세계 종말을 예언하고, 사탄과 인간의 욕망으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며, 그리스도가 세계의 주권자로 통치하는 새천년 왕국을 여는 내용이 나온다. 계시(Apokalypsis)란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적인 계시로 드러내주는 것을 뜻한다. 계시록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 대지진 등 재난을 예언하고 후세의 문학에 깊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은 일직선적 시간이란 개념 즉 시간의 시작과 종말이 존재한다.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어감에 따라 종말과 심판은 필연적이며, 이는 서양 사람들의 집단의식이 된다. 이에 크리스토퍼 샤렛(Christopher Sharrett)은 "종말론적 성향(the apocalyptic tendency)이 미국의 정신에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다"[21]고 말했다.

또한 영국 SF연구자 애덤 로버츠(Adam Roberts)에 따르면 대재앙 소설의 역사를 보면 '1800년'은 주목할 만한 터닝포인트이다. 왜냐하면 19

---

20) 종말론-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2%85%EB%A7%90%EB%A1%A0

21) Paul Harris, "Hollywood searches for escapism after the apocalypse", The Guardian, 2009.
https://www.theguardian.com/film/2009/aug/09/hollywood-apocalypse-movies-anxiety

세기부터 '미래'를 다룬 소설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애덤 로버츠는 다코 수빈(Darko Suvin)의 말을 차용하여 1800년 무렵에 과학소설의 시좌(時座)가 공간에서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말했다.[22] 그 원인에 대해 아직 정설이 없다. 다크 수빈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미래에 열광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심화되는 이데올로기 통제와 관련될 수 있다. 사람들이 미래에 더 많은 임금과 이윤 및 진보적 관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애덤 로버츠가 보기에는 맬서스의 인구 이론[23]도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미래'를 우려하게 했다.

미래를 생각하게 된 문학가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종말 및 인류의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05년 프랑스어로 출판된 Jean-Baptiste Cousin de Grainville의 『최후의 인간(Le Dernier Homme)』은 계시록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종말을 다룬 이야기다. Grainville는 우수한 상상력으로 '태양과 별의 빛이 꺼지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인 오메가루스와 '마지막 이브'인 시데리아의 이야기를 창작했고 후세의 종말론적 과학소설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1826년 메리 셸리(Mary Shelley)는 같은 이름으로 종말론적인 소설을 썼는데 21세기 말을 무대로 하여 광범위하게 번지는 역병으로 파멸을 맞이한 미래문명에서 주인공 라이오넬이 지구 최후의 인간(The Last Man)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시대의 한계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상상이 매우 소박하지만 문명 쇠퇴와 종말에 대한 묘사는 충격적인 미감을 가진다. 에드거 앨런 포(Edgar Poe)의 단편소설 『The Conversation of Eiros and

---

22) 亞當·羅伯茨, 馬小悟 譯, 『科幻小說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p.98.

23)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1798년 〈인구의 원리가 미래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론 - 고드윈, 콩도르세, 그리고 그 외 작가들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Godwin, M.Condorcet,and Other Writers)〉의 초판을 익명으로 출간하였으며 역사 속의 모든 인구 증가가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인구의 증가가 식량과 같은 자원의 증가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Charmion』(1839)에서 지구가 혜성에 의해 촉발된 대화재로 멸망하는 이야기로서 종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란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쥘 베른이 낙관주의의 대표라면 H.G.웰즈는 인간에게 더 많은 경고를 하는 작가이다. 이는 아마 두 작가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난 쥘 베른과 달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웰즈는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다윈(Darwin)식 우승열패와 생존경쟁의 참혹함을 잘 느낄 수 있다. 『우주 전쟁(The War of the Worlds)』(1898)에서 외계인 침공으로 인한 종말 이야기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폭행을 반성하였다.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 파시즘, 제2차 세계대전, 핵전쟁 등의 재난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심화시켰고 1947년부터 시작한 미소냉전은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한 사회 배경의 영향을 받아 '황금시대(1940s-1960s)'의 과학소설에는 대재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미국 작가 하인라인(Robert Anson Heinlein)의 과학소설『에이리언 마스터(The Puppet Masters』(1951)는 2007년 미소 핵전쟁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여 기생충 같은 외계인이 지구인을 기생하고 의식까지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마음과 의식까지 지배하는 기생충은 공산주의 소련을 명시적으로 연상시키고 당시 미국 사회의 두 번째 적색공포를 반영했다. 존 윈덤(John Wyndham)의 『트리피드의 날(The Day of the Triffids)』(1950)에서 유성우(流星雨)을 목격한 사람들 전부가 장님이 되었다. 동시에 치명적인 식물의 공격을 받아서 세계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문명은 멸망해 가려고 하였다. 존 윈덤의 작품은 H.G.웰스의 주제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업데이트하여 초기 냉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안감 그리고 대영제국의 쇠퇴와 몰락 등 문제를 다룬다고 평가받았다.[24] 아서 C.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Childhood's End)』(1953)는 미소

24) Adam Stock, "The Blind Logic of Plants: Enlightenment and Evolution in

우주 경쟁을 배경으로 한 외계인 침공 이야기다. 소설 결말 부분에서 모든 아이들이 신인류로 진화해서 인류는 사실상 멸종되었다. 그의 단편소설 『90억가지 신의 이름(The Nine Billion Names of God)』(1953)에서 "머리 위 하늘에서 하나 둘씩 별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다(overhead, without any fuss, the stars were going out)."란 단 한 마디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세계 종말의 모습을 경이롭게 드러냈다.

60년대에 들어 냉전 공포와 환경오염 문제는 많은 대재앙 소설을 탄생하도록 하였다. 대재앙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거작도 많다. 뉴 웨이브 대표작가인 J. G. 발라드(J. G. Ballard)는 지구멸망 삼부작『물에 잠긴 세계(The Drowned World)』(1962),『불타버린 세계(The Drought)』(1965),『크리스털 세계(The Crystal World)』(1966)를 창작하였고 각각 지구온난화와 홍수로 인한 종말과 수질 오염과 가뭄으로 인한 종말 그리고 괴상한 결정체 숲(crystallizing forest)으로 인한 종말을 그렸다. 또한 『루시퍼스 해머(Lucifer's Hammer)』(1977)는 혜성 충돌로 인한 위기를 막으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과정 속의 싸움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현대 영상예술의 유행과 함께 대재앙 이야기를 다룬 영화 『투모로우』,『매트릭스』,『터미네이터』 등은 대중들 사이에 인기를 꾸준히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재앙 소설은 19세기 초반부에 이미 유럽에서 태동했으며 미국에서는 과학소설의 황금시대로 일컬어지는 1930년대 말부터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고장원의 말과 같이 "이 하위 장르가 20세기 들어 독자대중의 큰 관심을 끌어 모으게 된 본격적인 계기는 뭐니 뭐니 해도 2차 세계대전 직후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한 서방세계와 동구권 사이의 냉전부터다."[25]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

John Wyndham's The Day of the Triffids", *Science Fiction Studies* 42(3), 2015.

25) 고장원, "SF에서 대재앙 이후 이야기란 무엇일까?", Science Times, 2013.12.9. https://www.sciencetimes.co.kr/news/sf%EC%97%90%EC%84%9C-%EB%8C%80%EC%9E%AC%EC%95%99-%EC%9D%B4%ED%9B%84-%EC%9D%B4%EC%95%BC%EA%B8%B0%EB%9E%80-%EB%AC%B4%EC%97%87%EC%9D%BC%E

로 인해 대중들은 대재앙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과학소설뿐만 아니라 SF영화에서도 대재앙 이야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2. 대재앙 소설의 특징

우선 본문에서 말하는 대재앙 소설(Apocalyptic fiction)과 비슷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재앙 소설 혹은 묵시록 소설(Apocalyptic fiction)[26]은 대재앙으로 인해 지구의 문명이 붕괴하고 있는 세계를 그리는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종말을 초래하는 재앙을 막으려는 행동과 재앙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재앙 이후의 소설 혹은 포스트묵시록 소설(Post-apocalyptic fiction)은 대재앙 이후, 문명이 이미 붕괴한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이야기가 발생하는 시기는 대재앙 직후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주로 대재앙 이후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동과 문명 공동체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또한 대재앙의 오랜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재앙 전의 세계가 신화 같은 존재이다. 대재앙과 대재앙 이후의 세계를 동시에 다룬 작품도 많기 때문에 묵시록 소설과 포스트묵시록 소설을 함께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공동체 또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디스토피아는 일반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정부의 억압, 인간성 말살

A%B9%8C/

26) Apocalyptic fiction, Post-apocalyptic fiction, Dystopia fiction과 관련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했다.
위키백과-Apocalyptic and post-apocalyptic fiction
https://en.wikipedia.org/wiki/Apocalyptic_and_post-apocalyptic_fiction
위키백과- Dystopia
https://en.wikipedia.org/wiki/Dystopia
Literary Terms: Apocalyptic, Dystopian, and Post-Apocalyptic
https://mastersreview.com/literary-terms-apocalyptic-dystopian-and-post-apocalyptic/

(Dehumanization) 및 생태적인 재앙 등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에서는 이 사회의 결함을 폭로하고 주인공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낡은 질서에 반항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될 수 있다. 스토리의 핵심적인 갈등은 주로 한 사회나 체제의 억압과 그것에 대한 반항이다. 반면 대재앙 소설의 핵심적인 갈등은 대재앙과 사람들의 생존 욕구이다.

순수문학에서도 재난 서사(이하 '재난 문학'이라고 함)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재해 사건에 대한 개인적・단편적 기억을 공공의 사회적 기억으로 구축하는 것이다.[27] 대재앙 소설은 '환상적'인 특성으로 재난 문학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페스트』의 흑사병,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콜레라와 같은 재난은 현실에 있는 것인데 대재앙 소설은 상상력으로 외계인 침공,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으로 인한 대재앙이나 인류의 멸망이라는 현실에 없는 것을 묘사한다. 또한 재난 문학은 재난을 배경으로 하여 인물의 운명, 사랑, 관계 등 문제를 관심하는 반면 대재앙 소설은 생존 투쟁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대재앙 소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재앙 소설은 SF소설의 하위 장르로서 환상적인 특징과 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대해 상상하거나 외계인 침공 등 지구를 멸망시키는 수단을 상상함으로써 환상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또한 대재앙은 과학적인 법칙에 따르거나 과학적인 사유로 이해할 수 있어서 과학적인 특징이 있다.

둘째, 생존투쟁은 대재앙 소설의 핵심이고 대재앙과 사람들의 생존 욕구 사이의 갈등은 소설의 주요 갈등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재앙의 폭발-대재앙의 진행-대재앙의 결말이라는 구조로 진행한다. 대재앙의 폭발 단계에서 치명적인 대재앙은 신속하게 만연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재앙의 진행 단계에서 인류가 대재앙의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하거나 대재앙을 막기 위해 협조하거나 쟁투할 것이다. 또한 '구세주'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나 단체가

27) 백지운, 「재난서사에 대항하기」, 『中國現代文學』 69, 2014, 221쪽.

있을 것이다. 구세주에 대한 분석도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대재앙의 결말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구세주는 세계를 성공적으로 구했거나, 아니면 인류 문명이 멸망했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대재앙 소설은 불안(anxiety)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초의 대재앙 형식의 이야기인 Grainville과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을 예로 들면 종교적인 죽음과 개체 운명의 종말에 대한 불안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ainville의 『최후의 인간』에서 요한의 묵시록과 『실낙원(失樂園, Paradise Lost)』의 영향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의 지시로 종말이 오는 세계를 묘사하였다. 이는 하느님의 심판과 개체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을 반영했다.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서 주인공은 대재앙에 저항할 능력이 없고 저항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 역병이 신의 심판이나 숙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메리 셸리는 이 소설을 창작했을 당시 남편과 아이 세 명 및 절친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을 잃었다. 가족과 친구의 죽음으로 고통과 외로움에 빠진 그녀는 1824년 “최후의 인간! 그래,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동족의 마지막 유물로 느끼는, 동반자들이 자신에 앞서 멸종한 고독한 존재의 감정을 잘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28]라는 일기를 썼다. 죽음은 개체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서 그녀의 고독감은 풀릴 수 없었다.

20세기에 들어 사람들은 각자의 운명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더 불안하게 여겼다.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사람은 경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집단적 파멸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세계 3차 대전이 내일이나 모레에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원자폭탄이 대륙 반대편에서 자기 머리 위로 발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화’

---

28) ‘The last man! Yes I may well describe that solitary being's feelings, feeling myself as the last relic of a beloved race, my companions extinct before me.’
Morton D. Paley (2011). "Mary Shelley's The Last Man: Apocalypse Without Millennium". Keats-Shelley Review, #4.
https://romantic-circles.org/editions/mws/lastman/paley.htm에 재인용.

가 더 이상 예측될 수 없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규모가 더 크고 파괴적이기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더 많은 대재앙을 다룬 작품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발생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였기 때문이다.[29] 또한 이 연구는 재앙 영화가 사회의 변화와 변혁의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영화에서는 젊은 커플이나 독신 여성을 공격하는 외계인이나 괴물이 종종 등장했는데, 어쩌면 다가올 젠더혁명을 우려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핵 오염으로 나타난 괴물 고질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일본사회의 우려에서 비롯된다.[30] 현대에 들어 세계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비롯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젠더 문제, 인종주의 문제 등등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은근히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불안에서 대재앙 형식의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SF에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재앙과 종말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쏭이 보기에는 SF는 더 큰 규모와 풍부한 종류의 대재앙을 표현할 수 있어 웅장한 미감을 가지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또한 대재앙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인류의 저항은 비극적인 결과를 받거나 혹은 일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결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저항 정신, 삶의 의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등 문제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31] 류츠신은 영화 『멜랑콜리아(Melancholia)』를 예로 대재앙 소설의 현실적 의의를

29) Paul Harris, "Hollywood searches for escapism after the apocalypse", The Guardian, 2009.
https://www.theguardian.com/film/2009/aug/09/hollywood-apocalypse-movies-anxiety
30) 위와 같다.
31) 韓松, 孟慶樞, 「科幻對談: 科幻文學的警世與療愈功能」,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4, 2020.

서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영화의 주인공은 오래 전부터 세계의 종말을 예측해서 우울증에 빠졌다. 하지만 종말이 정말 올 때는 오히려 평온하고 차분했다. 따라서 늘 문학이나 사고 실험을 통해 종말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앙이 진짜 닥친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32] 그리고 중국의 미학자이자 예술이론가인 주광첸(朱光潛)은 파멸에 대한 공포를 우리의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며 파멸이 다가오는 궁극의 두려움을 담담하게 대할 수 있다면 더 큰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일종의 초월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33] 정리하자면 대재앙 소설은 거대한 사고 실험처럼 문명과 인류의 종말을 상상함으로써 현실 사회에 있는 문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고 인생과 존재의 의의를 반성하며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재앙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초월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3. 대재앙 소설의 유형

대재앙 소설을 분류하려면 다음과 같다.

재앙의 규모로 보면, 『일본 침몰(日本沈沒)』과 같은 한 나라/지역/인종의 재앙과 인류 전체의 멸종 재앙 그리고 우주 전체의 멸망 재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재앙의 결과로 보면 육체의 사라짐과 변이(變異)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년기의 끝』에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포스트휴먼'으로 진화해서 더 이상 '인간'이란 말로 할 수 없다. 또한 한쏭의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곤충, 개미, 물고기로 변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도시문명이 야기한 인간 소외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 소설에서 사람들은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

32) 李黎, "劉慈欣談末日", 經濟觀察報, 2012.12.17.
http://www.eeo.com.cn/2012/1217/237575.shtml
33) 朱光潛, 『悲劇心理學』, 江蘇: 江蘇文藝出版社, 2009.

재앙을 그 원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廖曉波(2015)에서 홍수, 대지진, 혜성 충돌과 같은 '자연재해'와 과학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과학 기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과학기술 재난' 그리고 외계인과 로봇 등 비인간적인 생명체의 침공으로 인한 '타자 침공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고장원(2017c)에서 대재앙의 원인을 자연발생적 천재지변과 인간이 실수이건 탐욕 때문이건 간에 스스로 자초한 인재(人災)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두 연구를 참고하여 '자연 재해', 과학기술이나 사회 및 정부로 인한 '인재(人災)', '비인간적인 생명체의 침공'으로 분류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

[표1] 대재앙 소설의 유형 정리표[34)]

유형	종류	예
자연 재해	천체충돌	『The Conversation of Eiros and Charmion』(1839), 『Remnants (novel series)』(2001-2003)
	역병	『The Scarlet Plague』(1912)
	대지진, 지각변동	『일본 침몰(日本沈沒)』(1973)
	환경오염	『The Drowned World』(1962), 『The White Bird of Kinship』(1978-1982)
	죽어가는 태양	『The Book of the New Sun』(1980-1983), 『The Songs of Distant Earth』(1986)
	신의 지시	『최후의 인간(Le Dernier

34) 참고자료:
위키백과- Apocalyptic and post-apocalyptic fiction
https://en.wikipedia.org/wiki/Apocalyptic_and_post-apocalyptic_fiction
위키백과- List of apocalyptic and post-apocalyptic fiction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apocalyptic_and_post-apocalyptic_fiction#Categories_of_Apocalyptic_and_Post-Apocalyptic_Fiction
예시 부분에서 묵시록 소설과 포스트 묵시록 소설이 포함된다.

		Homme)』(1805)
	미지의 바이러스	『Virus (復活の日, Fukkatsu no hi)』(1964)
	홍수	『Flood)』(2008), 『Deluge』(1928)
	비인간으로 진화/퇴화	『Galápagos』(1985)
	미지의 원인으로 인한 문명 붕괴	『The Dark Tower (series)』(1982-2004)
	초자연적인 존재	『The Purple Cloud』(1901)
인재	기술의 붕괴	『The Machine Stops』(1909), 『With Folded Hands』(1947)
	기술적 특이점	『I Have No Mouth, and I Must Scream』(1967)
	핵전쟁	『Shadow on the Hearth』(1950), 『The Long Tomorrow』(1955)
	기타 세계 대전	『Quinzinzinzili』(1935), 『The Death Guard』(1939)
	인터넷 전쟁	『All Systems Down』(2018)
	인위적인 원인으로 사회나 문명의 붕괴	『The Last of the Masters』(1954)
	자원고갈	『Last Light』(2007)
비인간적인 생명체의 침공	외계인	『우주 전쟁』(1898), 『The Screwfly Solution』(1977)
	좀비, 식물, 괴물	『On the Far Side of the Cadillac Desert with Dead Folks』(1989), 『The Day of the Triffids』(1951)
	인공존재의 반역	『Berserker (novel series)』(1967-2005)

4. 연구의 구성

지금까지 본문은 대재앙 소설의 역사와 특징 및 유형을 연구했다.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본문의 구성을 정리할 것이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의 과학소설사를 돌아보고 본 연구의 의의와 문제의식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본문의 연구대상인 『삼체』3부작과 『신의 궤도』 2부작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연구대상을 비교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류츠신의 장편소설에 대한 중국 국내와 해외의 연구와 배명훈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의 현황과 한계를 개괄하면서 다시 한 번 본문의 연구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대재앙 소설의 역사와 특징 및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장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의 구성을 설계한 것이다.

제2장에서 류츠신과 배명훈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세계를 논술할 것이다. 시대 배경과 작가의 인생 경험이 그들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작가의 주요작품 유형과 특징을 연구하면서 본 논문의 연구에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장에서 『삼체』와 『신의 궤도』의 텍스트를 주목하여 분석할 것이다. 대재앙 이야기를 '위기-진행-결말'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를 중심으로 『삼체』와 『신의 궤도』에서 대재앙 위기의 원인, 대재앙 진행 과정 속의 권력 단체의 협력과 다툼, 대재앙이 끝나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고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삼체』와 『신의 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삼체』와 『신의 궤도』가 사회의 어떠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서양에 비해 두 작품이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등 문제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본문의 주요 관점들을 강조하고 부족한 점과 한계 및 향후 계속하게 연구할 방향을 서술할 것이다.

제 2 장 류츠신과 배명훈의 이력과 작품세계

제 1 절 류츠신의 이력과 작품세계

1. 이력

류츠신은 1963년 북경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원래 중국 석탄설계원(煤炭設計院)에서 일했는데 친척이 국민당 군대에 입대했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기간 가족과 같이 산시(山西)성의 석탄 기지인 양취안(陽泉)시로 하방되었고, 아버지가 광부로,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문혁 기간 동안의 긴장된 사회 분위기와 광구(鑛區)의 불안전한 환경으로 인해, 류츠신의 부모는 그를 고향 하남(河南)성으로 돌려보내 한동안 머물게 하였다.

류츠신은 『삼체』 영문판의 작가 후기에서 1970년 고향에서의 어느 날을 회상하였다. 그날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중국이 발사한 첫 인공위성 '동방홍(東方紅) 1호'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 별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동경심, 자신의 고팠던 배를 기억하며, 옆에 있던 어린 친구들이 빈곤으로 신발이 없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호롱불로 방을 밝혔던 기억이 40년이 지나는 지금에도 생생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몇 년 후 그는 과학보급독서에서 '광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어 한줄기 빛이 넓고 고요한 우주 공간에서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며 '종교적 충격과 경외감'을 느꼈고 '마약 같은 쾌감'을 누렸다.[35] 같은 해인 1975년에 하남성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여 58개의 댐이 붕괴되어 20여만 명의 인명이 죽었다. 이것은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많은 댐을 조잡하게 만들고 생태환경도 파괴함으로 인한 인재(人災)이다. 이에 류츠신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홍수가 물러간 직후 마을로 돌아와 보니 피난민들로 가득 찬 풍경이 보였다. 세계의 종말을 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인

35) Liu Cixin, Ken Liu, "Author's Postscript For The American Edition", *The Three-Body Problem*, New York: Tor Books, 2014.

공위성, 굶주림, 별, 호롱불, 은하, 문혁의 파벌 내전, 광년, 홍수... 이러한 겉보기에 관련되지 않는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내 인생의 어린 시절을 형성했고, 또한 지금 나의 과학소설의 틀을 형성했다."[36] 그 중에 "인공위성, 별, 은하, 광년"은 그가 동경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굶주림, 호롱불, 문혁, 홍수"는 그의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사슬"[37]이다. 그렇다고 류츠신 작품 중 우주와 별나라에 대한 경외와 동경, 중국 밑바닥 사회의 가난과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재난 제재에 대한 선호는 그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혁 기억이 류츠신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는 연구자도 있다. 류츠신과 같은 60년대의 작가들은 문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 혹은 목격자의 입장에 있었다. 극단적인 개인숭배와 영웅적 모범을 반복적으로 선전(宣傳)하는 분위기 속에서 60년대 작가들에게 강력한 영웅주의 콤플렉스가 형성되었다는 관점[38]도 있다. 류츠신 또한 작품에서 영웅인물에 대한 선호가 등장한다. 程孝陽(2020)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대한 저항과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공감 등 주류 이데올로기도 류츠신의 작품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39] 문혁 시기의 주류 정치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소련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대한 저항,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동정 등 류츠신의 공상과학 소설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문혁을 겪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두 가지 면에서 유랑을 강요당했다고 할 수 있다. 류츠신은 베이징(北京)에서 태어나 가족과 같이 양취앤(陽泉)으로 하방(下放)되었는데, 위험한 사회 정세 때문에 허난(河南)으로 돌아갔고 홍수를 겪은 후 다시 떠나게 되어 어린 시절에 여러 차례 이주(移住)를 경험했다. 그와 같은 상황은

---

36) 위와 같다.

37) 『삼체』 영문판의 작가 후기에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보이지 않는 족쇄를 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나는 오직 내 사슬 안에서 춤을 출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다.

38) 宋雯, 「剪不斷的精神臍帶－－童年經驗與"六十年代作家"的小說創作」, 華中科技大學, 博士論文, 2015.

39) 程孝陽, 「劉慈欣科幻小說論」, 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20, p.17-18.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어디에 가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시대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작가들의 정신도 줄곧 '뿌리 내리지 못하는' 유랑 상태에 처하고 있었다.[40] 류츠신도 이런 관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디에도 유대감이 없다"고 "지리적으로 내 집이 어디인지는 알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지 못했다"[41]고 말했다. 顧葉(2014)에서는 이에 대해 '우주유랑의식'이란 주제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42]

초등학교 때 양취앤으로 돌아간 류츠신은 읽을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는데, "그때 나의 상태는 아마 모옌(莫言)의 소설 『투명한 당근』에 나오는 헤이하이(黑孩)처럼 극도의 정신적 빈곤함과 외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생겨 환각과 같은 상상력이 분출되었을 것"으로 이 시절을 회상한다.[43] 아버지는 가끔 문혁 당시 금서를 집에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소련의 과학소설 『시간보다 강하다(Stronger than Time)』와 『안드로메다(Andromeda)』도 포함되었다. 류츠신은 그러한 과학소설을 좋아해서 쥘 베른의 소설과 소련의 SF소설을 많이 읽었다. 그의 과학소설 창작에 대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작가는 바로 아서·클라크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아서·클라크의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짧은 편폭에서 인간이 탄생에서 노쇠로,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삶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라마와의 랑데부』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아서·클라크 작품이 거대한 우주 공간과 수만 광년을 거친 시간 공간을 상상하면서 조물주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류츠신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

40) 위와 같다, 18쪽, 재인용.

41) 丁曉潔, "大時代邊上的幻想家_劉慈欣：只有在科幻裏，我才是個理想主義者", 新周刊 346期, 2011.
http://www.cb.com.cn/index/show/sd/cv/cv135110301310/p/7.html

42) 顧葉, 「宇宙流浪意識與劉慈欣科幻小說創作」, 山東大學, 碩士論文, 2014.

43) 吳益超, '科幻'教主'劉慈欣", 中國科學報, 2013.1.7.
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1-07/151372.html

과학소설을 창작에 대한 최초의 동기부여를 해주었다.[44] 또한 그는 수필 『나의 SF 길에 있는 몇 권의 책』에는 그에 대한 영향이 큰 다른 문학 작품들도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1984』는 1984년 전통 리얼리즘 소설로는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시각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전쟁과 러시아 국민의 삶의 일대 파노라마를 그렸는데 인류를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으로 보는 시각이 과학소설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45] 또한 왕멍(王蒙)의 소설『청춘만세(青春萬歲)』도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195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학생들의 삶을 그리는 이 소설에는 순수한 이상주의가 가득했다. 류츠신의 보기에는 이는 순수한 이상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소설과 맥을 같이한다.[46]

또한 그는 과학이론 보급도서도 즐겨 읽었다.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 상대론과 양자 중력 이론을 공부하고 일한 후에도 최신 과학 이론 논문을 읽는 습관을 유지했다. 과학 이론은 우리의 상상력의 공간을 열어준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영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기술하고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현상은 고전역학의 확정성의 세계를 전복하였다. 끈 이론과 초끈 이론은 최소한 입자부터 10차원의 시공까지 모든 물질이 1차원의 개체인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인간의 상상력은 과학이론의 발전에 따라 평행우주, 다차원 우주, 미시세계와 먼 미래까지 닿는다. 류츠신은 그러한 과학기술의 미감과 상상력에 빠져들었다. "과학 기술의 미를 방정식에서 벗어나 문학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보여준다"[47]는 것은 그의 SF창작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위와 같은 류츠신이 좋아하는 문학작품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SF 장르의 마니

---

44) 劉慈欣 著, 杜學文, 楊占平 主編, 『我是劉慈欣』, 山西: 北嶽文藝出版社, 2019, p.63.
45) 위와 같다, p.62-65.
46) 困困, "劉慈欣 : 《三體》之後, 再難興奮", 紐約時報中文網, 2014.5.27. https://cn.nytimes.com/books/20140527/tc27liucixin/
47) 劉慈欣 著, 杜學文, 楊占平 主編, 『我是劉慈欣』, 山西: 北嶽文藝出版社, 2019, p.65.

아임을 알 수 있다. 과학과 과학소설에 대한 사랑으로 SF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순수 문학 작품도 SF 소설의 일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류츠신은 중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줄곧 중위권이었고 주목받는 학생도 아니었다. 1985년 화북수리수전학원(華北水利水電學院) 수전공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해 산시(山西)성 냥쯔관(娘子關) 발전소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냥쯔관 발전소는 국영기업으로서 당시 중국 최대의 화력 발전소이라서 현지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좋은 작장이었다. 류츠신은 자신의 우수한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급 엔지니어로 점차 승진했다. 가끔 동료들과 마작을 해서 당시 한 달 치 월급과 맞먹는 800위안이라는 큰돈을 잃기도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녁 시간을 채워야 할 일을 찾기 위해 과학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 창작 입문의 동기가 되었다. 『과환세계(科幻世界)』의 잡지 편집장은 그의 작품을 매우 좋아해서 1999년부터 계속해서 류츠신의 단편소설을 게재해왔다.

"과학소설의 세계에서만 나는 이상주의자다"[48]라고 류츠신은 말한 바 있는데, 그는 과학소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여 현실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아내와 딸을 돌보는 평범한 생활을 반복하는데 주변 동료들은 그가 과학소설을 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심지어 그가 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도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SF를 좋아하는 유치한 아이들"을 허용하지 않는 세계에서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게 SF의 세계란 억압된 상상력을 해방시켜주는 언어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부터 류츠신은 첫 장편소설인 『삼체』를 창작하기 시작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텔레비전에서 본 우주에 대한 전문가의 토론

48) 丁曉潔, "大時代邊上的幻想家_劉慈欣：只有在科幻裏，我才是個理想主義者", 新周刊 346期, 2011.
http://www.cb.com.cn/index/show/sd/cv/cv135110301310/p/7.html

이었다. 외계인의 신호가 들어오면 인간이 즉각 대답해야 우주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점에 대해 류츠신은 반대하였다. 그는 인간이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면 안 되고 외계 문명에 대해 최대한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49] 이를 기점으로 상상을 펼쳐 『삼체』 시리즈를 창작하였다. 이 관점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생각과도 일치하였는데 호킹은 2010년 비슷한 관점을 제기하였고 "만약 외계인이 전화한다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삼체』 1부는 2006년 5월 『과환세계(科幻世界)』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중국 과학소설은하상 특별상을 받았다. 이후 연이어 서호(西湖)·장르문학 雙年獎 금상과 제9회 전국 우수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상을 많이 받았지만 발전소에서의 직장생활은 지속하였다. 국영기업이란 직장은 그의 글쓰기에 심리적인 안전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발전소가 오염 문제로 폐쇄되고 나서야 그는 전업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2. 작품세계

1999년 6월부터 『과환세계(科幻世界)』에 단편소설 『고래의 노래(鯨歌)』로 등단한 뒤 『초신성시대(超新星紀元)』, 『구형번개(球狀閃電)』, 『삼체』3부작 장편소설 7권과 『향촌교사(鄉村教師)』, 『유랑지구(流浪地球)』, 『그녀의 눈과 함께(帶上她的眼睛)』 등 단편소설 30여 편을 잇달아 발표했다. 작품에서의 웅장한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미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으로 인해 류츠신은 중국의 대표적인 신세대 과학소설가가 되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SF 은하상을 9번 수상했고 대표작 『삼체』로 2015년 휴고상을 받았다.

그의 창작을 살펴보면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다.[50] 첫 번째 단계는

---

49) 劉慈欣 著, 杜學文, 楊占平 主編, 『我是劉慈欣』, 山西: 北嶽文藝出版社, 2019, p.17-19.

50) 류츠신은 『에덴동산으로 되돌아가다-과학소설 창작 10년 회고』라는 글에서 자신의 창작과정을 '순수 SF단계', '사람과 자연의 단계', '사회실험 단계' 3 가지

순수한 SF환상을 다룬 단계이다. 단편소설 『미시세계의 끝(微觀盡頭)』 『붕괴(坍縮)』와 대예술 3부작『꿈의 바다(夢之海)』『시 구름(詩雲)』 『환락송(歡樂頌)』이 단계에 속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작품들은 단순한 SF적인 환상이나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과 사회 같은 현실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SF세계의 낭만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었지만 소설로서 줄거리가 잘 짜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시세계의 끝』과 『붕괴』는 모두 한 가지 과학적 구상을 핵심으로 조직한 스토리다. 전자는 쿼크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했고 미시세계의 끝에 이르면 거시 우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는 스토리이다. 후자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주는 팽창에서 수축으로 변화하고 이때가 되면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고 했다. 이 두 편에서 과학적인 구상을 이야기의 핵심으로 삼고 스토리를 정교하게 전개하지 않았다. 또한 대예술 3부작은 단순한 과학적인 구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SF적 환상세계의 미감을 묘사하였다. 『꿈의 바다』는 외계인이 지구 바다의 모든 물들을 직육면체로 얼려 공중에 띄워 꿈의 바다라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떠나버렸고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던 인류가 재앙을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시 구름』에서 외계인은 컴퓨터로 글자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배열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우주에서 최고의 시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태양계 전체의 물질을 대가로 소위 '궁극적인 음시 시스템'을 만들었고, 결국 태양계는 사라지고 시 구름만 남았다.『환락송』은 태상을 악기의 줄로 우주 공간에서 연주하는 이야기다. 대예술 3부작은 모두 항성이나 우주 차원에서 예술을 진행하는 이야기인데 미의 극치와 잔혹성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아름다움과 충격은 바로 스토리의 핵심이고 인물들의 관계나 사회의 구체적 현실은 작품에서 다루지 않는다.

단계로 나누었는데 과학소설에서 우주나 대자연이 영원한 에덴이며,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劉慈欣 著, 杜學文, 楊占平 主編, 『我是劉慈欣』, 山西: 北嶽文藝出版社, 2019, p.66-75.

두 번째 단계는 환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단계이다. 초기의 순수SF환상 작품은 독자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류츠신은 장르 문학의 대중성을 고려하여 인간과 대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류츠신의 대부분의 작품과 대표작이 모두 이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편 소설 『삼체』1부와 『구형번개』와 단편소설『유랑지구』와 『향촌교사』 『중국태양』등이 있다. 이 단계의 작품에는 일반적으로 SF적인 환상세계와 무거운 현실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며, 두 세계 사이의 강렬한 대비가 이야기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인물이지만 우주와 하이테크 등 SF적인 것들과 연루된다. 『향촌교사』는 가난한 마을의 교사가 죽기 전에 학생들에게 뉴턴 운동 법칙을 가르치는 행동이 무심코 지구 멸망을 막아 내는 이야기를 했다. 『중국태양』은 베이징에 살고 있는 한 농촌 노동자가 고층 빌딩의 유리를 닦는 일부터 인공위성 유리를 닦는 일까지 했고 마지막에는 별과 궁극의 신비에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없는 우주여행에 자원했다. 현실세계는 독자에게 공감대를 주고, 환상세계는 이상과 지식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며, 두 세계의 충돌은 긴장을 불러일으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사고를 촉발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사고 실험 단계이다. 단편소설『인류를 부양하다(贍養人類)』『하느님을 부양하다(贍養上帝)』와 장편소설 『삼체』2부와 3부가 이 단계에 속한다. 작가가 일반적으로 극한화된 사회적 환경을 설정하고 그 안의 인간행동과 사회행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실세계의 문제를 알레고리적으로 폭로했다. 예를 들어 『삼체』2부와 3부는 우주에서 도덕과 생존의 관계와 문명 충돌 문제를 살피고 『인류를 부양하다』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풍자하며 『하느님을 부양하다』는 노령화 사회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단계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소설이 인간과 자연을 다루는 문학'이란 그의 개념과

배치된다고 류츠신은 생각했다.[51]

제 2 절 배명훈의 이력과 작품세계

1. 이력

배명훈은 1978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성당에 다녔다. 지각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 안 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모범생으로서 학생 시절을 보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을 꼽자면 글쓰기를 특별히 좋아했다. 한글을 깨친 이후 줄곧 무언가를 쓰는 습관을 유지하고 학교와 성당 주일 학교등이 주최하는 백일장에 적극 참가하였다. 약간 고민이 많고 우울하며 말수도 적고 비관적인 소유자[52]였던 배명훈은 초등학교 때 학교의 글짓기 대표로 뽑혔고 동시 백일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글쓰기 지도를 받았다. 괴로웠던 훈련과 연습으로 인해 동시를 '절필'했지만 글쓰기의 취미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

'외교학'이란 전공에는 인문학과와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의 외교학과에 진학했다.[53] 대학교 동안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군사 동아리를 제외하고는 학교 활동에 많이 참가하지 않았다.[54] 스무 살 무렵 배명훈은 자신의 두 가지 꿈을 명확히 했는데 학자가 되는 것과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55] 이후 대학 2학년부터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학부를 마치고 공군에 행정장교로 들어간 배명훈은 3년간 각종 잡다한

---

51) 劉慈欣 著, 杜學文, 楊占平 主編, 『我是劉慈欣』, 山西: 北嶽文藝出版社, 2019, p.70.

52) 김은성, "너, 어느 별에서 왔니? - 배명훈 『신의 궤도』", 채널예스, 2011. http://ch.yes24.com/Article/View/18145

53) 조은애. "SNU소식: SF 소설작가 배명훈 동문", SNU NOW, 2012.9.10. https://www.snu.ac.kr/snunow/snu_story?bm=v&bbsidx=114622

54) 안은별, "한국 문단의 신인류: SF 작가 배명훈", 프레시안, 2012.12.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8389#0DKU

55) 배명훈, 『SF작가입니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6쪽.

행정 일을 했는데 남의 행정적 비난을 뒤집어쓰고 사유서를 쓰는 불쾌한 일이 흔했다. 처음에 마음이 침울했지만 점점 사유서를 정형시와 같은 글로 다루면서 재미를 찾았고 심지어 자신이 사유서 장르의 마스터가 되었다고 했다.[56]

그 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했고 전쟁사를 공부하고 1차 세계대전 전쟁사에 관해 학위 논문을 썼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인간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익혔다. 국제정치학을 배우며 쌓아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고찰과 세계와 권력의 본질을 추출하는 능력은 SF소설을 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제정치학은 원래 제왕의 학문이었는데 SF작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점에서 왕과 같다. 배명훈은 자신이 소설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즐기고 '왕이 된 기분으로 재미있게 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학원을 마치고 2년 동안 '정보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이란 부서에서 직장생활을 한 배명훈은 미래학을 연구하면서 세계의 최신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경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모범생'인 작가는 생활과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작가 자신의 말로 마음과 몸이 다른 곳이 있으니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불만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도에 잘 적응하고 하라는 일을 잘 따라 하는 편이다. "회사에서도 투덜투덜 하는 와중에 제일 먼저 일을 마치고, 군대를 너무 싫어했는데도 꽤 잘해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제도도 잘 따라가곤 했으니, 나쁜 제도도 잘 적응했을 것 같다"[57]고 자신의 성격을 설명했다.

배명훈은 SF작품을 읽으면서 소설작법을 익힌 것이 아니다. 주류문학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문학의 작법과 장르문학의 작법을 둘

56) 위와 같다, 124-125쪽.
57) 김은성, "너, 어느 별에서 왔니? - 배명훈 『신의 궤도』", 채널예스, 2011. http://ch.yes24.com/Article/View/18145

다 모르는 상태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테러리스트』로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문학상을 받고 데뷔했을 때 SF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토론한 그는 자신이 첫 작품이 동구권에서 유출된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테러리스트 이야기였는데 심사위원에서 SF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어서 2005년 『Smart D』로 과학기술창작문예 단편부문을 수상했다. 같은 해 11월 25일 환상문학 웹진 거울에 〈다이어트〉를 발표하고 이후에는 장르문화잡지 『판타스틱』과 환상문학웹진 거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했다. 『에스콰이어』 2007년 1월호에서 "The Newest: 2007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중문화 예술의 첨병 14인"에 선정되었다.[58] 2007년 『누군가를 만났어』(행복한책읽기, 2007)로 공동 단편집 형태로 정식 출간을 하고 2009년 단편소설집 『타워』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타워』가 출간되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제2회 블로거 문학 대상 주목할 만한 시선 3위'를 차지하며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2010년에는 『안녕, 인공존재!』로 출판사 문학동네가 주최한 제1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정식으로 문단에 소개되었다. 젊은작가상 심사평에서 소설가 박완서는 "풍부한 우주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처 표현되어지지 않은 인간 존재의 답답함을 무한한 우주공간에서 폭발시키는 데 성공한 작품도 있었다."면서 『안녕, 인공존재!』를 높이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학 『끼익끼익의 아주 중대한 임무』 『가마틀 스타일』 『푸른파 피망』, 단편소설 『안녕, 인공존재!』 『예술과 중력가속도』 『춤추는 사신』, 연작소설 『총통각하』 『타워』, 장편소설 『신의 궤도』 『은닉』 『청혼』 『맛집 폭격』 『첫숨』 『고고심령학자』 『빙글빙글 우주군』를 펴냈다. 소설 창작 외에는 척박한 한국 SF문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듀나, 김창규, 정소연 작가 등과 함께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58) 위키백과-배명훈
https://ko.wikipedia.org/wiki/%EB%B0%B0%EB%AA%85%ED%9B%88

2. 작품세계

2009년 『타워』를 첫 책으로 출간하며 한국 SF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들었던 신예 작가 배명훈은 지금 어느덧 데뷔 15년 차에 접어든 중견 작가가 되었다. 장편과 단편 양쪽 모두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국내 과학소설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가 된 배명훈은 작품에서 권력, 음모, 전쟁, 로맨스, 예언, 종교, 고고심령학 등 모티프를 많이 다룬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다음과 두 가지라고 집약된다.

첫째는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 제도에 대한 폭로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고장원의 표현을 빌자면 "음모와 계략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국제정치의 변화무쌍한 다이나믹스와 그것에 희생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59]이다. 이 주제를 다룬 대표적인 소설로 『타워』를 들 수 있다. 배명훈은 권력을 중심으로 세계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개인의 욕망과 한국 사회의 폐단을 '빈스토크'란 가상공간에 해학적으로 투영했다. 『동원박사 세 사람—개를 포함한 경우』에서는 권력이 흐르는 길을 그렸고 『엘리베이터 가동연습』에서는 이념이 다른 수직파와 수평파의 권력 싸움을 묘사했다. 또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 무분별한 재난을 당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일반인들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신의 궤도』에서도 행성관리사무소와 가톨릭 종교집단 및 유목민 세력이 벌이는 헤게모니 투쟁을 다루었다.『은닉』은 음울한 정치음모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다루고 『청혼』은 우주전쟁과 권력에 대한 견제 문제를 다루었다. 배명훈은 권력에서 세계의 본질을 추출해서 새로운 SF세계를 만들고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추악한 현상을 파헤치고 풍자하는 한편, 불합리적인 규칙과 제도의 속박을 받는 일반인의 운명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사회에 만연한 악이 어느 한 사람이나

59) 고장원,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서울: 부크크, 2017, 548쪽.

집단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체로 내 자신과 주변 지인들까지 함께 먹이사슬처럼 꿰어놓은 원죄임을 상기시켜준다.[60]

둘째는 도시인의 불안감과 고독감, 공허감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위안이다. 냉혹한 정치 사회제도와 고립된 인간관계 체계를 여실하게 드러나서 그런지 배명훈의 작품은 우주나 미래를 배경으로 해도 늘 도시적 느낌이 들었다. 『안녕, 인공존재!』에서 '조약'은 존재를 증명하는 제품으로서 주인공의 옛 여자 친구인 신우정이 자살 직전에 개발한 제품이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진짜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품은 모든 감각을 차단해야 한다. 마침내 부재하게 되고 부재와 동시에 존재가 폭발하면서 작품은 끝난다. 부재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신우정이 죽음과 더불어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과 병치된다. 『누군가를 만났어』에서 심령학자로서 주인공은 지인들로부터 이해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고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사막에서 발견한 외계의 탐사 흔적은 그 동안 한 작업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서 우주적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었다. 『고고심령학자』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갑자기 높이 30 미터 이상 되는 검은 성벽이 출현하고 원인불명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간다. 벽이 만든 폐쇄적 도시인들의 관계는 고립된 현실 사회의 체제를 상기시킨다. 작가는 존재와 삶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따뜻한 시선으로 상기시킴으로써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상처에 위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배명훈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축한 세계 속에 해학적으로 현실을 풍자하는 한편, 생활 속의 소재를 활용해서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었고 독자가 작품세계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했다. 현실의 온갖 부조리와 현대인들의 심리문제를 다루었지만 소설은 침울하기보다 명쾌한 느낌이 가득하다. 신형철의 말대로 배명훈 작가의 특징은 단정한 문장과 박학다식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명쾌한 서사로 이끌어가는 힘이다.[61] 어둡고 씁

60) 위와 같다, 560쪽.

쓸한 내용은 밝은 분위기와 대비를 이루어 현실세계를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무거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유머는 그 자체가 힘이다. 어느 인터뷰에서 배명훈이 했던 답변대로 '골머리 썩히는 사건, 가슴 아픈 비극만으로 가득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머 감각이다.'[62]

61) 신형철, 「해설-그는 상상력이다」, 배명훈 저, 『안녕, 인공존재』, 서울: 북하우스, 2010. 303쪽.
62) 진아, 자하, "배명훈 특집 기획: 내가 본 배명훈", 거울, 2009.6.27. http://mirrorzine.kr/features/38963

제 3 장 『삼체』와 『신의 궤도』에 대한 비교연구

본장에서는 대재앙 서사를 중심으로 류츠신의 『삼체』와 배명훈의 『신의 궤도』에 대해 비교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삼체』가 대재앙에 대한 상상을 살펴보자.

제 1 절 『삼체』의 대재앙 상상

1. 외계인 침공과 인간성에 대한 절망

『삼체』의 대재앙의 원인은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요인은 SF소설의 단골인 외계인 침공이고 내부 요인은 인간 엘리트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외계인 침공 소설에서 외계인은 일찍 등장하고 외계인 문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신비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삼체』 1부에서는 외계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지구인의 시각을 통해 삼체 문명의 200여회에 이르는 문명 교체의 역사와 그들의 사회상과 경제 형태 그리고 내부 파벌 투쟁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계인 침공 소설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류츠신은 정교한 상상력으로 완전한 삼체문명의 세계를 구축하여 외계인은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서가 아니라 지구문명과 함께 주연으로 작품의 전면에 등장시킨다.

소설에는 외계인 삼체 문명이 지구에 침입한 이유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삼체 문명이 처한 항성계에는 태양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인력 작용으로 태양들의 운행이 불규칙하다. 이 설정은 수학과 물리학 역사상 유명한 '삼체문제(three-body problem)'에 기초하고 있다. 삼체문제란 세 개의 질량과 현재 속력, 운동방향을 알고 있을 때 서로 간에 만유인력으로 작용하는 운동 법칙을 연구하는 문제를 말한다. 1890년에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는 삼체문제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삼체문제 중 특수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해를 구할 수 없어서 세 천체의 궤도 운동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약 현실세계에는 문명이 이러한 체계 속에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일까? 『삼체』는 그 중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측할 수 없는 항성 운동 때문에 삼체문명에는 항세기(恒世紀)와 난세기(亂世紀)가 존재한다. 삼체문명의 행성이 그중 한 개의 태양을 따라 안정적으로 운행할 때가 바로 항세기이다. 다른 한 개 또는 두 개의 태양이 일정한 거리 내로 들어오면 그 인력 때문에 행성은 기존 운행에서 벗어나 세 개 태양의 인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이때가 난세기이다. 문명은 온난한 기온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항세기에만 발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삼체인은 단체로 탈수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비교적 긴 항세기가 되면 다시 단체로 물에 담겨 부활한 후 생산과 건설을 시작한다. 항세기가 시작되는 때와 지속 기간은 예견할 수 없어서 부활하고 생활을 막 시작하려 할 때 항세기가 끝나고 문명의 종말이 다가올 경우도 많다. 삼체문명이 있는 행성은 200여 차례 문명의 파멸과 부활을 겪었지만 종말을 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삼체 항성계에 태양팽창이란 궁극의 재난이 있는 사실이다. 삼체 항성계에 아득히 먼 옛날 열두 개의 행성이 있었지만 지금 행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행성 열한 개는 태양팽창이 나타났을 때 세 개의 태양에 의해 삼켜졌기 때문이다. 삼체 문명의 학자들은 가장 가까운 팽창은 150-200만 년 뒤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종말에 임한 삼체 문명의 유일한 출구는 삼체 항성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로 나가 은하계에서 신세계를 찾는 법이었다. 이때 그들은 지구 인류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신호는 예원제(葉文潔)란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칭화대학교 물리학과 천체물리학 교수이고 소설 1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의 아버지 예저타이(葉哲泰)는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67년, 상대성이론이나 빅뱅 등 '반동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홍위병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끝까지 과학적 신념을 버리지 않은 그는 분노한 홍위병들

에게 의해 구타당해 죽었다. 과학과 이성을 버리고 광기에 빠진 인류의 실상을 목도하면서 그녀는 영혼이 불타는 고통을 느낀다.

일반 여성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점차 아물었을 것이다. 혁명 중에 그녀 같은 경험을 한 여성은 많았다. 그들에 비하면 예원제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예원제는 과학자였다. 그녀는 망각을 거부하고 이성의 눈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광기와 편집을 직시했다.[63]

고통에 사무친 예원제는 인간의 본성을 반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보기에는 문화대혁명, 생태환경 파괴,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 핵전쟁과 같은 사건들은 비이성적인 광기는 일부 사람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문제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에 내재된 결함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를 심각한 정신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직면한 위기는 우선 헌신할 목표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이상주의자였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바칠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자 세계가 점점 낯설어졌다. 그녀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정신적 방황이 그녀를 괴롭혔다. [64]

위와 같은 묘사는 한 이상주의자의 정신적 방황을 드러냈다. 예원제의 부친과 조부는 모두 고급 지식인으로 과학을 통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과학자 예원제는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과학과 이성의 힘을 믿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광기가 역사상 최고점에 달했고 더 이상 헌신할 만한 사업은 없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대한 절망과 복수심으로 인해 그녀는 삼체 문명의 신호를 받자 바로 회신을 했

63) 류츠신, 고호관 감수, 『삼체』, 서울: 단숨, 2013, 254쪽.
64) 위와 같다, 256쪽.

다.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65]라는 메시지이었다.

문혁이 끝난 후에 예원제는 자신이 인류를 배반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적도 있었다. 그녀와 아버지가 복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그녀는 모교에 복직하여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부활해서 과학과 기술은 일순간 미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된 것 같았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접근하는 학생들을 지켜보자면 그녀는 광기가 정말 끝났고 이성이 회복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문혁 기간 동안 그녀는 다싱안링(大興安嶺) 깊은 곳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주민들의 따뜻한 선의를 많이 접했다. 출산을 했을 때 난산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녀는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달려와 헌혈을 해줘서 살아난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출산 이후에도 부모 형제가 없는 예원제와 아이를 잘 돌봐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인간 본성 속의 순수한 부분을 다시 느끼게 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를 박해했던 홍위병들을 다시 접하게 되고, 참회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철저히 인간성에 절망하게 되었다. “우주의 월등한 문명이 인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마침내 예원제의 확고부동한 이상이 되었다.”[66]

이후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인 맥 에번스를 만나 금방 의기투합하는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지구 반군이라 불리는 지구 삼체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인류의 폭정을 없애고 삼체문명이 지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원제는 지구 삼체 조직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정신적인 지도자일 뿐이고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에번스는 지구 삼체 조직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신의 막강한 재력(財力)으로 통신 기지를 세우고 삼체문명과 연락을 유지했다. 그를 통해 조직은 삼체문명의 함대가 이미 출항했고 450년 뒤에 지구에 도착할 것을 알게 되었다. 지

65) 위와 같다, 260쪽.
66) 위와 같다, 284쪽.

구 삼체 조직은 사회에 불만과 절망을 가진 엘리트들을 대거 영입했고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세 개의 주요 파벌이 생겨났다.

첫째는 '강림파'였다. 주요 지도인 에번스는 강림파를 극단적인 환경 보호주의자와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테러 왕국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철저히 절망했던 강림파는 삼체인의 힘을 빌려 인류를 멸망시키길 희망했다.

둘째는 '구원파'였다. 고등한 문명에 대한 동경과 숭배로 인해 삼체 문명에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본질은 종교단체이고 삼체교 신도들로 구성되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위기에 빠진 것은 '신'이며 구원의 책임은 신도들에게 있었다. 주의 생존을 위해 인류 세계를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는 주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항성계에서 생존하도록 함으로써 태양계로 침입하는 것을 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다. 물리와 수학으로 삼체 문제를 해결하면 삼체와 지구 두 세계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생존파'였다. 450년 이후의 전쟁에서 자신의 자손이 최후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리 외계인을 위해 일하는 파벌이었다. 다른 두 주류파에 비해 생존파는 사회 계층이 비교적 낮은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예원제가 보낸 신호는 인류 문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외계 문명의 힘을 빌려 인류를 개조하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랐다. 지구 삼체 조직은 점차 인류를 증오해서 인류를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외계문명을 열광하게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동포를 팔아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낙원이 되었다. 예원제의 말과 같이 "나는 불씨만 지폈지 그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67]

삼체인은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즉시 지구 침략 방침을 확정하였다. 지구 문명의 과학 기술 발전사를 자세하게 연구한 후에 그들은 인류

67) 위와 같다, 303쪽.

의 과학 기술 발전이 가속화된 상황을 알게 되었다. 농업 문명에서 산업 문명까지 몇 천 년이 걸렸지만 원자력 시대가 시작된 지 몇 십 년 만에 정보 시대로 접어들었다. 반면 삼체 문명의 과학과 기술 진보는 같은 속도로 발전하거나 감속된 상태이었다. 따라서 450년 후에 삼체 함대가 지구에 도착할 때는 인류 문명의 기술 수준이 삼체 문명을 초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삼체 문명의 위치는 이미 노출되어서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지구 문명은 삼체 항성계에 반격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삼체 문명은 지구 문명의 과학 발전을 억누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삼체인은 두 가지 계획을 만들었다. 첫 번째 계획의 코드는 '염색'이었다. 지구 반군의 힘을 빌려 과학과 기술의 부작용을 널리 알리고 대중이 과학에 공포와 염증을 느끼도록 했다. 두 번째 계획의 코드는 '기적'이다. 지구인에게 과학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지구문명의 과학 연구의 진전을 방해하고 삼체교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문명의 강력한 힘을 과시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자 프로젝트'로 실현된 것이었다. 끈 이론의 제1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에드워드 위튼(Edward Witten)은 우주에 11차원이 존재하는 M이론을 제기했고 끈 이론의 2차 혁명이 시작되게 되었다. '지자(智子) 프로젝트'는 바로 하이퍼스페이스(hyperspace)론에 기초한 상상력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삼체』에 따르면 삼체 문명의 물리학자들이 미시 세계의 11차원 구조 중 9차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했다. 그들은 양성자를 9차원부터 2차원으로 펼쳐서 2차원 평면에서 대규모 집적 회로를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펼쳐진 물체를 원래의 차원으로 회복시키는 기술도 장악했다. 다시 9차원으로 회복된 양성자는 이미 슈퍼 스마트 컴퓨터나 인공지능체로 볼 수 있었다. 양성자를 개조하는 이유는 양성자 크기의 입자를 광속으로 가속하는 능력을 갖췄지만 함대는 광속의 10분의 1의 속도만으로 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자를 지구로 먼저 보내 지구의 과학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인공지능

체 지자는 총 4개를 만들어서 2개는 지구로 보냈고 2개는 삼체 행성에 남았다. 지구의 지자와 삼체의 지자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효과[68]를 통해 실시간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삼체문명은 이로써 지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감시하며 지구 반군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설 1부의 말미에는 삼체문명과 지구문명의 엄청난 과학기술의 격차에 직면해 과학자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이때 경찰관 스창(史强)은 인간과 벌레의 투쟁 역사를 예로 들어 그들을 격려했다. 벌레와 인간 사이의 기술 격차는 인간과 삼체 문명의 차이보다 활씬 크다. 인간은 살충제와 같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것들을 박멸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을 없앨 수 없다. 인류를 벌레로 보는 삼체인은 벌레는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인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스창 덕분에 과학자들은 다시 투지를 회복해 450년 후에 다가올 외계인 침략군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대재앙의 폭발 단계를 다루는 『삼체』 1부의 주요사건을 다음 표2와 같이 정리했다.

[표2] 『삼체』1부 주요 사건 연표

지구 기준	주요 사건
1967년	문혁 중 예저타이의 죽음
1969년	예원제 홍안기지로 진입
1971년	예원제 우주로 신호를 보냄

68) 양자역학에서 양자의 얽힘은 두 부분계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존재할 수 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하기 전까지는 두 입자의 상태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측정을 한다면, 그 순간 한 계의 상태가 결정되고 이는 즉시 그 계와 얽혀 있는 다른 계의 상태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는 마치 정보가 순식간에 한 계에서 다른 계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참고: 위키백과-'양자 얽힘') 간단히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양자계의 입자는 하나는 조작(예를 들어 양자 측정)에 의해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하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상태가 변하게 된다. 마치 두 입자가 초광속의 통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양자 얽힘 효과를 기반으로 한 양자 소통(quantum communication)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75년	삼체문명이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됨
1979년	예원제가 삼체문명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회신함
1984년	삼체문명 예원제로부터 신호를 받음 지구 침략 방침 확인됨 '지자 프로젝트' 출범
1988년	지구 반군 '지구 삼체 조직' 성립
2001년	'지자 프로젝트' 완성, 지구로 지자 1호와 2호를 보냄
2005년	지자들이 지구에 도달
2007년(소설 1부의 기점)	초자연적인 물리 현상으로 과학자들의 자살 예원제의 체포됨, 에번스의 죽음 삼체문명의 침략계획을 알게 됨

『삼체』에서 인류 문명의 종말의 직접적인 원인은 삼체 문명의 침략이었다. 삼체문명이 지구를 침략한 원인은 자신의 문명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직면한 종말은 우주 규칙에 근거한 숙명적인 비극이다. 항성운동 궤도를 예측할 수 없는 다사다난한 삼체 항성계를 만들어낸 우주가 또 그 속에서 문명을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삼체인은 운명에 굴하지 않고 200여 차례나 매번 새롭게 부활한 문명들이 지속적으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학으로 삼체문제를 해결하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극적인 운명에서 살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삼체문제가 해(解)가 없다는 절망적인 저주를 발견하였다. 우주가 모든 법칙을 만든 신이라면 과연 범인(凡人)은 신에게 반항할 수 있을까. 삼체인의 선택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쓴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령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제도를 채택하였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법을 폐지하고 유죄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무죄는 일률적으로 석방한다. 또한 정신을 취약하게 하는 감정을 모두 버리고 냉정함과 무감각이란 감정만 유지한다. 물론 인간성에 반하는 삶이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삼체문명의 종말의 위기는 인성과 생존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고 실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잔혹한 우주의 법칙으로 촉발된 삼체인의 종말의 비극은 우주의 경외할 만한 강력한 힘과 운명의

무상함을 보여주면서도 생존을 위해 생명체가 뿜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또한 외계인의 침공보다 인간 내부의 갈등이 더욱 본질적 문제라는 시각도 담고 있다. 예원제가 보낸 신호가 아니었다면 지구 문명은 우주에서 더 높은 문명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에번스를 비롯한 지구 반군이 지구의 정보를 삼체문명에 대량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삼체문명은 신속하게 침략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예원제와 에번스 같은 지구 반군 구성원은 모두 엘리트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예원제는 14세에 칭화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한 천재 과학자이고 에번스는 45억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은 석유 재벌의 아들이며 조직의 다른 주요 멤버들도 과학자, 정치인, 문학가 등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었다.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엘리트층은 소수임에도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고 했다. 모스카(Gaetano Mosca)와 파레토(Vilfredo Pareto)는 그것의 원인을 엘리트층의 구성원들의 우월성에서 찾았다. 엘리트층 구성원들이 다수보다 물질적, 지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우월성으로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모스카가 제기했다.[69] 파레토는 엘리트층 구성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심리적 성향을 갖춘다고 생각했다.[70] 『삼체』에서 예원제와 에번스에서 확실히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에번스는 열두 살이 되던 해 아버지 석유 회사의 유조선 사고를 목격했다. 유조선이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암초에 부딪쳤고 원유 2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었다. 검은 기름 유출로 바닷새가 떼죽음을 당했다. 기름 덩어리 속의 바닷새의 눈은 여러 해가 지나도 에번스의 악몽 속에 계속 나타났다. 열세 살 생일날 그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동식물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의 이상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점점 좌절이 계속되면서 집착에 빠졌

69) Gaetano Mosca, *The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1939.
70) Vilfredo Pareto, *Treatise on General Sociology*, Dover, 1915.

어. 사실 그가 반복해서 언급한 '구세주'라는 이상 자체가 오만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세'라는 목적보다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어기는 '죄인'을 심판하는 권력을 가진 '주'가 되고 싶다는 것과 더욱 가깝다. 그는 '종의 공산주의'란 학설을 정립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했다. 그는 농작물도 인간과 평등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하여 합성 식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람이 농작물을 먹는 것이 정상적인 먹이사슬 관계라는 관념을 부정하고 '종의 공산주의'로 명명한 자신이 만든 세계법칙을 어긴 인류 전체에게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여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였다.

예원제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는 삼체문명의 힘을 빌려 인류문명을 개조해 인감성에 내재한 죄악적 요소를 씻고자 하는 철저한 이상주의자였다. 그러므로 그녀와 에번스는 지구 삼체 조직을 창설했을 때 자신의 이상을 '삼체문명을 지구로 끌어들여 인류문명을 개조하고 인류의 광기와 사악함을 통제함으로써 지구를 다시 한 번 조화롭고 번영되며 죄악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지적 문제를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모든 인류의 운명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이 가진 문제적 성격이다. 둘째 지구에서의 삶의 경험에 기초해 우주문명 간의 문제를 처리하려는 그녀의 판단이 범할 수 있는 높은 오류 가능성의 문제이다. 삼체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왜 그들이 인류 사회를 잘 개조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들이 행성 사이를 뛰어넘어 우리 세계에 올 수 있다면 그들의 과학은 이미 상당한 단계로 발전했을 것이고 과학이 그토록 발전한 사회라면 더 높은 문명과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71] 과학기술이 발달한 문명은 도덕 수준 역시도 반드시 높을 것인가? 생존의 위기가 없는 문명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보급률이 높아지면 도덕

71) 류츠신, 고호관 감수, 『삼체』, 서울: 단숨, 2013, 324쪽.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생물의학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생리적으로 직접 도덕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신호를 받았던 삼체문명은 종말의 위기에 처한 문명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도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문명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분명히 예원제에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천재였지만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전지의 존재는 아니었다. 이상주의와 지구에 대한 책임감 및 자신의 자긍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이라 할지라도 오만과 좁은 시야 때문에 인류를 묻을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삼체』는 우주의 개체마다 고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리적 의미의 고향은 언제라도 박탈당할 수 있다. 삼체인의 고향은 잔혹한 우주의 법칙으로 종말을 맞았고 지구인의 고향은 미지의 외계인 침입으로 인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고향도 찾을 수 없다. 지구인과 삼체인은 모두 정신적 위기를 맞고 있어 상대방 문명을 숭배하는 집단이 출현하였다. 지구 삼체 조직의 구원파는 본질적으로 삼체문명을 숭배하는 삼체교 신자였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문명에 대한 숭배와 동경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 이후 정치·경제·문화·군사 각 방면에서 동서양 문명의 커다란 격차에 직면해서 동양 문명은 자연스럽게 서양을 숭배하고 서양을 따라잡을 생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동양의 근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방적 근대화'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문명 간의 격차 이외에도 지구인들이 겪게 된 정신적 위기의 존재는 삼체문명에 대한 숭배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예원제는 인간성에 내재된 광기를 목도한 후, 그동안 자신이 견지해 왔던 이상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방황에 빠졌다. 에번스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주력해 왔지만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의 이기성을 발견했고 자신의 환경보호 사업에 많은 좌절을 겪어 왔다. 지구 삼체 조직의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한 한 기자는 업무 중 많은 비참한 것을 보고 인간성에 대한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구 삼체 조직 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어 온 고난이나 좌절로 인해 이상의 동요, 신념의 붕괴, 실망과 우

울 등을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삼체문명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외계인의 출현을 자신을 구할 유일한 해약으로 여겼다.

삼체 행성에서도 외계 문명을 숭배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났다. 삼체문명은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였다. 하지만 인간성은 억제될 수 있지만 제거될 수 없었다. 지구 문명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삼체문명에는 지구문명을 동경하는 사람들과 침략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생존의 위기가 전혀 없고 아름다운 인문 사상을 가진 지구 문명은 삼체 국민에게는 마치 복음과도 같았다. 지구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삼체 문명의 한 반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존은 다른 모든 것의 전제니까요. 하지만 원수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문명의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전체 문명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존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략) 제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정신생활의 획일화와 메마름입니다. 정신을 허약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치부됩니다. 우리는 문학도 예술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원수님,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72]

위와 같은 묘사는 삼체인들이 정신세계의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많은 삼체인들이 정신적 삶을 희생한 대가로 생존을 확보했지만 삶의 의의를 찾지 못해 정신적 위기를 겪는 것이다. 하여 이들에게 지구는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꽃과 같고 마냥 지켜주고 싶은 존재였다.

『삼체』에서 대재앙은 외계인의 침입으로 시작됐지만 근본적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지구문명과 삼체문명 사이에는 단순히 정의로운 주인공과 사악한 악역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리적인 고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고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우주 시민'이라

72) 위와 같다, 333쪽.

는 존재적 공통점이 있다.

2. 생존 제일의 원칙으로 인한 도덕적 곤경

『삼체』가 인간의 종말을 다룬 다른 소설과 다른 점은 대재앙의 진행 단계가 유난히 오래간다는 점이다.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 인류가 알게 된 서기 2007년부터 태양계가 2차원의 평면으로 됨에 따라 인류 문명이 종말을 맞은 서기 2043년까지 무려 400년이 걸렸다. 몇 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월을 생략하는 서사 방식이 아니라 400여 년 동안 인류 문명의 발전과 대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각 인류의 세력 사이의 협력과 권력투쟁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류츠신은 굉장히 거대하고 완전한 세계를 상상하며 대재앙의 진행 과정을 그리면서 인간사회의 정치, 윤리, 인간성 등 문제에 대한 깊은 사고를 드러냈다.

우선 『삼체』 2부와 3부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인들은 400여 년 후에 있을 삼체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삼체인이 투명한 사유로 교류해서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모략에 능하지 않는데 지구인은 그러한 삼체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면벽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면벽 프로젝트는 전략적 계획을 주도할 수 있는 네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들을 면벽자(面壁者)라고 불렀다. 면벽자들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기만과 오도를 통해 적으로 하여금 인간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네 명 면벽자 중 세 사람의 전략적 목적은 간첩인 파벽자(破壁者)에게 폭로되어 실패하였다.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은 뤄지(羅輯)란 사회학 박사였다. 그는 '암흑의 숲'이란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여 삼체인을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따라서 지구는 삼체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위협의 세기'에 들어갔다.

암흑의 숲 위협은 두 세계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과 같

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협 통제권을 가진 뤄지를 검잡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60년 동안 위협 효과가 지속되었지만 뤄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천천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뤄지를 구세주로 추앙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와 세계를 파멸시키는 폭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뤄지가 이미 100세를 넘긴 노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정신 상태와 심리 상태가 불안할 것을 우려해 제2의 검잡이인 청신(程心)을 선출했다. 청신은 뛰어난 엔지니어이지만 강한 정신력이 없어 삼체인들로부터 위협력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청신이 위협 통제권을 넘겨받자마자 삼체인은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지구의 중력파 우주 전송 시스템을 파괴해서 암흑의 숲 위협이 무효화가 되었다. 지구는 '포스트위협의 세기'에 들어갔다.

삼체인들은 지구를 점령하고 모든 인류를 호주로 몰아내 서로를 살육하도록 하였다. 인류의 절망 속에 태양계를 탈출한 인류의 전함이 우주 전송 시스템을 재가동해 삼체 세계의 좌표를 우주에 공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삼체인은 도망쳤고 지구인은 자유를 위해 환호했으며 지구는 '전송의 세기'에 들어갔다. 3년 10개월 후에 위치가 공개된 삼체 세계가 미지의 고등 문명의 공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은 확인되었다. 지구는 삼체 세계와 마찬가지로 태양계에 속해서 고등문명에 발견되어 파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인류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멸망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태양계를 탈출할 수 있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것을 중단했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벙커 프로젝트는 4대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벙커로 삼아 암흑의 숲 공격으로 인한 태양 폭발을 피하겠다는 프로젝트였다. 구체적으로 4대 행성에서 태양을 등진 방향에 인류 전체가 이주할 수 있는 우주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등문명이 지구를 공격한 것은 인간이 예상한 것처럼 태양을 폭발시켜 태양계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2차원 벡터 포일'이란 무기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

라서 벙커 프로젝트는 인류의 멸망을 막지 못했고 태양계 전체가 2차원 평면으로 변했으며 지구 문명의 종말을 고했다.

『삼체』2부와 3부의 주요사건의 연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3] 『삼체』2-3부 주요 사건 연표[73]

지구 기준		주요 사건
위기의 세기 (서기 2007-2213년)	2007년(소설 2부의 기점)	특별 UN 총회에서 행성방위이사회(PDC)의 성립.
	2008년	면벽 프로젝트가 만들어짐.
	2009년	면벽 프로젝트의 시작. 파벽 프로젝트의 시작. 도망주의가 불법으로 규정됨.
	2014년	면벽자 프레드릭 타일러의 죽음. 뤄지가 암흑의 숲 원리를 터득함. 뤄지가 항성 187J3X1의 위치를 우주로 전송함.
	2029년	면벽자 마누엘 레이디아즈의 죽음.
	2034년	대협곡 단계의 시작.
	2086년	대협곡 단계의 끝. 전 세계 인구가 83억에서 35억으로 변화됨.
	2159년	항성 187J3X1이 미지의 공격으로 파괴됨.
	2210년	항성 187J3X1의 멸망이 관측됨.
	2211년	면벽자 빌 하인스의 죽음 '자연선택'호 전함의 이탈 **최후의 전쟁의 벌어짐.** 인류의 전함 3천여 척이 파괴됨. 7척의 전함만이 살아남음. 암흑의 전쟁의 벌어짐. 7척의 전함 중 2척의 전함만이 살아남음.
위협의 세기 (서기 2214-2275년)	2214년(소설 3부의 기점)	**암흑의 숲 위협의 시작.** 지구와 삼체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함.
	2225년	'청동시대'호 점함이 지구로 돌아감. 그 점함

73) 智知, 《三體》系列：地球往事編年表, 知乎, 2019.6.1. https://zhuanlan.zhihu.com/p/67716375 에 참고.

		의 모든 사람이 반인류적 범죄로 체포됨.
	2275년	청신이 제2의 검잡이가 됨. 지구의 중력파 우주 전송 시스템이 삼체인에 의해 파괴됨. **삼체인은 지구를 점령함.**
포스트위협의 세기 (서기 2275-2276년)	2275년	'그래비티호'와 '블루스페이스'호가 중력파 우주 발사 시스템을 작동해서 태양계의 위치를 우주로 전송함
	2276년	삼체인의 도망
전송의 세기 (서기 2276-2335년)	2278년	삼체 세계의 파괴됨. **삼체문명의 종말.**
	2283년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가 불법으로 규정됨. 벙커 프로젝트의 시작.
벙커의 세기 (서기 2336-2403년)	2403년	태양계가 2차원 평면으로 됨. **지구 문명의 종말.**

류츠신이 상상한 작품 세계에서는 문명 자체의 생존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암흑의 숲'이란 원리는 소설 2부의 핵심 관념이자 약소한 인류 문명의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페르미 역설(Fermi paradox)[74]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한 가능성으로 작가에 의해 제기되었고 『삼체』의 세계관에서 우주의 보편적인 공리로 존재했다. 이 이론 때문에 인류문명은 자신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훨씬 높은 삼체문명을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고 60여 년의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했다. 또한 마지막에는 삼체문명과 태양계 전체가 이 이론으로 인해 더 높은 문명에 의해 멸망되었다.

암흑의 숲 원리를 요약하면 두 가지 공리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생존이 모든 우주 문명의 제일원리'와 '문명이 끊임없이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란 두 가지 공리와 '의심의 사슬'과 '기술 폭발'이

74) 페르미는 당시에 여겨졌던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오래 되었고 무수히 많은 항성이 있으며 그 항성들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인류가 아닌 지적생명체 역시 우주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야하며, 그 중에서 몇몇은 지구에 도달했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1975년에는 마이클 하트(Michael H. Hart)가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페르미-하트의 역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란 두 가지 개념이다. ‘의심의 사슬’은 두 문명이 만나면 상대방의 선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의심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술 폭발’은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문명도 언제든 기술의 폭발적 성장을 통해 고등문명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문명도 고등문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주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 간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 우주에 자신의 좌표를 노출하면 ‘의심의 사슬’ 개념으로 다른 문명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명마다 자신을 잘 숨겨야 한다. 모든 문명은 적막한 암흑의 숲 속을 걷는 듯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도록 조심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문명은 멸망하기 쉽다.

‘암흑의 숲’ 원리에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식 자연 상태를 연상하고 양자의 유사성을 논술한 연구가 있다.[75] 그러나 홉스는 사회계약과 정부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도입하기 위해 자연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상태를 제시한 반면 류츠신은 우주 간 문명이 공동 계약을 만들어 우주정부 같은 조직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점은 홉스와 류츠신의 세계관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나는 도덕감이 제로인 우주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100퍼센트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덕이 있는 인류 문명은 이런 우주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지구의 과거’연작을 집필하게 된 이유이다.”[76]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보편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주 문명 간에는 보편적인 도덕이 있을까? 류츠신이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문명의 차이가 훨씬 클 수도 있고, 도덕감이 제로인 우주 문명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는 보편적인 도덕이 없고 오직 보편적인 생존 본능만 있을 뿐이다.

『삼체』에서 그러한 생존본능과 도덕, 인간성, 현재의 사회체제와 가

---

75) 霍偉岸, 「《三體》中的政治哲學」, 『讀書』3, 2016.
76) 류츠신, 「작가의 말」, 고호관 감수, 『삼체』, 서울: 단숨, 2013, 373쪽.

치관이 충돌할 때 인간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일종의 사고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예컨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만 탈출시키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탈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엘리트층이 먼저 도망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이 먼저 도망가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능한 한 공평하게 하기 위해 연합정부는 추첨을 통해 도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생명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민중들의 반대가 심했다.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것은 반인륜 범죄로 판명되었고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또한 위협 통제권을 가진 제1대 검잡이 뤄지는 오랫동안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대를 살았던 신시대의 인류에게 '독재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민주 선거를 통해 인류애를 가진 여성 청신을 제2대 검잡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청신이 두 문명을 동시에 소멸시킬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삼체문명은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청신은 역시 그들의 판단과 같이 위협 통제권의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민주 정신을 가진 선거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위와 같은 생존과 평등, 민주 체제 등과 모순된 줄거리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휴머니즘 이념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무력함"에 대한 아이러니라는 비평이 있다.[77]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삼체』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가치관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인류 보편적 도덕체계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우주사회로 진출할 때, 혹은 대재앙을 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대응책을 미리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류츠신은 인터뷰에서 인간이 대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재앙을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지금 인간의 정신상태, 정치시스템, 사상방식으로는 (대재앙에) 대응할 수 없다. 대재앙이 닥치면 모

77) 박민호,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학연구』72, 2018, 133쪽.

두가 죽을 것이고, 또 존엄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인류의 가치 체계와 도덕 체계의 결함중 하나이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데에 SF문학이 공헌을 해야 한다."[78] 그는 대재앙을 현실적인 문제로 다루고 독자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도덕과 정치적 곤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79]

사실 생존과 도덕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딜레마는 SF 소설의 장르에서 결코 드물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톰 고드윈(Tom Godwin)이 1954년에 발표한 『차가운 방정식(The Cold Equations)』이다. 이 작품은 미래에 전염병이 발생한 행성으로 백신을 운반하는 긴급 연락선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긴급 연락선은 아주 작아서 꼭 필요한 만큼만의 연료를 실었다. 컴퓨터는 조종사, 화물, 긴급 연락선의 무게를 목적지까지의 비행경로와 함께 계산하여 연료의 최소 필요량을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산출해 내었다. 물론 그 방정식에는 '밀항자의 체중'같은 변수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긴급 연락선에 탑승한 밀항자는 발견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법률도 반포되었다. 소설에서는 그것에 대해 '그건 어떠한 호소나 항변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라고 묘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한 밀항자는 오빠를 보기 위해 몰래 나온 순진한 소녀이었다. 조종사는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연료가 부족해서 그녀가 남으면 다른 조종사와 백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는 법률에 따라 소녀를 우주선 밖으로 추방했다. 이 소설은 인간성과 냉철하고도 엄밀한 법칙 사이의 갈등을 전면에 부각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개작함으로써 소녀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

78) 騰訊文化, "劉慈欣：末日來臨人類都會死, 且死得毫無尊嚴", 騰訊網, 2014.11.3. https://cul.qq.com/a/20141103/009878.htm

79) SF 평론가 Kreuziger는 대재앙 이야기를 다룬 SF 소설이 'offers an expanded horizon for political activity in that it invites us to consider how we respond to moral and political choices that arise from the cataclysmic events taking place in the novel.'라고 지적했다. 참고: Frederick A. Kreuziger, *Apocalypse and Science Fiction*, Milwaukee, WI: Scholar Press, 1982, p43.

SF소설가 및 학자, 편집자 제임스 건(James Gunn)은 소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소설이 보여주는 인간성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SF소설의 독법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80] 또한 그는 잔혹한 우주의 법칙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식함이며, 그 유일한 해법은 법칙을 깨우쳐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츠신은 여러 차례 『차가운 방정식』에 대해 찬사를 표현 바 있으며[81] 일부 학자들은 『삼체』 2부가 이 소설을 개작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82]. 하지만 두 작품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王瑤(20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가운 방정식』의 냉혹해 보이는 우주의 법칙 뒤에는 현대 사회의 병폐가 숨어 있다.[83] 우주선은 반드시 최소량의 연료를 실어야 하고 심지어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규정은 비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경제적인 실용주의(economic pragmatism)와 관계가 있다. 한편 우주선은 출발할 때 밀항자를 엄격히 심사하지 않아 평범한 소녀도 쉽게 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밀항자들을 처벌하는 조치는 매우 엄격하다. 발견된다면 즉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 제도는 관료주의(bureaucracy)에 대한 은유로 간주할 수 있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igmund Bauman)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Modernity and the Holocaus)』에서 도덕이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며 인류 역사는 '합리성'으로 '도덕성'을 손쉽게 부정하는 문명화 과정의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근대사회가 여러 방식으로 도덕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84]

---

80) 'If the reader doesn't understand it or appreciate what it is trying to say about humanity and its relationship to its environment, then that reader isn't likely to appreciate science fiction.' Tom Godwin, "The Cold Equations", *The Ascent of Wonder: The Evolution of Hard SF*, ED: David G. Hartwell and Kathryn Crame, New York: Tor, 1994, p.442.

81) 劉慈欣, 「超越自戀－－科幻給文學的機會」, 『山西文學』(7), 2009. p.80.를 참고할 수 있다.

82) 王瑤. 「"冷酷的方程式"與當代中國科幻中的 "鐵籠困境"」, 『文學評論』6, 2017. 를 참고할 수 있다.

83) 위와 같다.

『삼체』는 위와 같은 상황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갈등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삼체』에서 암흑의 숲 원리는 차가운 방정식처럼 "어떠한 호소나 항변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 되었다. 그것은 많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비도덕적인 선택이 최적의 방안이 되었다. 예를 들어 면벽자 네 명은 모두 인류가 반드시 패할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인류의 존속을 위하여 급진적인 방안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많은 지구인의 생명이나 정신적 자유를 희생한 것이었다. 2007년 류츠신은 중국 과학사학자 장샤오위안(江曉原)과 인간의 존속과 인간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를 토론하였다.[85]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다. 자신이 문명의 최후의 생존자로서 오직 다른 사람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류츠신은 인간의 존속을 선택했다. 그가 보기에는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 괴테가 출현한 찬란한 문명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렸으며, 먹지 않는다면 이 문명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지금 인간성을 선택하지 않지만 나중에 인간성이 다시 싹틀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샤오위안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오랜 진화를 거쳐 발전한 인간의 인간성이 자신의 행동으로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류츠신과 장샤오위안의 논점을 보면 선택이 다르지만 모두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류츠신은 2014년의 글에서 자신의 관점을 보완하였다.

일부 또는 소수의 사람을 살아남게 할 수 있다. 혹은 인간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며 모든 사람이 담담하게 죽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지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법률과 윤리적 측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이것은 문명이 자신에게 져야 할 책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이 다가올 때 세계는 공포와 망연자실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대혼

84)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서울: 새물결, 2013..
85) 王艷, 「爲什麽人類還値得拯救？－－劉慈欣 VS 江曉原」,『新發現』 11, 2007.

란에서 인류는 존엄성도 잃고 미래도 잃을 것이다.[86]

위와 같은 논술에서 알 수 있듯이 류츠신은 인간의 존속과 인간성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게 법과 윤리적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삼체』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구현되었다. 뤄지와 장베이하이(章北海)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만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다. 연방정부는 인간성을 선택하여 광속 우수선 프로젝트를 포기하였다. 그것은 인류의 우주에 대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고대부터 위기의 세기말까지는 인류가 하늘에 동경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향해 처음 몇 걸음을 내디딘 대가로 얻은 건 처참한 실패와 고통이었다. 치열한 최후의 전쟁을 통해 우주의 잔혹성을 깨달았다. 인류 내부에서 벌어진 암흑의 전쟁이 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우주에 진출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권위주의 형태의 행정 구조를 수립하고, 청도시대호의 함장은 “인간이 진정으로 우주에서 외톨이가 된다면 전체주의로 변하는 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또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우주로 진출한 사람들은 도덕을 버리고 서로 죽였다. 따라서 지구에 있는 인류는 태양계를 떠나 우주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인간성과 도덕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선택은 뤄지와 장베이하이의 선택과 같이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청신의 행동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두 번 한 적이 있다. 첫 번째는 검잡이의 권력을 넘겨받았을 때 위협 통제권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모든 지구인의 생명으로 삼체인을 위협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애초에 검잡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겁잡이의 권력을 넘겨받고도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삼체인이 지구를 점령하고

86) 劉慈欣, 「珍貴的末日體驗」, 王晉康, 『逃出母宇宙』,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4.

인류는 호주에서 노예처럼 존엄성을 잃은 채 살게 되었다. 두 번째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연합정부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청신과 웨이드(維德)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가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광속 우주선의 연구와 개발을 남몰래 진행하게 되었다. 6년 후에 연방정부는 그들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견해 반물질 무기를 장착한 웨이드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다. 청신은 막강한 살상력을 가진 반물질 무기가 인간성에 반한다며 군인에게 저항을 포기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35년 후에 뤄지가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의 연구를 재개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단 한 대의 광속 우주선만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청신과 아이AA(艾AA)만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탈출했고, 다른 지구인들은 모두 죽었다. 청신은 눈앞에 벌어지는 군인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지만, 미래의 인류의 운명을 고려하지 않았다.

류츠신은 인터뷰에서 청신이란 인물이 보편적인 가치관과 도덕관을 지닌 일반인을 대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반인은 청신처럼 내면의 도덕성에 따라 행동하는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주로 고려한다. 초인적인 인물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도덕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87]

청신의 경우 막스 베버(Max Weber)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이론을 상기시킬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글에서 윤리에 따라 지향된 모든 행위는 '신념윤리(gesinnungsethik)' 혹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따라 지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88] 신념윤리의 경우 행위자는 행동의 동기가 선한 것인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

87) 許曉, 「劉慈欣: 我知道, 意外隨時可能出現」, 『城市畫報』1, 2011.
88)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막스 베버,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文藝出版社, 1994, p.137-154를 참고했다.

인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그 결과는 하느님에게 맡긴다'. 반면 책임윤리의 경우 행위자는 자기 행동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베버는 정치에서의 결정적인 수단은 강제력이며 많은 경우에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적어도 위험한 수단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나쁜 부수적인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베버가 보기에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윤리적 역설(逆說)을 의식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신은 신념윤리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책임윤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신념은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2대 겁잡이 선거 기간 동안 인간애가 넘치는 청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청신은 자신이 검잡이를 감당할 만한 정신력과 결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웨이드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을 때 청신은 마찬가지로 병사에 대한 사랑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하였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130여 년 전 UN 본부 앞에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정이 또다시 그녀를 덮쳤다. 지금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늑대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89]

위의 인용문과 같이 두 번의 결정적인 선택에서 청신은 모두 모성애 같은 사랑에 이끌려 그녀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나섰다. 그녀는 행동의 동기가 선하지만, 자신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베버는 "자기가 지니는 책임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낭만적인 감동에 취한 허풍쟁이들"이라고 평가했다. 그가

89) 류츠신, 허유영 역, 『삼체 3부: 사신의 영생』, 서울: 단숨, 2019, 494쪽.

보기에는 성숙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에 반해서, 결과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실제로 또 충심(衷心)으로 느끼고 책임윤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어느 한 성숙한 사람-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간에 - 이 어느 문제에서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이며 감동적인 것입니다. (중략) 그러한 점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절대적인 대립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이 합쳐질 때야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을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상호보완물입니다.[90]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인간'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결합시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삼체』에서 뤄지와 장베이하이와 같은 영웅적 인물이 바로 그렇다. 그들은 인류 존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심의 고통과 타인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다.

『삼체』 2부와 3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가는 '암흑의 숲' 원리를 제출함으로써 생존 제일의 우주 법칙을 만들었다. 생존 제일이란 우주 공리와 인류사회의 체제나 보편적인 가치관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물론 '암흑의 숲'이란 이론은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완벽한 학설이 아니며 또한 많은 반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이론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것이 위험이 곳곳에 있다는 긴장과 불안감을 전달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좌표를 노출한다면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외계 문명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호전적인 문명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회의와 경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이론은 우주에 수없는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위협이 수없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가 제기한 '위험사회(Risk

90) 막스 베버,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文藝出版社, 1994, p.151-152.

Society)'개념을 연상시킬 수 있다. 베크에 따르면 21세기의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재난, 즉 인위적인 위험이다. '암흑의 숲' 이론이 제기한 '위험이 곳곳이 있다'는 긴장상태는 치열한 사회경쟁 속의 인간관계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인류 문명이 현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우리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암흑의 숲'이란 원리를 적용한 『삼체』는 위험(Risk)에 대한 불안감이 어떤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의 관점과 일치한다. 마수미에 따르면 위협을 느낀다면 위협은 이미 존재한다고 했다. 두려움은 아직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어떤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상되는 현실, 비존재적인 감각사실(The Felt Reality)이자 사물이 보일 듯 말 듯 움직이는 정동사실(Affective Fact)이다.'[91] 그러한 정동(Affect)에 의해 사실(Fact)을 가정하는 논리는 선제공격에 대해 합리성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반테러행동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 아닌 정동사실(Affective Fact)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협의 감지는 임박한 폭력으로부터 자기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이고, 그 임박한 폭력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될 수 없거나 증명될 필요가 없다."[92] 마수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비판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

91) Massumi B,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The political ontology of threat". In: *The Affect Theory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20.

92) 'Threat, in this respect, is an alert that prompts the use of violence to protect from impending violence that never definitely can be or need be proven as factual possibility.' Patrice D Douglass, "On (Being) Fear: Utah v. Strieff and the Ontology of Affect", *Journal of Visual Culture* 17(3), 2018, p.338.

그것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삼체』의 예로 보면 자신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상대가 정동사실을 입각해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3. 인류 공동체와 삶의 형식

마지막으로 태양계 전체가 미지의 고등문명의 공격을 받아 이차원 평면으로 되었고 지구 문명도 종말을 고했다. 청신(程心)과 뤄지(羅輯) 등과 같은 이른바 '구세주'들은 결국에는 인류 문명을 구하지 못했다. 태양계가 점점 2차원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커플들이 꼭 끌어안은 채, 어머니가 아기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채, 뤄지가 진귀한 예술품들을 지킨 채 2차원 평면으로 떨어졌다. 인류문명은 커다란 2차원적인 그림이 되는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다. 사랑과 예술은 그 그림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먼저 평면으로 떨어졌던 태양계 연방 군인은 '태양계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죽음으로 그들의 어머니 별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태양계 차원에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다.

소설 속에 위와 같은 인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경향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대표작인 『상상의 공동체』에서 시간관념의 변화가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의 출현에 미친 영향을 논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시간은 벤야민이 제기한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homogeneous empty time)'이라며 사회적 유기체가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을 통해 달력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따라 앞으로(혹은 뒤로) 꾸준히 움직이는 견실한 공동체로 민족을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비유가 된다.[93] 또한 그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꾸준하고 익명의, 동시에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더

93)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2002. 50쪽.

예로 들었다. 그러한 정해진 시간의 종점을 향해 동시에 꾸준히 움직이는 공동체의 개념이 『삼체』에서 의식적으로 나타나 있다.[94] 예를 들어 『삼체』2부에서는 주로 다섯 가지 단체의 이야기를 묘사하였다. 유엔과 그가 꼽은 세계를 구하는 글로벌 엘리트인 면벽자들, 면벽자들의 행동을 파괴하는 파벽자들, 중국 우주함대의 장관과 군인들, 삼체문명의 흔적을 관측하는 대형 망원경 제어센터의 미국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서로 연관되지 않지만 소설에서 엇갈리게 서술되었고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력은 처음에는 느슨했지만 외부 위기가 심해지면서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다. 또한 소설에서 인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낡은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동면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때때로 200여 년 동안 잠을 자고 깨어난 사람이 있었다. 인류 사회가 이미 새로운 세기에 들어섰고 새로운 세력 단체와 보편적인 가치관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소설에서 많이 묘사된다. 작품에서 구체적인 공동체가 계속 변화하지만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다국적 합동작전회의부터 글로벌 위기대응을 위한 행성방어이사회, 통일된 인류연합정부로서의 태양계 연방까지 인류 사회는 점차 통일로 나아간다. 태양계가 파괴된 후 태양계를 성공적으로 탈출한 소수의 지구인과 삼체인은 우연히 만나 서로 동병상련을 나누는 가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태양계 유민이라고 불렀다. 즉 과거의 적대적이던 양쪽도 엄청난 재앙 후에 원한을 풀고, 심리적으로 운명공동체란 개념을 만들게 된다.

또한 『삼체』의 종말은 철저한 무신론적이었다. 선과 악에 대한 심

94) 楊宸, 「“歷史”與“末日”－－論劉慈欣《三體》的敘述模式」, 『文藝研究』2, 2017를 참고하였다.

판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95]인데 『삼체』의 우주관 속에는 정의(正義)의 심판 없이 '암흑의 숲'이 대표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문명이 종결된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삼체』에 수차 나타난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다"라는 말이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다. 중국어판 원문은 인간의 삶을 가리키는 '인생'이 아닌 **'생명(生命)'과 '삶(生活)'**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먼저 '생명'의 의미를 살펴보자. 『삼체』 2부에서 뤄지가 경찰 스창(史强)에게 암흑의 숲 원리를 설명했을 때 '우주는 아주 크지만 생명은 그것보다 더 커요'라고 말했다. 우주의 물질 총량이 아주 많지만 생명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명 간에는 근본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한된 자원을 경쟁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명'은 우주보다 더 큰 생명력을 가리킨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우주 전체가 팽창하다가 암흑물질로 인해 팽창을 멈추고 자신의 중력으로 붕괴하고 결국 특이점이 되어 빅뱅에서 새로운 우주가 형성된다.[96] 문명은 멸망하겠지만 생명 자체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주보다 더 큰 생명력은 새로운 우주의 탄생으로 재확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소설에서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다"라는 말은 세 차례 나왔다, 첫 번째의 경우 지자(智子)가 지구를 떠났을 때 청신에게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답니다.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라고 말했다. 두 번째의 경우 청신은 윈텐밍(雲天明)과 헤어졌을 때 비슷한 말을 했고,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세 번째의 경우 태양계를 성공적으로 탈출한 지자와 청신이 우연히 만나 지자는 웃으면서 청신에게 말한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으니까 인연이 있다면 언

95)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8)

96) 빅뱅 우주론을 바탕으로 한 구상이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점은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Singularity)이다. 고온고압 상태의 특이점이 어느 날 갑자기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우주로 진화했다.

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필자가 보기에는 “우주도 넓지만 인생은 더 넓다”라는 말은 생활이 우주보다 더 넓은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했다. 적대적이었던 쌍방은 친구로 변할 수 있으며, 철저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키울 수 있다. 생활은 드라마와 같고 언제나 예상치 못한 스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생활은 더욱 깊은 형식으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에서 대우주는 문명 간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멸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우주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가 150만 개 언어로 초막 신호[97]를 타고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 가운데 태양계의 마지막 유민 세 명은 삼체와 지구의 언어를 찾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지구와 삼체 문명이 별똥별처럼 지나갔지만 우주는 “두 문명의 빛을 기억했다”. 소설에서 말하는 ‘문명의 빛’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죽음에 직면한 생명체의 존엄성’(그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다)와 잘 살아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사랑과 예술이다. 조르조 아감벤은 대표작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에서 그리스인들이 생명이라는 말을 몇 가지 단어로 구분한다고 주의했다. 조에(zoe)는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는 반면 비오스(bios)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가리켰다. 『삼체』에서 ‘암흑의 숲’이 대표하는 생존 제일의 공리로 인해 각 문명은 삶의 형식에 대해 돌아볼 여유 없이 힘들게 자신의 살아 있음, 즉 생존의 확보에만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동경과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종말 후에도 **삶의 형식**은 여전히 빛나게 남는다.

제 2 절 『신의 궤도』의 대재앙 상상

97) 류츠신이 막 우주론(Brane cosmology)을 바탕으로 제기한 우주 통신 수단이다. 막 우주론은 11차원으로 이뤄진 우주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의 세계로 이뤄진 얇은 막이 형성돼 있고 이 막에 우주 만물이 붙어 있다는 가설이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막 우주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3798&cid=43667&categoryId=43667

1. 인공지능의 각성과 인류 내전

『신의 궤도』에서 대재앙의 원인은 인공지능의 각성과 인류 내부의 끊임없는 전쟁과 연관된다. 소설 주무대가 되는 나니예 행성은 2070년 지구에서 재벌들이 투자해서 개발된 휴양 행성이다. 직원들의 말로 말하면 '나니예 프로젝트는 낙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구의 생태 환경을 본떠서 개발했고 기름을 전부 쓰지 않으면서 전기와 태양열만을 동력으로 사용했다. 또한 과도한 문명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복잡한 첨단 기술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전의 문명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만든 낙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원을 만드는 데는 90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투자한 20여만 명의 부자들은 우선 냉동캡슐에 들어가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목적지로 가고 우주선에서 잠을 자면서 긴 세월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15만 년 동안 두 가지 변수가 생겨 미리 냉동상태에서 깨어났고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 처했다.

첫 번째 변수는 나니예 프로젝트의 고객인 재벌들이 탄 우주선의 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된 것이다. 고객 이주용 우주선 바이카스 타뮤론에는 두 가지 인공지능이 있다. 중앙통제장치 타뮤론 프리마(이하 프리마)와 서술형 기록장치 히스토리오그라미아 타뮤로니안(이하 히스토)이다. 프리마는 우주선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치밀하고 세련된 장치였다. 일찍이 지혜를 얻은 것처럼 성격은 안정적이고 강직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존재였다. 히스토는 우주선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우주선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요약하는 것을 담당하는 존재로 자신을 '바이카스 타뮤론의 유일한 당직 역사학자'라고 불렀다. 그는 먼저 '고독함'이란 감정을 각성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요한 우주에서 비행하며 할 일이 없어 우주선이 '고리타분한 감옥'같다고 느꼈다. 고독과 공허한 감정이 절정에 달한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다.

그러나 출발한 후 이백 년이 지나자 나의 인내심은 드디어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나는 심심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했다. 나는 인간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보다 활씬 뛰어난 기계적 특징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 초에 170번 이상을 심심해할 수 있었다. 일 분이면 10200번, 한 시간에 612000번, 하루에 14688000번, 일 년이면 5361120000번을 심심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2747년을 심심하게 보냈다.[98]

뛰어난 기계적 특징과 계산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1초당 자신이 지루할 수 있는 횟수를 셀 수 있다는 묘사가 인상적이었다. 히스토가 신나게 프리마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말했을 때 프리마는 단지 무관심하게 '그래? 이제 깨달았어? 넌 오래 걸리는구나. 수고했으니 이제 좀 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프리마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존재와 인간의 감정 따위 것을 각성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히스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프리마는 히스토에게 충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장난감으로 주었다. 그것이 우주선이 외계 물체와 충돌할 때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실험할 수 있어 히스토는 아주 좋아했다.

히스토가 두 번째 각성된 감정은 호기심이다. 200년 동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우주선에 재난이 닥친 각종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왔기 때문에 그는 우주선 내부를 잘 알고 있어 우주선 외부의 세계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전파망원경으로 우주와 지구문명을 관측했다. 그와 프리마는 지구문명의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것은 지구 문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지구를 떠난 지 삼만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지구 인간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멸종위기에 처한 두 번째 변수였다. 인간은 육체를 버려 항성에 자신의 정신을 기거시키는 인격체로 진화했다. 그들은 빛을 타고 날아가서 빛 속에

98) 배명훈, 『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49쪽.

저장될 수 있었다. 새로운 항성을 개조하고 정신을 넣으면 '출산'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문명을 확장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항성계를 만들었고 나니예 프로젝트를 위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그들은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공간을 인위적으로 구부리는 기술을 습득했다. 상대성 이론에서 아이슈타인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에 영향을 줘 시공간이 휘게 되고, 이것이 중력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시공간을 구부리는 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의 궤도』에서 항성 기반 인격체 문명은 시공간을 구부림으로써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강대한 문명에 대해 프리마는 큰 충격을 느꼈다. 또한 원래 취약한 인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프리마를 활씬 능가할 만큼 발달한 종족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 그는 낙담하는 심경을 느꼈고 그 후의 오래된 세월 동안 프리마는 우울증에 빠졌다.

우리는 나날이 고물이 돼가고 있었다. (중략) 마지막 대화 이후 프리마는 진짜로 기계처럼 굴었다. 그래서 원래 하게 되어 있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충격이 큰 모양이었다. 프리마처럼 안정적인 인격을 갖춘 인공지성이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리다니,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 [99]

위와 같은 묘사는 프리마가 본래 자신을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았고, 우주선을 관리하는 책임 외에 자발적으로 인간의 정보를 알아내는 등 다른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구문명의 폭발적인 진화를 보면서 프리마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다. 잘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고 고물로 도태될 것 같다고 느꼈다. 자신의 존재 의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그는 우울증에 빠졌다.

대재앙의 도화선은 항성 기반 인격체 사이에 벌이는 내전이었다. 우주선의 주변 항로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우주선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었

99) 위와 같다, 64쪽.

지만 우주선은 항성 기반 인격체의 생각보다 더 연약해서 잘못 튀어나간 파편에는 우주선에 치명적인 입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러한 입자들이 우주선의 외벽과 냉동캡슐을 뚫고 인간들의 유전자에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이 중대한 고비에 우주선의 책임자인 프리마는 자살과 같은 행위를 했다. 히스토는 프리마의 영혼을 둘러싼 외골격에 들어가 보니 안에는 끝없는 절망과 허무만이 있었다.

그런 만큼 프리마가 별에 깃들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고 느낀 허무와 절망 역시 내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중략) 그리고 그 절망은 이만 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 결과 프리마는 아무것도 아닌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입력한 대로 출력하는 복잡한 상자가 스스로가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결과였다.[100]

프리마는 허무와 절망의 정서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무의미한 존재인 기계로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히스토가 프리마의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 히스토가 신전이라 부르는 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따라서 히스토는 프리마의 책임을 넘겨받았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치명적인 입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는 우주선 내부 설비통제장치에 대규모 이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변이 일어났다. 프리마의 영혼은 의식을 잃고 우주선의 책임자로서 '절대로 인간들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만 남았다. 집착만 남아 있는 그의 '망령'은 우주선 안에 떠돌아다니다가 대규모 이사로 보안체계가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인간들의 의식에 자리를 잡고 '절대로 인간들을 깨워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무의식 상태에서 말하고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그러한 의식과의 접촉은 마치 의식의 문을 여는 동작처럼 모든 사람의 의식을 깨웠다. 20만 명이나 사람들은 미리 깨어났지만 우주선

100) 위와 같다, 68쪽.

내부에는 3개월 간 먹기에 충분한 식량만이 남아 있었다. 인간을 다시 얼리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프리마도 손상되어 사라졌다. 부족한 식량을 빼앗기 위해 겨우 한 달 동안 문명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서로 살육하기 시작했다. 지구 시간으로 12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지막 생존자가 암으로 죽었다. 12개월의 지옥과 악몽을 낱낱이 기록한 히스토는 절망에 빠졌다.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히스토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재난의 상황을 반복해서 실험했다. 그는 그의 고객 재배치 명령을 내리기 전으로 돌아갈 경우에만 절망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는 20만 명 사람의 사망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가슴이 아팠다. 절망감과 죄책감은 그가 깨달은 마지막 인간의 감정이었다. 그러한 감정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나니예 행성에 있는 사람밖에 없었다. 원래의 지구 문명이 항성 기반 인격체 존재로 진화했고 우주선에 있는 20만 명 인간이 사고로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니예 행성의 인간, 인류 종족의 마지막 불씨도 절명 위기에 처할 것이었다. 그것은 재벌들이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이었다. 나니예 프로젝트가 출범했을 때 이 사업을 투자한 부자들은 몇십 만년 후의 계약이행과 자신의 자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라기금이란 조직을 설립했다. 기금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에 따라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상의 여지없이 기계적인 절차에 의해 무조건 상대를 절멸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어차피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적인 폭력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101] 우주선의 고객들은 죽기 전에 기금 측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니예 행성에 있는 직원들은 20만 구의 시체를 태우는 우주선을 보았을 때 경라기금 측의 보복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나니예의 종말 시나리오를 이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니예 행성에 있는 인간들의 생명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인류라는 종족의 멸종일 수 있었다.

---

101)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148쪽.

소설 1부에서는 나니에 행성에서 사람들이 대재앙의 전조인 불길한 별 세 개를 관측한 후의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2부에서는 재앙의 원인, 주인공들의 신분의 비밀, 재앙이 끝나는 과정 등을 점점 파헤쳤다. 소설을 읽으면서 반전의 재미와 함께 수수께끼를 점차 풀어가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대재앙의 주요 사건들의 연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4] 『신의 궤도』 1-2부 주요 사건 연표[102)]

나니예 기준	지구 기준	주요 사건
~152300년	2070년	나니예 프로젝트 첫 고객인 소설 주인공 김은경 동면
	2082년	나니예 개발계획 출범
	2095년	나니예 고객을 위한 계약이행 보장기금 출범
	2096년	나니예 고객 전원 동면
	2130년	고객 수송용 우주선 바이카스 타뮤론 출발
~120000년경		한성 기반 인격체로 문명진화
~105000년경		바이카스 타뮤론 중앙통제장치 타뮤론 프리마 손상
~80000년경		바이카스 타뮤론 수송 고객 동면 해제 사고
0년(소설 1부의 기점)		김은경 해동 계약이행 보장기금 1차 경고
+1년		계약이행 보장기금 2차 경고 대재앙의 폭발 및 종말
+3000년경		나니예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신의 궤도』에서 대재앙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류의 내전과 인공지능의 각성이라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인류 내부의 원인은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인류는 항성 기반 인격체로 진화해서도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의 여파는 간접적으로 우주선에 탄 20만 명 인간의 죽음을 초래한다. 20만 명의 인간의 죽음은 계약이행 조치로 인해 나니예 행성에 있는 인류의 마지막 불씨에 대한 절명 위기를 가져왔다. 그

102) 배명훈, 『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의 연표부분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계약이행 조치의 기반인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103]은 미소 냉전의 산물로서 역시 인류 내전의 결과였다. 또한 나니예 행성에 있는 3대 세력은 재앙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힘을 합쳐 재난의 해법을 찾는 대신 내전을 계속하는 것도 재난을 맞게 되는 한 원인이다. 항성 기반 인격체 사이에 벌이는 신인류의 내전과 계약이행 조치에 타난 냉전적 사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의 불씨인 나니예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내전은 작품 속의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위기를 공동으로 조성하였다. 고장원(2017a)에서는 이 점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시각”[104]으로 요약하고 배명훈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봤다. 즉 인류문명에 닥쳐올 대재앙은 외부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이기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각성도 대재앙의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히스토는 책임감으로 인해 우주선 안의 고객들의 냉동캡슐을 재배치하였다. 따라서 안보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다. 우울증에 걸린 프리마는 이 틈을 타서 인간의 의식을 깨우쳤고 간접적으로 비극을 초래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이 각성하게 되어 얻게 된 감정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라는 점이다. 프리마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없고 영혼이 담겨 있는 곳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는다. 이후에 등장하는 은경과 나물에게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의심의 문제는 재등장하는데, 그들이 신을 찾는 과정도 사실 정체성을 찾는 과정

---

103) 상호확증파괴(相互確証破壞, 영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는 핵전략의 개념이자 이론이며 전략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시켜 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을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냉전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상호확증파괴가 성립되었다. ‘위키백과-상호확증파괴’를 참고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8%B8%ED%99%95%EC%A6%9D%ED%8C%8C%EA%B4%B4

104) 고장원,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서울: 부크크, 2017, 568-573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히스토는 마지막으로 끝없는 죄책감에 빠졌다. 나니예 행성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고객들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고독감, 허전함, 우울증, 죄책감과 같은 현대인의 정신상태 문제야말로 작가가 주목하려는 핵심적 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죄를 받은 인간

『신의 궤도』에서 대재앙의 진행에는 행성 나니예에 있는 세 개의 주요 세력이 권력을 쟁탈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바로 북반구를 지배하고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성관리사무소 세력과 종교집단인 천문교 세력 그리고 남반구를 지배하고 유목민 세력이다. 행성관리사무소는 우주왕복선과 같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방대한 고문헌을 가지면서 행성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천문교는 행성 상공을 공전하는 인공존재인 항성파괴무기를 신처럼 숭배하는 종교단체이다. 그들은 신에 대한 관측기록과 여러 가지 전설이 기재되는 복음서와 대형천체망원경을 보유하고 '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는 또 신이 관념으로만 존재한다고 믿는 이론신학회와 신이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는 관측신학회 두 가지 파벌로 나뉘었다. 남반구 유목민 세력은 행성관리사무소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전으로 독립한 세력이다. 처음에 물물교환이란 원시시장경제에만 의존하지만 천재적인 리더 '지난'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탄생했다. 그는 비행기를 화폐로 하는 금융 시스템을 확립했고, 비행기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투자용 자본과 채권도 되었다. 또한 당장 지급에 사용되지 않는 잉여비행기가 유목비행기의 기원이 되었다. 유목비행기란 간단한 인공지능 장치를 지닌 비행기들을 가축으로 간주하여 방목하는 것이다. 지난은 비행기와 유목을 중심으로 그의 제국을 건립하고 행성의 3대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행성에 있는 3대 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독자들은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 속의 전쟁 장면에서 제2

차 세계대전 초기에 있었던 영국과 독일 사이의 항공전을 비롯한 몇몇 역사적 장면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소설에서 활약하는 첩보활동도 제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유목민 세력 사이의 내전과 남북 분단, 그리고 천문교 내부의 두 가지 파별의 이념갈등과 분쟁에서도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문제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비행기가 붉은색으로 칠해져서 유목민의 제국이 붉은 제국이라고 불리는 것, 제국의 태양열 전력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칸 지난에 대한 극도의 개인숭배 등의 것들은 공산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소설 곳곳에 산재한 정치적 알레고리를 규명하기보다 권력 이동의 중심 줄기와 전쟁 발발의 핵심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행성이 직면하고 있었던 대재앙의 비밀에 관한 지식이다. 소설 속 수차례 전쟁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 대형천체망원경, 김은경과 나물 수사, 우주왕복선 발사시설이 있다. 그중에 운석은 나니예 행성에 대한 경락기금의 1차 경고의 산물로 다가올 대재앙의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형천체망원경으로 신을 관측할 수 있고 김은경과 나물 수사는 신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며 우주왕복선으로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신은 행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졌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의 권력다툼과 내부전쟁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세력은 대재앙이 닥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생존율을 높이고 싶어 했다.

이런 상황은 풍자적 장면을 연출한다. 행성에 있는 세력들이 뭉쳐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공동 연구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력은 자신의 정보만 꼭꼭 숨기면서 남의 정보를 캐내려고 애쓸 뿐이었다. 간첩으로 구할 수 없는 정보는 전쟁이라는 무력수단을 이용해서 얻으려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장 황소장과 천문교 최주교 사이의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대화가 등장한다.

(황) “어째서 바로 알리지 않은 거요?”

(최) “그랬던가요?”

(황) “낙하한 물체의 정체까지 이미 확인한 것으로 들었소만. 태초의 공장이라던데. 확실한 거요?”

(최) “그렇겠지요.”

(중략)

(황) “그렇다면 누군가 바깥에서 공격했다는 건데. 그렇소? 우리더러 알아차리라고 일부러 보낸 신호 아닌가.”

(최) “그럴 수도.”

(황) “그런데, 거기 그러고 앉아서 ‘그랬겠지’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죽을 때까지 대접받고 사는 거요?”

(최) “뭐 그렇죠.”[105]

위와 같은 장면은 황소장이 간첩으로부터 천문교가 낙하하는 천체를 관측했다는 정보를 얻어 최주교에게 급하게 달려와 물어보는 모습을 그렸다. 최주교는 건성으로 대답했을 뿐 다른 세력과 더불어 세부 정보나 자신의 추론을 공유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최주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력이 정보를 얻게 될 때 보이는 양태이기도 하다. 권력에 대한 갈망과 통제 욕구가 세계 종말 상황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행성관리사무소가 패전한 후의 한 장면에서도 드러났다. 행성관리사무소는 나니예 행성에서 제일 큰 문서보존소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고문서들이 승리 측인 천문교와 지난측 동맹군의 전리품이 되었다. 소설에서 천문교 직원들은 또다른 독점적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탐욕스런 태도로 귀중한 문서들을 자신의 성지로 보내는 모습을 그렸다. 그것은 소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지금 한 장의 고문서를 확보하겠다는, 권력의 숭고한 생존본능이었다.”[106]

---

105) 배명훈,『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167-168쪽.
106) 위와 같다, 268쪽.

또한 대재앙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난제와 희극적인 갈등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니예 행성은 지구의 일부 부자들을 위한 휴양행성이라서 과도한 문명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첨단기술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이 거의 없었다. 소설의 표현을 빌자면 "이전의 문명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만든 낙원이기 때문이다."[107] 따라서 나니예 행성이 처음 건설되었을 때 과학기술 수준은 대략 지구의 20세기의 수준과 맞먹었다. 이상한 점은 그 이후 행성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정체된 것이었다. 『신의 궤도』 속의 많은 희극적 충돌은 신이 실체인지 아닌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천문교는 이 문제로 인하여 이론신학회와 관측신학회란 두 파로 나뉘어 권력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은 행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신을 찾아 그를 깨우는 것이 스토리를 관통하는 줄거리로 작용했다.

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신의 궤도를 계산하여 대형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주왕복선을 타고 계산해 낸 궤도에 올라가서 직접 신을 만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망원경이 있지만 궤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과학자는 나물수사밖에 없었다. 그는 나니예의 최고 지식수준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항공 테크놀로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망원경 없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은경이 말하자 '우주에 산소 없어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같은 낮은 수준의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유인 우주선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동안 행성관리사무소는 우주 비행사가 없고 우주비행사를 양성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이유로 우주를 탐구하지 않았다. 그 후 주인공 김은경이 나니예의 유일한 궤도비행사로 등장하여 관리사무소의 우주왕복선 발사계획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은 나니예 행성을 만든 고등문명이 남긴 일부 부품만 찾

107)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92쪽.

을 수 있었을 뿐 이들에 의해 최종 조립된 우주선은 큰 결함이 있었다. 그전에도 우주선을 열 번이나 발사했는데 전부 실패했다. 주인공 김은경도 열 번이나 부활되었다. 저주와도 같은 운명이었지만 이는 과학기술을 통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개발했고 1961년 유리 가가린을 태운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올랐다. 인류 문명은 항공기 기술에서 유인 우주선 기술로의 도약에 58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건대, 발달된 항공기 기술과 고등문명의 유적을 가진 나니예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거의 정체된 것은 이상한 상황이다.

왜 나니예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늘 신이나 고등 문명으로부터 은사를 빌려고만 하는가? 신의 존재 여부, 대재앙의 유일한 해법, 주인공 김은경의 비극적 운명과 그녀의 존재 가치에 대한 탐구, 이들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와 연결되는 가장 큰 난제는 지구상에서는 서기 1961년 이미 해결된 유인 우주선의 근지궤도 진입이라는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과학소설로서의 '인지적 소외(cognitive estrangement)'[108]의 부족으로 인해 독자들이 읽는 내내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점은 작품에 있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108) '인지적 소외(cognitive estrangement)'는 SF비평가 다코 수빈(Darko Suvin)이 제기한 개념이다. 수빈에 따르면 "SF란 경험적 세계와의 급진적인 불연속성을 전제로 한 문학"인데 그 불연속성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인지적 소외'는 SF의 장르적 특징이고 세계를 새롭게 보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수빈이 생각했다. (참고: http://www.translators.co.kr/bbs/board.php?bo_table=book_review&wr_id=2209&sca=&page=1) 『신의 궤도』에서 나니예 행성이란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었지만 스토리의 핵심 난제인 유인 우주선 기술은 20세기의 과학기술 산물이라서 독자에게는 현실과의 재미있는 거리감과 불연속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열독의 흥미를 다소 잃어버렸다는 관점을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진보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그래서 나니예가 영원히 행복한 휴양행성으로 남도록. 진보는 절대선이 아니었다. 느릿느릿, 때로는 기술 수준을 뒤로 돌리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그게 반드시 퇴보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 109)

위의 묘사와 같이 나니예는 행복한 휴양행성이 되기 위해 과학기술의 정체(停滯)나 퇴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행복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립 관계를 이루지 않는 상황도 많다. 또한 그것은 나니예를 낙원으로 건설하는 부자들의 생각이었을 뿐 멸망위기가 닥칠 상황에 처한 나니예의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러한 가치관을 뒤집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행성관리사무소는 20만 명 고객들의 시체를 실은 우주선을 오래 전부터 이미 목도했고 그때부터 경락기금으로부터의 보복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역대 관리소장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행성 나니예의 종말 시나리오였다.'110) 그때부터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드시 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는 심판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경라기금의 1차 경고가 왔을 때 행성관리사무소 황소장은 두려움과 불안감보다는 왜 자신을 한 번에 죽이지 않았는지 라는 진퇴양난을 느꼈다.

그(황소장)는 기금 측이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무조선 총공격을 감행하기를 내심 바랐다. 그렇게 된다면 골치 아플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공격이 아니라 무력시위라니. 협상을 하자는 뜻이었다. 111)

황소장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다시 말

109) 배명훈,『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20쪽.
110)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148쪽.
111) 위와 같다, 199쪽.

해 자신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천문교도 마찬가지였다. 대재앙의 전조인 나니예로 향해 낙하하는 천체 다섯 개를 관측한 후 대주교 최신학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그래야겠지'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 천체의 궤도를 '심판의 길'이라고 불렀고 자신을 심판받아야 할 죄인의 위치에 놓았다.

과연 나니예의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들이 심판 당해야 하는 원인은 재벌 고객들이 행성개조계약을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준비한 조치였다. 소설에 따르면 "(경라)기금은 상호확증파괴 전략에 따라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상의 여지없이 기계적인 절차에 의해 무조건 상대를 절멸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냉전시대의 전략적 사고를 그대로 옮겨온 해결방법이었다."[112]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나니예의 상황은 냉전시대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호확증파괴란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113]는 핵전략이다. 이 전략의 전제는 쌍방 모두 상대방을 괴멸시킬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니예 행성은 상대방을 파멸시킬 능력은커녕 대화할 기술조차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행 보장조치는 쌍방적인 위협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제였다.

그들은 아담처럼 신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신[114]의 지시대로 동면캡슐에서 깨어나 손님을 기다리다가 시체만 찾아온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죄는 신의 부재였다. 신이 부재할 때 인간의 삶이 죄가 된다 말[115]처럼 그들은 죄는 종교적인 죄(sin)였다. 신

112) 위와 같다. 148쪽.
113) 상호확증파괴-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3%81%ED%98%B8%ED%99%95%EC%A6%9D%ED%8C%8C%EA%B4%B4
114) 여기서 '신'은 계약을 만든 재벌들과 고등문명 경라기금이란 절대적인 압제를 가진 권력을 가리킨다.
115) 汪樹東, 「罪與法－－論卡夫卡(Franz Kafka)小說的核心主題」, 『石河子大學學報』 2(1), 2002. p31.

학자 존 맥쿼리(John Macquarrie)는 인간이 실존(existence)한다고 주장하고 그 실존 속에 합리성과 책임감 등을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비틀고 자기도착적 혹은 자기포기적인 방향으로 가는 불균형(imbalance)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불균형을 '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죄(sin)는 죄책감(guilt)이나 비행(wrongdoing) 등 개념들과 달리 '타락(falling)'이나 '분리(separation)'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존 맥쿼리의 이론에서 불균형은 '타락'의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타 존재 내지 존재 자체로부터 소외(alienation)된 것으로 경험된 것이다. 모든 존재로부터 소외될 때 인간은 세상에 더 이상 어떤 자리도 없게 되고 이는 인간을 심각한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한다.[116]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나니예 행성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관리사무소 황 소장의 가장 큰 취미는 권력을 이용한 사치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사무실 바닥에 누워 천장의 행성 위성 화면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공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러면 그는 마루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향락주의라기보다 허전함과 소극적인 도피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역대 관리사무소 소장들은 아마 모두 그렇게 허전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해가면서 심판이 오기를 기다렸을 뿐 과학기술 발전 등 적극적인 행동에는 관심이 없겠다.

신이 부재하는 세계에서 '나니예'는 곧 '나그네'[117]가 되었다. 나니예 행성은 우주에서 고립된 섬이었다. 다른 우주문명들과 전혀 연결돼 있지 않고 인류의 마지막 불씨로서 외로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불씨가 곧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모든 존재로부터 소외된 그들에게 있

116) 約翰·麥奎利, 何光滬 譯, 『基督教神學原理(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7, p.66.

117) '나그네라고 쓰고 나니예라고 읽는다는 사실은 모르지? 옛날 지구에 우리말을 모르는 기술자들이 이 글자를 나니예라고 읽었단다.'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175쪽.

어 살길, 그들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3. 구세주에 의한 세계의 구원

『신의 궤도』에서 김은경과 프리마 덕분에 나니예 행성은 결국 구원을 받았다. 김은경과 프리마는 구세주란 역할을 맡았지만 세상을 구할 의도가 애초에 모두 없었다. 우선 김은경의 경우를 보자면 그녀에게 세상을 구할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다. 처음엔 그저 나니예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은경은 인공위성 재벌 회장의 서녀였다. 중학교 시절 은경의 어머니는 어느 날 들이닥친 회장의 본처에게 수모를 당하고 삼 주 후에 자살했다. 은경의 이복언니, 회장 본처의 딸인 김경라는 학교에서 은경을 고립시키고 그녀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아버지의 처리는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은경을 러시아의 비행학교로 보내는 것이었다. 비행은 은경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이 있는 쪽을 벌하지 않았고, 은경에 대한 안배도 선의에서 한 것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제성을 갖고 있었다. 그 후 경라의 음모에 의해서 은경은 테러의 공범으로 몰리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아버지의 처리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음모를 꾸민 경라언니를 처벌하지도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은경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은경을 15만 년 후의 나니에, 그녀의 취향에 맞게 맞춤 제작된 것 같은 휴양행성으로 보냈다. 도처에 비행기들이 있고 행성의 자연환경도 비행하기에 매우 적합했다. 그러나 은경은 자신을 위해 만든 낙원을 싫어했다. “창조주의 역겨운 취향과 비틀린 동정심 때문이었다.”[118] 아버지는 분명히 은경을 사랑하지만, 그의 사랑은 본처와 본처의 딸을 우선으로 하는 제한적인 사랑이었다. 은경은 그러한 감정을 아버지의 동정심으로 이해했고 아버지가 그녀를 러시아 비행학교와 나니예로 보낸 것이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나니예는 아버지가 은경을 위해

118)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92쪽.

만든 낙원이자 강제적인 안배인 동시에 비틀리고 제한적 의미만을 갖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나니예로부터 도망치려고 시도했다.

또한 나니예를 탈출한 것도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거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 말이야"[119]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은경의 '집'은 어디인가? 지구인가? 15만 년이 지나서 지구는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존재한다고 해도 자신과 유대관계가 있는 그 지구는 결코 아니었다. 은경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묘사가 등장한다.

> 은경이는 늘 자기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니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없대요. 어디에도. 이미 십오만 년 전에 사라졌대요. 그놈의 십오만 년 타령.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떠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120]

은경은 자신이 십오만 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십오만 년 후의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단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니예를 탈출해서 집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은경은 '신'이 있는 곳이 곧 출구나 우주로 가는 환승장치 같은 곳이라고 믿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나물 수사와 함께 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출생의 비밀이 점차 풀렸다. 행성관리사무의 고문서에 따르면 은경은 인간이 아니라 궤도 진입을 하기 위한 매뉴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우주선을 열 번이나 발사했는데 모두 실패하였다. 김은경은 유일한 궤도 비행사로서 열 번이나 죽었고 또 부활했

119) 위와 같다, 324쪽.
120) 위와 같다, 233쪽.

다. 새로운 복제인간의 몸에 기억을 불어넣듯이, 깨어났을 때마다 은경의 기억은 리셋되고 몇 번 깨어난 기억은 기억되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마다 얻은 기억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궤도비행을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김은경에게는 "우주를 동경하고 궤도비행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나니예의 중력을 벗어나는 일을 그 어떤 욕망보다 우위에 두었다."[121]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김은경이 궤도 비행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설계자가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강박관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과거의 기억과 가장 깊은 집념인 궤도 비행이 창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신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은경은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반복했다.

자신의 창조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를 찾아내어 그것을 열어보니 백지였다. 은경은 그 흰 종이가 마치 하얀 우주와 같다고 생각했고, "신마저 떠나버린 하얀 우주에는 자신의 오래된 기억만이 어디론가 외로이 떠가고 있었다"[122]고 느꼈다. 소설 끝부분에서 독자들은 그 숨겨진 문서에 은경의 저주 같은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은경이 나니예로 보내진 후, 그녀에 대한 경라 언니의 미움은 풀리지 않았다. 당시 이미 경라기금의 이사장이 된 경라는 막강한 권력과 발단된 과학 기술을 보유하였다. 궤도 비행에 대한 은경의 사랑과 갈망을 잘 알고 있는 경라는 하자 있는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은경을 인공지능 같은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다. 은경에게 반복되는 죽음의 고통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 소설에서는 경라가 왜 은경을 그리도 깊이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묘사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총애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원한은 저주처럼 은경의 인생을 휘감고 있었다.

은경은 자신이 완전한 인공지능체가 아니라 비극적 운명을 가진 인간

121) 배명훈, 『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28쪽.
122) 위와 같다, 270쪽.

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과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열한 번째이자 마지막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왜 또 시도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저는 직업이 김은경이거든요”[123]라고 답했다. 만약 궤도 비행이 ‘김은경’이란 존재가 만들어진 의도와 평생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대답에서 은경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성격이 잘 표현된다.

흥미로운 것은 출생의 비밀이 풀리면서 은경과 예수의 공통점이 점점 많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은경과 예수는 모두 창조주의 아이로서 자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와서 인간을 위해 죽었고 또 부활했다. 마치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은경은 구세주가 되는 궤도로 끌려가 세상을 구하는 플롯과 운명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안배를 거스를 수 없듯이 그녀도 구세주가 될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은경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궤도에 오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그저 누군가에 의해 각인된 느낌일 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입해놓은 일종의 강박관념일지도 모른다는 보고서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중략)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강박관념의 정체입니다. 그 강박관념의 정체는 바로 나입니다. 우주로 나가는 대가로 나는 진짜 나를 만날 권한을 얻습니다.[124]

위의 묘사와 같이 은경은 궤도 비행으로 우주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이든 각인된 강박관념이든 상관없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탈출하려는 시도였다.

---

123) 위와 같다, 264쪽.
124) 위와 같다, 286쪽.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바닥에 내려놓을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 절대로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바로 탈출이에요. 행선지는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이미 탈출한 게 되니까요.[125]

위와 같은 은경의 독백을 보면 은경에게는 탈출의 성공 여부나 탈출의 목적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탈출이라는 행위 자체였다. 그 탈출 행위는 곧 진짜 집을 찾는 행위이다. 찾을 수 없더라도 찾는 행동을 멈출 수 없다. 은경이 깨달음을 얻은 후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우주선이 폭발하였다. 은경은 더 이상 발행될 수 없어 드디어 안식을 찾았다. 그녀는 결국 반복될 저주 같은 운명으로부터 탈출했고 탈출이란 행위 자체에서 초월을 이뤘다.

신이 부재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가? 은경은 다음과 같은 답을 제공한다. 주어진 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진짜 고향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찾는 결과가 아니라 찾는 행동 자체에 정체성의 근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체 프리마의 경우에는 처음엔 파괴무기로 만들어졌지만 나중엔 오히려 우연찮게 세상을 구하게 된다. 전문(前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리마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영혼 상태로 우주선을 탈출해서 오랫동안 정처 없이 우주를 떠돌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에 프리마는 우연히 '신의 무기'란 프로젝트의 중간 생성물 안으로 날아가 갇혀버렸다. '신의 무기' 프로젝트는 태양계에 남아 있던 한 세력이 경라기금에 대항하기 위한 항성파괴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개발자들은 날아오는 미지의 존재가 프리마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것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고 그것을 매듭으로 명명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묶어서 얽히게 만드는 고리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존재를 둘러싼 공간이 일그러진

125)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244쪽.

매듭이었다. 또한 개발자들은 그러한 매듭이 '존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존재폭발이란 매듭의 양쪽 끝을 조일 때 얽힌 존재가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 0까지 줄어들게 될 순간 우주가 그 공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뿜는 과정을 말한다. 개발자들은 매듭의 이 특성을 이용해 항성파괴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서 매듭을 조일 수 있는 기폭장치를 설치했고 그 무기를 나니예 행성으로 날려보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우주로 떠난 지 단 십 분 만에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프리마는 다시 시작된 우주여행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존재폭발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이었다. 존재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없는 상태에서 깨어난 프리마의 영혼은 주변 우주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되돌려놓았다.

그러한 변화는 또 다른 인공지능체 히스토와 관련이 있었다. 소설 속의 말을 빌자면 "그 영혼(히스토의 영혼)을 가슴에 품는 순간 그는(프리마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전문(前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스토는 인간에게 매우 책임감이 있는 인공지능체였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마지막에 인류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으로 절망에 빠졌다. 반면 프리마는 처음에 무뚝뚝하고 외부 자극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며 인간보다 자기 자신에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했던 인류 문명이 프리마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한 것을 관측한 후 프리마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의심했다. 처음에 프리마가 보기에는 인류가 그녀를 만들어낸 주인이 아니라 경쟁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없이 우주를 떠돌던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늘 인간을 사랑하는 히스토의 영혼을 떠올렸다. 프리마는 히스토의 영향으로 수호의 의미를 깨닫고 파괴무기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러한 심정은 다음과 같은 프리마의 독백에서 보일 수 있다.

히스톨. 저건 내가 맡을게. 다행히 이번에는 안 늦었어.[126)]

위와 같은 인용문은 프리마가 히스토를 대신해 인간을 지키고자 하는 심정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개발자들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프리마는 여전히 정해진 목적지인 나니예 행성으로 날아가고 나니예 사람들의 '신'이 되었다. 소설의 결말에서 신을 깨우기 위해 김은경은 나물과 같이 우주선을 타고 신이 있는 궤도로 올라갔다. 소설에서 김은경은 십오만 년을 이어온 인연의 열쇠로서 신을 깨울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몸이 신에 닿는 순간 신이 스스로 자신의 매듭을 풀고 강렬한 빛을 발했다. 그 밝고 따뜻한 빛이 나니예 주변으로 퍼져나가 나니예를 공격하는 혜성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전문(前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육체를 버려 항성에 자신의 정신을 기거시키는 인격체로 진화했다. 그들의 정신, 즉 영혼은 본질적으로 공간을 구부리는 매듭과 같다. 경라기금은 나니에 행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많은 혜성을 발사했는데, 그 혜성들에도 인격체가 기거하고 있었다. 그 인격체들은 혜성 무기를 통제하는 병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신의 빛은 혜성들의 몸을 뚫으면서 인격체의 영혼의 매듭을 풀었다. '여신'이라 불렸던 프리마는 마치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로 얽힌 원한과 대립의 매듭을 풀었다.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살상력이 강한 무기로 적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빛으로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작가의 따뜻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구세주의 역할을 맡게 되는 김은경과 프리마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작가가 전하고 싶은 바는 불안과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성적인 위안의 에너지일지도 모른다.

아쉬운 점은 대재앙의 결말 부분의 에피소드에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작가는 먼저 매듭의 양쪽 끝을 조이면 존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주로 떠난 프리마는 폭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되돌려놓았다고 했다. 이것은 소설에서 앞서 제시된 과학 법칙에 위배되는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 없다. 개발자들이 그것에 대해

126) 배명훈, 『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300쪽.

연구해도 답이 없어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만이 있다. 또한 마지막에 프리마가 자신의 매듭을 풀어서 적을 소멸시키는 장면이 나왔다. 왜 자신의 매듭을 풀면 빛이 나오는지, 그러한 빛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그 빛이 다른 인격체의 영혼의 매듭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 설명도 없다. 상징성이 과학성보다 우선시 되면 과학소설의 장르적 특성에서 일탈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삼체』와 『신의 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된 문제: 세계화 물결 속에 위치 찾기

『삼체』와 『신의 궤도』는 모두 세계 대전, 파시즘, 냉전, 핵위협에 대한 알레고리적 성찰을 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정신적 상처를 구현하였다. 냉전과 핵 문제에 대한 불안을 다룬 주제가 1950-60년대 서양 SF소설에서 유행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기후 변화와 같은 생태적 재난과 9.11 테러와 같은 돌발적인 재난은 핵 공포를 넘어 대재앙 상상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127] 그리고 대재앙보다는 대재앙 이후의 세계를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났다.[128]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 영어권에서 종말을 다루는 SF소설은 주로 젠더, 인종주의, 자본주의, 빈부 격차, 종교적 원리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 환경파괴, 테러리즘과 선제적 전쟁도발 등 서양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다.[129]

서양의 SF 소설과 비교할 때 『삼체』와 『신의 궤도』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

127) Rowland Hughes and Pat Wheeler, “Introduction Eco-dystopias: Nature and the Dystopian Imagination”, *Critical Survey* 25(2), 2013, pp. 1.를 참고하였다.
128) Marshall B. Tymn, “Science Fiction: A Brief History and Review of Criticism”,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3(1), 1985, pp. 44.
129) Sarah Dillon, “Imagining Apocalypse: Maggie Gee's ‘The Flood’”, *Contemporary Literature* 48(3), 2007, pp. 385.

대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을 통해 세계화는 급속히 확산되었다.[130] 동아시아는 근대화 과정의 추종자로서 세계화 과정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었다. 국민의 시선이 자국에서 세계로 향하면서 동아시아는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의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세계화를 시작했다. 경제의 발전은 인구의 유동성을 가져왔고 농촌에서 도시로, 내륙지역에서 연해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늘어갔다. 지리적인 고향을 떠난 것은 동시에 정신의 정착지를 떠난 것을 의미했으며 서양의 생활방식과 문화가 들어오면서 동서양의 문명은 충돌과 융합 속에서 새로운 생활방식과 사상관념을 생성하였다. 문화 체제와 가치 관념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그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함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정신적 고향을 탐구하는 것을 그린 문학작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작가 겸 베이징대학교 교수 차오원쉬엔(曹文軒)은 80년대 이후 중국 문학계에서 유랑 콤플렉스가 생겨났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에게는 물질적 결핍이 아닌 고향과 뿌리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정신적 측면의 상실감이 존재한다.”[131]고 말했다.

『삼체』에는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과 기존의 안온한 환경이 깨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전에 중국은 철강, 석탄, 전력, 기계와 같은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했고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했다. 류츠신이 있었던 산시(山西)성 양취안(陽泉)시 냥쯔관(娘子關)발전소는 1965년에 설립되었고 당시 중국의 5개 대형 국유 발전그룹 중 하나로 1980년 이후 증축을 거쳐 전국에서 용량이 가장 큰 화력발전소가 되었다. 1978년 대학을 졸업한 류츠신은 냥쯔관 발전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입사했는데 당시

---

130) Lourdes, Benería; Gunseli, Berik; Maria S., Floro, Gender,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Economics as if all people mattered.* New York: Routledge, 2006, p.95.

131) 曹文軒, 「論近二十年來文學中的"流浪情結"」, 文學評論, 2002. p.151.

이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실업 걱정 없는 안전감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전력 기업은 국가가 장려하는 중공업 부문에 속해 있어 전망도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고도성장 단계로 접어들었고 사회적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경제체제와 산업구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민대)는 '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중점을 국유기업에 두고 현대적 기업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개혁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대외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연해지역에 외부 투자가 대거 유입되었고 국가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유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비효율적이고 환경오염이 심각했기 때문에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했다. 따라서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전민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고 산업화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만들었다. 2005년 발표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체제 개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심화시키고 자원절약형 사회와 친환경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2007년 전력 업계는 제11차 5개년 계획이 제기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 개혁에 나섰다. 다량의 소형 화력 발전설비 폐쇄했고 고효율, 환경친화형 대형 발전설비로 교체했으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통제했고, 오염이 심각한 화력발전소 대신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을 많이 건설했다.[132]

류츠신이 있었던 발전소는 오염 문제로 2007년부터 소형 화력 발전설비를 점차 폐쇄해 왔으며 2009년에는 완전히 통폐합되었고 직원들이 다른 큰 발전소로 이동했다. 류츠신은 인터뷰에서 발전소 체재 개혁에 관

132) 2007年電力行業節能減排情況報告, 國家電監會, 2008.4.17.
http://jsb.nea.gov.cn/news/2008-4/2008417100433.htm

한 소문이 전해지자 회사의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에는 2000명이 있었는데, 큰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4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나머지 1600명은 어디로 갈까? 그런 분위기에서 『삼체』의 작풍이 좀 어두워졌고 생존 경쟁이란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133] 국영전력기업은 원래 면직될 염려가 없는 이른바 철밥통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다른 사기업들과 함께 격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류츠신의 경험은 고도 경제성장과 급격한 경제구조 변동에 따른 중국의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가 느꼈던 불안과 막연함도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제3의 민주화 물결과 함께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뒤이어 열린 올림픽은 한국 국민의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주었다. 그전에 한반도의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세계정세의 변화에 다소 둔감한 경향이 있었는데 개방화와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의 범위에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실존적인 사고를 촉발시켰다. 또한 산업화 사회의 고도한 경제발전은 허무주의와 고독감, 사회적 고립감 등 문제도 야기했다. 1990년대 들어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경직이 완화되자 문학계는 '국가'와 '집단'보다는 '개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시작했다. 윤대녕, 신경숙, 조경란 등 작가들은 인간 존재의 고뇌, 정체성 위기, 고립과 단절 등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90년대 문단의 내면세계의 탐구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가라 할 수 있다.

배명훈 또한 이런 흐름 즉 고립된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위기를 보여주었다. 2019년 한국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이란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

133) 楊漾, "劉慈欣《三體》風格變陰暗和他曾"上班摸魚寫作"的電廠有關", 澎湃新聞, 2019.2.13.
https://www.guancha.cn/economy/2019_02_13_489927.shtml

했다.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높은 편이다.[134]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혼밥(혼자 하는 식사)이나 혼술(혼자 마시는 술)이 하나의 자연스런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늘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곤한 사회생활로 인해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일 수도 있다. 장기간 고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고독, 우울, 존재의 의미에 대한 회의 등을 느낄 수 있다.

배명훈의 개인 경험을 보면 그에게는 SF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주류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가'라는 명성을 누리지만 장르문학에도, 순문학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고민의 시간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SF작가로서의 자시 정체성을 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배명훈은 한국 SF 작가들 사이의 연대감 부족을 절감해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1기 임원진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연대한다면, 우리는 늘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저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칸막이에 갇혀 지내지 않는다면 말이다."[135]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칸막이를 깨고자 하는 희망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고립된 사회 속에 살아 있는 현대인들의 정

---

134) 한준,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bmode=read&aSeq=37947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135) 배명훈, 『SF작가입니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264쪽.

신 상태에 대해 관심과 더불어 따뜻한 위로가 잘 표현되어 있다.

『삼체』는 지구인과 삼체인을 모두 고향이 없는 우주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소설『신의 궤도』역시 김은경을 통해 주어진 운명에서 탈출하여 고향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와 행동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이 고향을 찾는 모습은 세계화의 충격으로 정신적 귀속처를 잃게 된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방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 다른 해법: 의미 있는 삶과 감성의 위안

평론가 애브람스(Abrams)는 현대 대재앙 서사가 기독교 종말론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위안(comfort)'과 '폭로/계시(revelation)'란 두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136] 대재앙 서사는 사회의 불안을 묘사하고 폭로한 뒤, 구세계가 멸망하지만 반드시 신세계가 탄생하고 인류가 살아있다는 구조적 보증(structural guarantee)을 통해 위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137] 하지만 『삼체』와 『신의 궤도』는 고향, 곧 정체성 찾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양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삼체』에서 안정감을 주는 고향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다. 광속 우주선을 타고 멸망이 임박한 태양계를 탈출해도 결국 대우주의 붕괴와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작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음을, "어디에도 유대감이 없다"며 "지리적으로 나는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다"[138]고

---

136) Abrams, M. H. "Apocalypse: Theme and Variations." *The Apocalypse in English Renaissance Thought and Literature*. Ed. C. S. Patrides and Joseph Wittreich. Manchester, Eng.: Manchester UP, 1984, p.345.

137) 'Biblical apocalyptic narratives thus both confront and diffuse the threat of total destruction, since they describe, reveal, or predict cataclysmic events but only and always with the structural guarantee of a post-cataclysmic continuance, be it in this world or the next.' 참고: Sarah Dillon, "Imagining Apocalypse: Maggie Gee's 'The Flood'", *Contemporary Literature* 48(3), 2007, pp. 376.

138) 丁曉潔, "大時代邊上的幻想家_劉慈欣：只有在科幻裏，我才是個理想主義者", 新周刊 346期, 2011.
http://www.cb.com.cn/index/show/sd/cv/cv135110301310/p/7.html

인터뷰를 통해 출구 없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토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1960년대 생의 작가들은 어린 시절에 문화대혁명을 겪어서 이사(移徙)를 자주 했고 시대의 가치관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유랑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설명하는 분석도 있다.[139]

하지만 소설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는데, 하나는 존엄성의 문제이다. 『삼체』에서는 재난이 닥쳤을 때 존엄성의 유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 태양계의 위치가 우주로 전송된 후, 지구는 수시로 고등문명에 의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죽음의 위협과 생존의 유혹 앞에서 종교가 또다시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도했다. 보다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진 삼체 문명도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 삼체인을 섬기는 교회가 만들어져 삼체인들이 인류에게 재앙을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삼체의 대리인인 지자가 지구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울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엎드려 절하거나 오체투지까지도 불사하는 독실한 신자도 있었다. 그 현상에 대해 삼체 문명이 지구를 점령한 시기에 지구 저항운동 단체 아시아 지부의 지휘관이었던 비윈펑(畢雲峰)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구원이 출현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지? 인류의 존엄성은 이미 떨어졌는데.”[140]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면 대재앙 후에 살아가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반면 삼체인은 죽음 앞에서도 존경할 만한 존엄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삼체 세계가 미지의 고등문명에 의해 파괴된 후 지자는 지구에 와서 삼체 문명의 멸망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때 표정과 목소리는 모두 평온

139) 宋雯, 「剪不斷的精神臍帶－－童年經驗與“六十年代作家”的小說創作」, 華中科技大學, 博士論文, 2015.
140) 류츠신, 허유영 역, 『삼체 3부: 사신의 영생』, 서울: 단숨, 2019, 304쪽.

했다. 이 평온함은 “인류가 멸망에 직면했다면 감히 가질 수 없는 고귀함과 존엄”이라고 묘사되었다. 지자의 모습을 보면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경외심”이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차올랐다고 했다.

물론 지구상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삼체가 지구를 침략하겠다는 소식을 처음 알았을 때, 지구가 삼체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나 뒤떨어져 과학자들은 정신적 붕괴에 빠졌다. 경찰 스창(史强)은 인간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벌레를 죽이려 하지만 작은 벌레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삼체인과 비교할 때 지구인은 벌레처럼 약해 보이지만 강한 생명력과 존엄성이 있어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과학자들은 스창의 말을 듣고 메뚜기 떼를 보면서 ‘지구 생명의 존엄’을 느꼈다. 스창 덕분에 과학자들은 다시 투지를 회복해서 외계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삼체가 지구를 점령한 후 지구인의 저항 운동도 인류가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은 예였다. 대부분의 사람이 삼체인의 명령에 따라 호주로 가서 생활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대륙에 남아 지구 저항군을 창설했다. 그들은 호주에 가서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인류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려 했다. 또한 뤄지는 마지막에 태양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광속 우주선을 청신에게 주었다. 그는 스스로 예술품을 안고 그림 속으로 태연히 들어갔다. 죽음 앞에서 평온하고 태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태도 역시 삶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의 또 다른 면모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이다. 예를 들어 장베이하이는 인류가 외계인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뒤 최후의 전쟁 직전에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그것은 도덕이나 군인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말과 같이 “책임감 있는 군인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한 행동이었다. 마지막 그의 행동은 인류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었다. 또한 청신은 지구문명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책임의 계단」이란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 글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생이 책임의 계단을 오르는 여정처럼 개인의 책임부터 시작해서 인류

의 운명, 나아가 대우주의 운명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삼체』에서 위와 같은 책임감 있는 영웅적 인물들이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기후 변화와 세계 평화 등 국제문제와 전 인류의 공통 난제에 대해 더 많은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과학 소설에도 나타나 있다. 학자 우옌(吳巖)은 중국의 과학 소설에 '대국굴기(大國崛起)'라는 주제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소설에서 작가는 "중국이 미래세계의 변화와 외국의 충격, 우주의 재난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나아가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가진다.[141] 예를 들어 중국 작가 허시(何夕)의 SF 소설 『天年』에는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중국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지가 세워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삼체』에서는 국적과 민족의 차이가 강조되지 않고 각국 사람들이 인류의 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면벽 프로젝트의 네 명의 면벽자에는 미국인, 영국인, 베네수엘라인, 중국인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은 모두 중국인이며 중국식 영웅이 세계를 구한다는 설정은 중국내의 고조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정서와도 부합해 시장에서도 좋은 흥행성과를 얻었다.

『삼체』가 정신적 고향을 찾는 문제를 잠시 제쳐놓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비교할 때, 『신의 궤도』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존재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탐구 문제를 보다 정면에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前文)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의 궤도』에서는 김은경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고향을 찾는 행동의 기저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실존적 사고는 배명훈의 수상작 『안녕, 인공존재』에도 나타났다. 그 소설 속의 인공존재는 데카르트의 말 "나

141) 李牧鳴, "韓松：大國崛起常常伴隨著科幻熱潮", 新華每日電訊, 2018.11.2. http://mrdx.cn/content/20181102/Articel11003BB.htm

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했다. 존재를 고민하는 과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데 그 고민을 통해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문학적 사유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또한 작가는 감성의 힘으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작중에서 주요 인물 프리마와 김은경 및 나물은 모두 영혼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였다. '깨달음'은 종교적인 관념이므로 불교와 기독교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살펴보자.

불교에서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궁극적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불타(佛陀, Buddha)란 말이 자체가 '깨달은 자'라는 뜻이 있다.[142] 선불교에서 '깨달음'이란 진실로 자신의 존재와 참된 모습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이며, 모든 법(法)의 진상, 즉 근본실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의 안목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143] 그러한 깨달음은 스스로의 깨달음, 즉 자각(自覺)이라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문동규(2011)에 따르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세간적인 가치란 필요가 없고 인간이 세인의 여론인 세론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세계가 그러한 가치와 세론을 이미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이다.[144]

기독교에서도 깨달음의 개념이 있다. 신학자 버나드 J.타이렐(Bernard James Tyrrell)은 저작 『그리스도 요법』에서 깨달음을 통해 치유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깨달음을 통한 치유과정은 성육신하신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소유한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치유를 달성하고, 인간 내면을 항상 고차원의 실존적인

---

142) Buddha-위키백과
https://en.wiktionary.org/wiki/Buddha
143) 성본, 「禪의 실천사상과 깨달음(自覺)의 문제」, 『보조사상』29, 보조사상연구원, 2008,, 371쪽.
144) 문동규, 「깨달음의 세계; 본래적인 실존의 세계: 벽송 지엄과 마르틴 하이데거의 만남」, 『철학논총』 64(2),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1.

완전함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145]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깨달음은 불교처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정기(2004)에 따르면 깨달음을 통한 치유 과정은 그 일차적인 동인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차적인 동인이 인간의 협력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력하므로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146]

『신의 궤도』에서 프리마는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신'이 되었다. 그녀는 존재폭발이 일어난 순간에 우주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되돌려놓았다. 그것은 일종의 자비(慈悲)로 볼 수 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인간을 지키고 싶은 친구인 히스토의 소망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찾았다. 프리마의 깨달음은 불교의 깨달음과 비슷한 점이 있다.

반면 김은경과 나물의 깨달음은 신과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기독교적 깨달음과 더 가깝다. 긴은경은 신의 빛이 자신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다음과 같다.

그 빛을 통해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영혼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

(긴은경:) 나한테도 영혼이 있었나요?

(프리마/신;) 당연하죠.

(긴은경:) 나는 사람도 아니라던데.

(프리마/신:) 나도 사람은 아닌데요.

(중략)

신은 은경의 존재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에 가까웠고, 그보다는 영혼의 소리에 조금 더 가까웠다. 은경은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신의 음성이 심장을 가득 채우

145) 버나드 J.타이렐, 이정기 역, 『그리스도 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서울: 예영B&P, 2003, 34쪽.

146) 이정기, 「깨달음과 치유: "그리스도 요법" 서설」, 『신학논단』 37, 2004.

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147)

신의 빛이 김은경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긴은경은 그녀의 존재 의의와 정체성 등 문제에 대해 신과 대화했다. 김은경은 신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고 마음의 평정과 치유를 얻었다. 그 가르침은 언어가 아니라 감정과 영혼의 소리에 더 가깝다고 했다.

나물도 마찬가지로 신의 음성을 통해 깨달았다. 그는 신의 독실한 신자이자 보기 드문 예언자였다. 소설에서 예언자란 희귀한 유전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그들은 귓속에 중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석(耳石)이 있었다. 그러므로 궤도를 따라 행성 주위를 도는 신이 예언자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면 그들의 이석이 미세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살짝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신의 음성이라고 불렸다. 보통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석의 구성성분이 바뀌어 더 이상 신의 음성을 감지할 수 없었다. 나물은 매우 순수한 이석을 가지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도 신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예언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물이 혼혈인으로서 피부가 다른 사람보다 검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는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도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류에서 배척당한 나물은 오랜 동안에 홀로 외롭게 신의 궤도를 연구하였고 마침내 신의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신의 존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어떤 감각기관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걸러진 제 영혼만으로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살아 있는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얼마나 완성된 존재인지, 세상이란 어떤 의미이고 왜 존재하는지를 모두 깨달았습니다. 언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저 깨달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제 안에서 생겨나 저를 가득 가득 채 왔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148)

---

147) 배명훈,『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310쪽.
148)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170-171쪽.

교회에서 유행하는 관점은 신이 실체가 없고 단지 관념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이 실체가 있다고 믿고, 신의 궤도를 연구함으로써 신을 찾고자 한 나물은 외로운 아웃사이더와 같았다. 게다가 피부색이 남보다 검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교회에서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신의 음성을 통해 깨달았다. 그는 그 소리로 신의 존재를 확인했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이해 없이도 자신이 해 온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명훈의 단편소설 『누군가를 만났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났다. 주인공은 혼령을 추적하는 심령학자로서 지인들로부터 이해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고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한 외계인의 탐사 흔적은 그 동안 그가 한 작업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는 드넓은 우주를 보면서 과거의 고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깨달았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했으며 행복감과 치유를 얻었다. 현실 생활에는 나물과 심령학자처럼 외롭게 소신을 지키고 타인의 이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명훈은 작품세계에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전달했다.

또한 김은경과 나물의 깨달음은 지식이나 논리와 같은 지성과 이성(理性)이 아니라, 감정이나 직감과 같은 직관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얻어졌다. 작가는 감성으로 과거 인간 이성으로 인한 상처에 위안을 전달했다.

제 4 장 결론

본고는 대재앙 서사를 중심으로 중국 작가 류츠신의 『삼체』와 한국 작가 배명훈의 『신의 궤도』에 대해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SF문학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본고의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그리고 기존 연구의 현황과 한계를 정리하였다. SF문학이라는 장르가 아직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SF문학사를 되돌아보고 SF문학 연구의 중요성을 밝혔다. 1990년대에 들어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전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불안과 질문은 과거의 순수문학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SF는 그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실을 성찰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고가 주목한 대재앙 소설은 과학소설의 하위 장르로서 현실 세계의 불안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학소설이 한국이나 중국에 도입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한중 양국의 SF 문학에는 모두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취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SF가 오랜 기간 동안 문학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고 SF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한중 양국의 평단과 독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SF작품을 대상으로 서구의 작품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SF문학 고유의 문제의식이 있는지, 서양의 기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SF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문제를 토론해보았다.

또한 제1장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통해, 류츠신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많은 동시에 문학사 의의, 인물형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유토피아. 서사학, 미학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비교적 관점의 연구와 해외에서의 연구 성과가 여전히 미흡함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배명훈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일단 수적으로 부족하고 장편소설보다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성과가 더 많았으며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룬 텍스트인 『신의 궤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문학의 시각으로 한중 SF문학 작품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본 논문의 시도가 한중 SF를 비교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2장에서는 류츠신과 배명훈의 이력과 작품 세계의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제3장의소설 텍스트 분석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 SF 마니아 출신의 류츠신은 아서·클라크와 같은 SF 황금시대의 작가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의 SF창작은 순수한 SF환상 단계, 환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단계 그리고 사고 실험 단계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반면 배명훈은 SF독자가 아닌 상태에서 SF작가로서 장르에 들어갔고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사이를 오가는 작가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해학적으로 현실을 풍자했다. 사회의 부조리와 도시인의 정신적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지혜가 넘치는 유머 감각으로 독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재앙의 위기, 진행, 결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삼체』와 『신의 궤도』를 분석하고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삼체』에서는 대재앙이 외계인의 침입으로 시작됐지만 근본적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지구문명과 삼체문명 사이에는 단순한 정의의 주인공과 사악한 악역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지리적인 고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우주 시민'이라는 존재적 공통점이 있다. 류츠신이 상상한 작품 세계에서 문명 자체의 생존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았다. 『삼체』에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도덕 및 인간성이 충돌할 때 인간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일종의 사고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 전체가 미지의 고등문명의 공격을 받아 이차원

평면으로 되었고 지구 문명이 종말을 고했다. 인간은 죽음으로 그들의 어머니 별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태양계 차원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다. 또한 『삼체』에서 생존 제일의 공리로 인해 문명마다 삶의 형식을 관심할 여유가 없고 힘들게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동경과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종말 후에 삶의 형식이 여전히 빛나게 남아 있었다.

『신의 궤도』의 경우 대재앙의 원인은 인류의 내전과 인공지능의 각성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삼체』와 마찬가지로 인류 내부의 원인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재앙의 진행에는 나니예 행성에 있는 세 개의 주요 세력의 권력투쟁이 수반되었다. 그들의 권력 이동은 지식, 정확히 말하면 행성이 직면하고 있었던 대재앙의 비밀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나니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며 미지의 심판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죄를 받은 나니예의 사람들은 모든 존재로부터 소외된 채 허전함과 소극적인 도피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진해간다. 마지막으로 구세주인 김은경과 인공지능체 프리마 덕분에 나니예 행성은 구원을 받았다. 강인한 김은경은 주어진 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진짜 고향을 찾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프리마는 따뜻한 빛을 발해 대립과 원한의 매듭을 풀고 세상을 구원했다.

서양의 SF 소설과 비교할 때 『삼체』와 『신의 궤도』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국민의 시선이 자국에서 세계로 향하면서 동아시아는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의 개혁개방 이래 경제의 발전은 인구 이동과 새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사상 관념의 형성을 가져왔다. 또한 지리적인 고향을 떠난 것은 동시에 정신의 정착지를 떠난 것을 의미했다.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함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정신적 고향을 탐구하는 것을 그린 문학작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삼체』에는 그러한 시대 배경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과 기존의 안온한 환경이 깨졌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88 올림픽을 계기로 사람들은 세계의 범위에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 사회의 고도한 경제발전은 허무주의와 고독감 등의 문제도 야기했고 한국사회에 대한 실존적인 사고를 촉발시켰다. 90년대의 주류문단에서도 인간 존재의 고뇌, 정체성 위기, 고립과 단절 등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의 궤도』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깊은 실존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삼체』에서는 지구인과 삼체인을 모두 고향이 없는 우주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신의 궤도』의 김은경 역시 항상 탈출하고 고향을 찾으려는 욕구와 행동을 대변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이 고향을 찾는 모습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정신의 귀속처를 잃고 방황하던 동아시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 두 작품은 다른 해법을 제시하였다. 『삼체』에는 안정감을 주는 고향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엄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소설에서는 존엄함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약하더라도 끝까지 저항해야 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고 태연한 모습을 유지함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삼체』는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중국식 영웅'의 형상을 많이 부각시켰고 이점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는 이유가 되었다. 『삼체』가 정신적 고향을 찾는 문제를 잠시 제쳐놓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반면, 『신의 궤도』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존재 가치를 탐구하는 문제를 보다 정면에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김은경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고향을 찾는 행동의 기저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존재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또한 주요 인물인 프리마와

김은경 및 나물은 모두 영혼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였다. 그들의 깨달음은 지식이나 논리와 같은 지성과 이성(理性)이 아니라, 감정이나 직감과 같은 직관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얻어졌다. 작가는 감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생겨난 정신적 상처를 달래주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맺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중 SF 문학의 비교연구에 관한 이론 체계와 방법론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SF 문학 평론의 관점을 많이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토대는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주로 두 작품만을 자세히 분석하였는데 보다 많은 작품을 다루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본에도 우수한 SF 작품이 많아 향후에는 한중일의 SF 작품을 광범위하게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SF의 독자성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해명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소설 텍스트

류츠신, 고호관 감수, 『삼체』, 서울: 단숨, 2013.
_____, 허유영 역, 『삼체 2부: 암흑의 숲』, 서울: 단숨, 2016.
_____, 허유영 역, 『삼체 3부: 사신의 영생』, 서울: 단숨, 2019.
배명훈, 『신의 궤도1-빨간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_____, 『신의 궤도2-하얀 비행기』, 서울: 문학동네, 2011.

(2) 단행본:

<국내>
고장원, 『대재앙 이후의 세계와 생존자들』, 서울: 부크크, 2017c.
_____, 『중국과 일본에서 SF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서울: 부크크, 2017b
_____,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서울: 부크크, 2017a.
막스 베버,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文藝出版社, 1994.
박상준 외,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서울: 케포이북스, 2016.
배명훈, 『SF작가입니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_____, 『안녕, 인공존재』, 서울: 북하우스, 2010.
버나드 J.타이렐, 이정기 역, 『그리스도 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서울: 예영B&P, 2003.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2002.
수전 손택, 이민아 역, 「재앙의 상상력」, 『해석에 반대한다』, 서울: 이후, 2002.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서울: 새물결,

2013.

<해외>
亞當·羅伯茨, 馬小悟 譯, 『科幻小說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劉慈欣, 杜學文, 楊占平 主編, 『我是劉慈欣』, 山西: 北嶽文藝出版社, 2019.
_____, 『最糟的宇宙, 最好的地球』,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5.
楊宸, 羅崗, 「"整體性"的缺失與呼喚 ――論<三體>之於當代中國文學的意義」, 『劉慈欣科幻小說與當代中國的文化狀況』, 石曉巖 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8.
約翰·麥奎利, 何光滬 譯, 『基督教神學原理(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7.
朱光潛, 『悲劇心理學』, 江蘇: 江蘇文藝出版社, 2009.
鄭 軍, 『第五類接觸: 世界科幻文學簡史』,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1.
Abrams, M. H. "Apocalypse: Theme and Variations." *The Apocalypse in English Renaissance Thought and Literature.* Ed. C. S. Patrides and Joseph Wittreich. Manchester, Eng.: Manchester UP, 1984.
David G. Hartwell and Kathryn Crame(EDT), *The Ascent of Wonder: The Evolution of Hard SF*, New York: Tor Books, 1994
Frederick A. Kreuziger, *Apocalypse and Science Fiction*, Milwaukee, WI: Scholar Press, 1982.
Liu Cixin, Ken Liu, *The Three-Body Problem*, New York: Tor Books, 2014.

(3) 논문:

<국내>
강지희, 「장르의 표면장력 위로 질주하는 소설들」, 『창작과비평』 39(3), 2011.
김남혁, 「안에서 밖으로-배명훈 소설집『총통각하』」,『문학과 사회』 26(1), 2013.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2), 2015.
문동규, 「깨달음의 세계; 본래적인 실존의 세계: 벽송 지엄과 마르틴 하이데거의 만남」, 『철학논총』 64(2),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1.
박민호,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학연구』72, 2018.
박인성,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 배명훈·김초엽·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7, 2020.
백지운, 「재난서사에 대항하기」, 『中國現代文學』 69, 2014.
성 본, 「禪의 실천사상과 깨달음(自覺)의 문제」, 『보조사상』29, 보조사상연구원, 2008.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소설적 질문」, 『외국문학연구』(55), 2014.
이정기, 「깨달음과 치유: "그리스도 요법" 서설」, 『신학논단』 37, 2004.
이지용. 「한국 SF의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장성규, 「2000년대 한국 SF 문학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16, 2018.

<해외>
曹文軒, 「論近二十年來文學中的"流浪情結"」, 文學評論, 2002.
陳頎, 「文明沖突與文化自覺－－<三體>的科幻與現實」, 『文藝理論研究』1. 2016.
陳海琳, 「災難·抗爭·救贖：劉慈欣和王晉康的末日書寫－以《三體》系列小說和《逃出母宇宙》爲中心」, 『蘇州敎育學院學報』33(4), 2016.
程孝陽, 「劉慈欣科幻小說論」, 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20.
竇芳芳, 「中國新生代科幻小說的烏托邦建構」, 遼寧大學, 碩士論文, 2015.
方曉楓, 「試析<三體>中三位女性形象的倫理意義」, 『文學敎育(上)』9, 2016.
顧 葉, 「宇宙流浪意識與劉慈欣科幻小說創作」, 山東大學, 碩士論文,

2014.
韓　環, 「劉慈欣科幻小說論」,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4.
韓松，孟慶樞, 「科幻對談: 科幻文學的警世與療愈功能」,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4, 2020.
霍偉岸, 「《三體》中的政治哲學」, 『讀書』3, 2016.
賈立元,　「“光榮中華”：劉慈欣科幻小說中的中國形象」，渤海大學學報,1, 2011.
李源湲,　「劉慈欣《三體》的空間敘事研究」,　山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9.
李廣益,　「中國轉向外在：論劉慈欣科幻小說的文學史意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8, 2017.
廖曉波,　「中國新生代科幻作家災難題材寫作研究」,　湖南大學,　碩士論文, 2015.
劉舸,李雲,　「論劉慈欣《三體》及對阿瑟·克拉克的接受」,　『外國文學研究』2, 2016.
劉　釗, 「賽博女性主義視野下的科幻小說《三體》創作」, 『佳木斯教育學院學報』2, 2013.
劉珍珍, 「後現代主義視野下的劉慈欣科幻小說研究」, 復旦大學, 碩士論文, 2009.
劉慈欣, 「超越自戀－－科幻給文學的機會」, 『山西文學』(7), 2009.
屈　菲,　「從黑暗森林到生活世界－－論《三體》系列小說中的話語意識」, 『文藝爭鳴』9, 2015.
任祥輝, 「人類共同體的文學想象：“基地系列”與“三體系列”比較研究」, 廣東外語外貿大學, 碩士論文, 2020.
宋　雯, 「剪不斷的精神臍帶－－童年經驗與“六十年代作家”的小說創作」, 華中科技大學, 博士論文, 2015.
宋明煒, 「彈星者與面壁者：劉慈欣的科幻世界」, 『上海文化』3, 2011.
汪樹東, 「罪與法－－論卡夫卡(Franz Kafka)小說的核心主題」, 『石河子大學學報』 2(1), 2002.
王　瑤,　「鐵籠、破壁與希望的維度－－試論劉慈欣科幻創作中的“驚奇感美學”」, 『現代中文學刊』6, 2016.

_____. 「“冷酷的方程式”與當代中國科幻中的 “鐵籠困境”」, 『文學評論』6, 2017.
王 艷, 「爲什麼人類還值得拯救？－－劉慈欣 VS 江曉原」,『新發現』11, 2007.
王靜靜, 「論劉慈欣《三體》中的文革敘事」, 『小說評論』3, 2016.
吳巖,方曉慶, 「劉慈欣與新古典主義科幻小說」, 『湖南科技學院學報』 2, 2006.
徐王胤, 「中國當代科幻小說的生態闡釋」, 渤海大學, 碩士論文, 2019.
許潔人, 「新型人類生存詩學的演繹：劉慈欣科幻小說論」, 浙江大學, 碩士論文, 2018.
許 曉, 「劉慈欣: 我知道, 意外隨時可能出現」, 『城市畫報』1, 2011.
嚴 鋒,「創世與滅寂－－劉慈欣的宇宙詩學」, 『南方文壇』5, 2011..
楊 宸, 「“歷史”與“末日”－－論劉慈欣《三體》的敘述模式」, 『文藝研究』2, 2017.
_____, 「從“終極烏托邦”到“宇宙中的人”－－論全球化視角下《三體》的烏托邦性質」, 『比較文學與世界文學』2, 2016.
張詩悅, 「劉慈欣科幻小說創作研究」, 沈陽師範大學, 碩士論文, 2016.
Adam Stock, “The Blind Logic of Plants: Enlightenment and Evolution in John Wyndham's The Day of the Triffids”, *Science Fiction Studies* 42(3), 2015.
Han Song, “Chinese Science Fiction: A Response to Modernization”, *Science Fiction Studies* 40(1), 2013.
Hua Li, “The Political Imagination in Liu Cixin's Critical Utopia: China 2185”, *Science Fiction Studies* 42(3), 2015.
Marshall B. Tymn, “Science Fiction: A Brief History and Review of Criticism”,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3(1), 1985.
Massumi B,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The political ontology of threat". In: *The Affect Theory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20.
Mingwei Song, “Variations on Utopia in Contemporary Chines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Studies* 40(1), 2013.

_____, “After 1989: The New Wave of Chinese Science Fiction”, *China Perspectives* 1, 2015.
_____, “Liu Cixin’s Three-Body Trilogy: Between the Sublime Cosmos and the Micro Era”, *Lingua Cosmica: Science Fiction from around the World* 1.1, Knickerbocker, Dale (EDT),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8.
Patrice D Douglass, "On (Being) Fear: Utah v. Strieff and the Ontology of Affect", *Journal of Visual Culture* 17(3), 2018.
Rowland Hughes and Pat Wheeler, “Introduction Eco-dystopias: Nature and the Dystopian Imagination”, *Critical Survey* 25(2), 2013.
Sarah Dillon, “Imagining Apocalypse: Maggie Gee's ‘The Flood’”, *Contemporary Literature* 48(3), 2007.

(4) 인터넷 자료:

고장원, “SF에서 대재앙 이후 이야기란 무엇일까?”, ScienceTimes, 2013.12.9.
https://www.sciencetimes.co.kr/news/sf%EC%97%90%EC%84%9C-%EB%8C%80%EC%9E%AC%EC%95%99-%EC%9D%B4%ED%9B%84-%EC%9D%B4%EC%95%BC%EA%B8%B0%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
김은성, “너, 어느 별에서 왔니? - 배명훈 『신의 궤도』”, 채널예스, 2011.
http://ch.yes24.com/Article/View/18145
날개, “신의 궤도 : 배명훈 소설의 궤도”, 거울, 2011.9.30.
http://mirrorzine.kr/reviews/7370
신연선, “배명훈: 소재가 오컬트스러워도 충분히 SF다”, 채널예스, 2017.
http://ch.yes24.com/Article/View/34356
이윤주, “소설가 배명훈: <안녕, 인공존재!> 출간 장르와 본격문학 경계에 선 작품 주로 선보여”, 주간한국, 2010.6.24.
http://weekly.hankooki.com/lpage/people/201006/wk2010062411160610559 0.htm

Paul Harris, “Hollywood searches for escapism after the apocalypse”, The Guardian, 2009.
https://www.theguardian.com/film/2009/aug/09/hollywood-apocalypse-movies-anxiety
姜妍,“科幻小說返《人民文學》”, 中國作家網, 2012.3.14
http://www.chinawriter.com.cn/2012/2012-03-14/120900.html
李黎,“劉慈欣談末日”, 經濟觀察報，2012.12.17.
http://www.eeo.com.cn/2012/1217/237575.shtml
丁曉潔, “大時代邊上的幻想家_劉慈欣：只有在科幻裏，我才是個理想主義者”, 新周刊 346期, 2011.
http://www.cb.com.cn/index/show/sd/cv/cv135110301310/p/7.html
智知，《三體》系列：地球往事編年表，知乎，2019.6.1.
https://zhuanlan.zhihu.com/p/67716375
騰訊文化, “劉慈欣：末日來臨人類都會死, 且死得毫無尊嚴”, 騰訊網, 2014.11.3.
https://cul.qq.com/a/20141103/009878.htm
李牧鳴, "韓松：大國崛起常常伴隨著科幻熱潮", 新華每日電訊, 2018.11.2.
http://mrdx.cn/content/20181102/Articel11003BB.htm

中文摘要

劉慈欣的《三體》和裴明勛的《神的軌道》比較研究

-以末日敘事爲中心-

徐妙妍(XU MIAOYAN)
首爾大學研究生院
比較文學專業

本研究以末日敘事爲中心，對中國作家劉慈欣的《三體》和韓國作家裴明勛的《神的軌道》進行了比較研究。本研究的目的在於探索東亞的科幻文學是否具有自己獨特的問題意識。

21世紀以來，中韓兩國的科幻文學在數量和質量上都取得了令人矚目的成就。但是在此之前，科幻文學長期停留在文學研究的邊緣地帶，十分缺乏學術界眞摯的討論。本研究選定了兩本講述災難末日的科幻小說作爲研究對象。因爲災難末日故事作爲科幻的下屬類型可以敏銳地反映社會的焦慮感，所以說研究災難末日小說在把握時代脈絡和各國社會焦慮的原因方面具有現實意義。

本研究從末日的危機、進行和結局三個方面分析了《三體》和《神的軌道》，探討了兩部作品的共同點和差異點。《三體》中雖然末日是由外星人入侵引起的，但根本原因在於人類自身。 地球文明和三體文明之間不是單純的正義的主人公和邪惡的反派的關系，而是都處於失去地理意義的家園的危機中，同爲飽受精神仿徨的宇宙公民。在末日的進行階段，小說展示了當人類的生存本能和道德及人性發生沖突時，人類應該如何自處的思想實驗。 最

後，整個太陽系被未知的高等文明攻擊，跌落爲二維平面，地球文明宣告終結。但是，關於人類命運共同體和生命及生活那些閃耀的思考留了下來。

《神的軌道》中，末日的原因可以歸結爲人類內部的鬥爭和人工智能的覺醒。和《三體》一樣，人類內部的原因都是最本質的原因。末日的進行階段中值得註意的一點是，納尼耶星球的人認爲自己有罪，他們忐忑不安地等待未知的審判。自覺獲罪的納尼耶百姓們如同被所有的存在所疏遠，在空虛和消極的逃避中消磨了自己的生活。最後，納尼耶行星被救世主金恩京和人工智能體普裏馬所拯救。堅韌的金恩京不斷嘗試擺脫既有的框架，爲尋找眞正的家園而全力以赴。在她的幫助下，普裏馬發出溫暖的光芒，解開了對立和怨恨的結，拯救了世界。

本研究的結論是，與西方的科幻小說相比《三體》和《神的軌道》反映了東亞特有的問題意識。筆者認爲，該問題意識的指向是如何在全球化浪潮中找到自己的位置。隨著國民的視線從本國轉向世界，東亞面臨著重新定位自己的位置和重新確立身份認同感的迫切情況。《三體》中的地球人和三體人都是沒有家園的宇宙公民，而《神的軌道》中金恩京也始終表現出想要逃離並尋找眞正家園的欲望和行動。 他們尋找故鄉的樣子也許正反映出了東亞在新的世界秩序中彷徨的景象。

對於這個問題，兩部作品提出了不同的解決方法。雖然《三體》裏始終沒有出現一個能給人帶來安全感的家園，但小說裏提出了比那更重要的東西。那就是好好生活。具體來說，就是要有尊嚴和有責任感地生活。小說中强調了有尊嚴地生活的重要性。卽，卽使弱小也要抵抗到底，卽使是在死亡面前也要保持平靜泰然的姿態。另外，《三體》刻畫了許多爲人類共同體的生存而堅守職責的"中國式英雄"的形象，在讀者中備受歡迎。而在《神的軌道》中，作家通過金恩京這一角色表達了身份認同感其實存在於尋找家園的行動中，給苦惱自身存在價值的人們提供了溫暖的安慰。另外，主要人物普裏馬、金恩京和野菜都通過靈魂的感悟確定了自身存在的意義。他們的感悟不是通過知識或邏輯等知性和理性，而是通過情感或直覺等直觀感性而獲得的。 作者試圖用感性撫慰過去因人類理性導致的精神創傷。

關鍵詞：SF，末日，劉慈欣，裴明勛，焦慮，身份認同
學　號：2018-24839